2023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집

지방시대, 지역희망 이야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Contents

PART 1

시도 편성 8개 지역

충청북도 014
진천군, 남녀노소 모두가 누리는
스포츠 중심 도시로 우뚝!

충청남도 028
예술과 문화이야기,
연산문화창고

충청남도 042
"UN 공공행정상" 수상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깨끗한 충남 해양환경 만들기

경상북도 056
육상의 메카
달려라 예천!
국무총리 표창

경상북도 070
기본에 충실, 산림휴양은 덤!
「단밀 낙정~생송임도」

경상남도 084
숲속에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으로 진주를 찾다

대전광역시 098
문화활력소,
도안동 행정복지센터로 오세요!

세종특별자치시 112
원스톱 주차환경개선
(주차환경·보행환경개선·전선지중화를 한번에!)

지방시대, 지역희망 이야기

PART 2

시군구 편성 12개 지역

경기도 가평군 128
맛있는 "가평군의 술과 음식"이
즐거운 축제의 꽃으로 피다

경기도 포천시 142
한탄강
지오페스티벌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156
사방거리
민·군·관으로 通하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170
희망을 안고 사는
통일의 길목

충청북도 영동군 184
주민공동체 문화와 축제의 중심,
힐링타운 광장

충청북도 괴산군 198
젊은이들이 꿈을 그리러 오는 언덕,
몽(夢)도래언덕 조성사업

충청남도 아산시 212
사랑해유 함께해유
송악마을공간 "해유"
대통령 표창

전라북도 김제시 226
청년들의 희망 '이랑',
활력 넘치는 김제시를 꿈꾸다!

전라남도 함평군 240
개굴개굴 복 부르는
행복 공동체 보여리

경상남도 김해시 254
금병산 아래 철길따라 화합의
길이 열리는 하모니 진영읍 조성

부산광역시 서구 268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한
취약지역 주민 정주환경 개선

대구광역시 중구 282
마을주민과 도시재생이 만나
낡은 골목길에 활력을 불어넣다



지역 특화 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공정과 자율에 기초한,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우동기 위원장

지난 20여 년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 그리고 교육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상의 한계, 중앙 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 일관성과 지속성이 다소 미흡한 정책적 한계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비수도권 지자체가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자치분권과 재정력 강화, 교육혁신과 지방대학 살리기,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지방시대를 위한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 정비와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개선 등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갈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는 수평적으로는 균형 발전이라는 '공간적 공정',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이라는 '권력적 공정'이 바로 선 나라입니다. 정부는 지역 특화 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공정과 자율에 기초한,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어 갈 것입니다.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시대가 오면 오랜 시간 빚어졌던 동서 간 또는 세대 간의 갈등이나 빈부의 격차도 많이 소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지방시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범정부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이를 추진할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열정과 지혜로 만들어진 '지방시대, 지역 희망 이야기'가 널리 확산됨으로써 행복한 지방시대가 하루속히 앞당겨지기를 기원하면서 사례집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0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우 동 기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찾아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일입니다.

전윤종 원장

아무도 찾지 않던 보여리 마을을 영농조합법인 설립, 주거환경개선, 귀촌 인구 유입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로 변모시켰고, 불법주정차, 청소년 우범지대로 몸살을 앓았던 경전선 폐선부지를 숲(하모니숲)길로 탈바꿈시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등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모두 지난 2022년 균형발전사업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우수사례집은 평가자문단 등 지역전문가 집단이 4개월여에 걸쳐 심사, 현장조사를 통해 발굴한 20개의 사례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역마다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그런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찾아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일입니다. 현재를 발판삼아 미래를 만드는 것은 지역의 몫입니다. 지역 나름의 전통과 정체성을 살리는 한편, 잘 다져져 있는 고유한 산업 기반을 활용하면 지역의 경제와 문화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치역량이 우수한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공공기관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시대, 지역 희망 이야기'는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시대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을 극복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밝은 미래를 만든 사례들은 그 자체로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사례집에 담겨 있는 생생한 성공 스토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잘 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3년 10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전 윤 종

발간과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매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종합평가 이후, 균형발전정책의 추진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자체에서 수행한 균형발전사업의 우수성과를 중심으로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시도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54개와 정부부처에서 추천받은 16개, 총 70개 사례에 대해 평가자문단장을 비롯하여 사업종합평가에 참여한 분과장 중심으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정을 기하였고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조사, 3차 최종평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지역자율계정(지자체 추천) 20개, 지역지원계정(정부부처 추천) 11개, 총 31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그 중 지역자율계정 우수사례 20개를 "2023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하게 되었고, 사례 유형별로는 지역활성화 14개, 지역역량강화 4개, 일자리창출 1개, 인구감소대응 1개이다.

포괄보조사업별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 4개,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3개, 성장촉진지역개발 2개, 특수상황지역개발 2개, 체육진흥시설지원 2개, 폐산업시설등유휴공간문화재생, 해양및수자원관리, 임도시설,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문화시설확충, 주차환경개선지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이 각각 1개씩이다.

지자체별로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각 3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각 2개, 전라북도,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각각 1개씩이다.

발간과정 - 사례 발표



시도 편성 : 충청북도



시군구 편성 : 경상남도 김해시



시도 편성 : 경상북도



시군구 편성 : 전라북도 김제시



시도 편성 : 충청남도



시군구 편성 : 경기도 가평군

발간과정 - 현장 조사



시도 편성 : 세종특별자치시



시군구 편성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시도 편성 : 대전광역시



시군구 편성 : 전라남도 함평군



시도 편성 : 경상남도



시군구 편성 : 충청북도 영동군

지역자율계정 우수사례

구분	지자체		포괄보조사업명	우수사례명	사례 유형
시도 편성 (8)	충북		체육진흥시설지원	진천군, 남녀노소 모두가 누리는 스포츠 중심 도시로 우뚝!	지역활성화
	충남		폐산업시설등유휴공간 문화재생	예술과 문화이야기, 연산문화창고	지역활성화
	충남		해양및수자원관리	"UN공공행정상" 수상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깨끗한 충남 해양환경 만들기	지역역량강화
	경북		체육진흥시설지원	육상의 메카 달려라 예천!	지역역량강화
	경북		임도시설	기본에 충실, 산림휴양은 덤! 「단밀 낙정~생송임도」	지역활성화
	경남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숲속에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으로 진주를 찾다	인구감소대응
	대전		문화시설확충	문화활력소, 도안동 행정복지센터로 오세요!	지역활성화
	세종		주차환경개선지원	원스톱주차환경개선(주차환경·보행환경개선 ·전선지중화를 한번에!)	지역역량강화
시군구 편성 (12)	경기	가평군	일반농산어촌개발	맛있는 "가평군의 술과 음식"이 즐거운 축제의 꽃으로 피다	지역활성화
	경기	포천시	특수상황지역개발	한탄강 지오페스티벌 운영	지역활성화
	강원	화천군	특수상황지역개발	사방거리 민·군·관으로 通하다	지역활성화
	강원	고성군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희망을 안고 사는 통일의 길목	지역활성화
	충북	영동군	성장촉진지역개발	주민공동체 문화와 축제의 중심, 힐링타운 광장	지역활성화
	충북	괴산군	성장촉진지역개발	젊은이들이 꿈을 그리러 오는 언덕, 몽(夢)도래언덕 조성사업	일자리창출
	충남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랑해유 함께해유 송악마을공간 "해유"	지역역량강화
	전북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	청년들의 희망 '이랑' 활력 넘치는 김제시를 꿈꾸다!	지역활성화
	전남	함평군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개굴개굴 복 부르는 행복 공동체 보여리	지역활성화
	경남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	금병산 아래 철길따라 화합의 길이 열리는 하모니 진영읍 조성	지역활성화
	부산	서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한 취약지역 주민 정주환경 개선	지역활성화
	대구	중구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마을주민과 도시재생이 만나 낡은 골목길에 활력을 불어넣다	지역활성화

PART 1

시도 편성 8개 지역

함께했기에 키울 수 있었던 공간의 가치,
우리 지역 성장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1 충청북도

#2 충청남도

#3 충청남도











#4 경상북도

#5 경상북도

#6 경상남도

#7 대전 광역시

#8 세종특별 자치시

충청북도

진천종합스포츠타운에서 발산되는 지역민의 생생한 활력

우수사례명

진천군, 남녀노소 모두가 누리는 스포츠 중심 도시로 우뚝!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활기를 잃어버린 도시는 빛바랜 채 소외되고 소멸하게 될 것이다. 현재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예방 전략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제 특별한 생거진천을 들여다보자. 진천은 이미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 분위기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라는 대전략으로 생활체육 인프라가 확대되어 도시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주인구가 증가하면서 종합스포츠타운 이용객들이 넘치고, 도시는 선순환적 구조로 젊어지고 있다.

INFO

- **지자체** 충청북도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포괄보조사업** 체육진흥시설지원
- **내역사업명** 지방체육시설지원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전경

스포츠타운으로 정주인구를 확보하라

진천군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의 도계에 위치한다. 최근 진천은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유치로 신수도권 관문으로서의 위치적 이점을 획득했다. 그로 인해 우량기업을 다수 유치했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했다. 또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일환인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도 도시의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왔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경제적 성장은 진천군을 내륙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세우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직장 이동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정주인구로 안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 에너지를 양산할 콘텐츠도 부족했다. 진천군에서 즐길 거리를 마련하고 부각시켜야 했다.

진천은 2011년부터 조성된 국가대표선수촌으로 인해 스포츠 도시로 서서히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 그에 비해 체육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스포츠 시설은 소규모로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만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진천군은 남녀노소 모두를 만족시킬 콘텐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혁신도시로 비상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은 시급했고 이를 충족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그렇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에 돌입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종목을 집약한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지역주민으로 한정된 이용자를 확대하고 진천군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복지를 마련하고자 추진한 사업이었다.

기관의 과감한 투자, 주민의 주도적 참여

진천을 스포츠 중심 도시로 우뚝 세우기 위해 군은 심혈을 기울였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군수 주재의 마을별 '군민 소통의 날'을 열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동시에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적 의견을 청취하였다. 더 나은, 더 편리한, 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종목별 생활체육인들과 함께 벤치마킹도 수차례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시설을 직접 이용할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참여하도록 힘썼다. 기본계획에서부터 사업 종료 시점까지 군민들과 함께 했다.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종목별 동호회 회원들과 기 조성된 여러 시설물을 견학했다. 그 과정에서 시설물의 규격과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였고, 이를 시설물 조성에 반영하기 위해 힘썼다.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을 위해 13만 6천여 평방미터의 체육시설 부지를 조성했다. 사업은 단계별로 시행되었다. 2012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4년 군관리계획 결정, 2015년 11월 공사 착공, 2020년 5월 시설물 준공까지 8년 8개월이 걸렸다. 인구증가 대비와 주민 의견을 수렴한 과감한 시설투자였다. 기본계획에서부터 최종 준공까지 많은 주민이 함께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첨예한 갈등도 빚어졌다. 군은 개인의 의견을

다목적체육관 내부



소중하게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하기는 한계가 있었다. 그 대책으로 주민들과 함께 벤치마킹에 나섰다. 여러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방안이었다.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시설물 조성으로 최대한 방향을 맞췄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장벽에 부딪혔다. 예산 확보였다.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컸다. 다양한 주민의견으로 인해 수차례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이다. 시간적 소요와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엄청났다.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에는 군비 부담이 상상을 초월했다. 군은 총력을 기울인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장기적 예산 편성에 돌입했고 기어이 이를 실현했다.

그렇게 진천종합스포츠타운은 진천군을 스포츠 중심 도시로 우뚝 세웠다. 노년층을 배려한 그라운드골프장과 인조잔디, 하드코트 등 다양한 구장에서 즐길 수 있는 테니스장,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종목의 실내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과 인기 종목인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과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인 씨름장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체육시설을 조성했다.



야구 경기장



생거진천 씨름장 내부

생거(生居)진천답게, 사람 중심으로

종합스포츠타운 공사는 8년 이상 소요된 공사였던 만큼 건립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종종 발생했다. 돌발 상황은 사업을 지연시켰지만 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교훈도 안겨주었다. 2016년 토목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던 때에 암반이 발견됐다. 군의회에서 처리와 존치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처리하자는 결정하에 소규모 발파공법이 적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가 한동안 지연되기도 했다. 2017년에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주변 농경지의 침수가 우려되자, 이를 예방하려고 긴급장비를 투입하는 등 주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2019년에는 미군2전투 항공여단 헬기가 비행 중 이상이 발견되어 인근 지역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모래먼지로 인해 원활한 착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침 스포츠타운 현장 내 축구장에 인조 잔디가 설치된 상태라 안전하게 비상 착륙할 수 있었다.



소프트·하드 테니스 경기장

다른 일화도 있다. 어떤 시설물이라도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스포츠 활동 공간은 그 특성상 시설 조성에 더 신중해야 한다.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자 애썼다. 직접 이용할 장애인의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고 조언도 구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 보완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타운 건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오늘의 진천종합스포츠타운을 우뚝 세운 저변에는 많은 군민을 비롯하여 관계자들의 노력과 땀이 스며들었다. 천혜의 환경, 생거진천에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의 초석을 다지는 한편, 군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수렴, 방향에 대한 재고 등 시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진천군 공무원들의 헌신도 있었다.



배드민턴대회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진천종합스포츠센터를 통한 지역민의 활력

진천군은 '생거(生居)진천'으로 통한다. 생거진천은 '살아서는 진천에 거하라'라는 말이다. 지금 진천은 생거진천이 현실이 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비옥한 농토, 후덕한 인심이 진천을 생거진천답게 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쓴 이들의 노력이 모여 진천군은 7년 연속 1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 달성, 최근 7년간 취업자수 1만 5,600명 증가 및 취업자수 증가율 비수도권 1위 달성 등을 실현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듭 쌓는 중이다. 또한 11년 연속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의 충북 도내 1위를 발판 삼아 명실공히 경제도시로서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 100개월 연속 인구 증가의 기록을 세우며 '인구 증가의 기적'이



다목적체육관 외관

라는 모범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다. 여기에 진천종합스포츠타운이라는 화룡점정까지 더했다. 이제 진천은 젊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했다. '지방소멸' '인구절벽'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인구, 경제, 문화 모든 부문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진천종합스포츠타운은 전국적인 규모의 훌륭한 시설이다. 시설 확충 이후 진천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국가대표 선수촌과 함께 스포츠 메카 도시로 위상도 정립했다. 양질의 체육시설 제공으로 지역민의 생활체육 수준 향상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추세다. 또한 음성군과 진천군의 군계에 위치하여 지역 간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상호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까지 아우르고 있음을 증명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종목별 종합생활체육시설 조성은 생거진천을 더욱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었다. 종합스포츠타운의 건립은 기존의 학교 체육시설이나 단일 종목의 소규모 체육시설 위주로 이용하던 주민들에게 스포츠 도시의 자부심과 스포츠문화를 향유하는 즐거움까지 안겨주었다. 시설 활용도의 증가는 물론 그에 따른 만족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기업체, 각종 단체의 행사 등 시설 활용이 다층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처럼 주민의 화합과 기업의 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진천종합스포츠타운이다. 진천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의 장점은 다양한 종목의 시설



주차 편의 개선	
주차장 신설	회전교차로 설치
일반 292대 대형 11대 장애인 26대	1개소

생활 인프라 조성에 따른 주민 만족도 향상			
최근 3개년 주요 성과(연도별 표본점검 결과)			
성과(단위)	2020년	2021년	2022년
만족도	82.2	84.1	85.6

물과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가족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주변의 자연과 스포츠타운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복합스포츠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양질의 체육시설과 더불어 편리한 교통망은 스포츠마케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진천군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스포츠 어메니티 확보에 더 큰 열정을 쏟을 예정이다. 지속적인 시설유지와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해 군민건강을 증진하며,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모두가 행복한 으뜸 도시 '생거진천'은 모두가 행복하다는 균형발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와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려는 바람도 함유하고 있다. 진천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중심도시'라는 슬로건이 하나 더 붙었다.

핵심성과

종목별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

1,000명	약 700명	약 600명
제1회 생거진천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제34회 충청북도지사기 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제32회 충청북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체육시설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 증진

이용객 수 증가

2021년 73,558명 → 2022년 97,077명

약 32% 증가

진천종합 스포츠타운의 다양한 종목으로 균형적 스포츠 복지 실현

축구, 야구, 씨름, 풋살, 그라운드 골프, 테니스 (소프트·하드)

이용객을 위한 편의 인프라 확충

관리사무소	화장실	주차장
2층 규모 1개동	4개동	329대

성공 포인트

"생활편의시설 및 지역민을 위한 활동적 콘텐츠가 부족했던 진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1 마을별 '**군민 소통의 날**'을 열어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02 의원간담회 개최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적 의견 청취**

03 **이용자 중심의 시설물 조성**으로 방향 확정

04 종목별 생활체육인들과 함께 **우수사례 탐색(시설물 견학 등) 및** 벤치마킹 노력

05 예산 확보, 안전성 개선 요구 등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

진천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 TOP 4**

농다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

1976년 12월에 지방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된 농다리는 「상산지」와 「조선환여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초기 임장군이 축조하였다고 전해진다'고 기록되어 있어 천년의 세월을 버텨온 돌다리이며, 독특한 양식으로 짜여진 이 다리는 전국적으로 그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소중한 문화재이다.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구산동리 601-32
043-539-3862

진천종박물관

정답고 신비로운 우리 종을 만나다

진천종박물관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나라 종의 예술적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자 개관하였다. '코리안 벨'이라는 학명이 있을 정도로 우리 종은 독창적인 양식과 예술성을 갖고 있다. 실제로 타종 체험도 할 수 있어 신비한 울림을 느낄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종 전시와 함께 무형유산의 기술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504-12
043-539-3847

한반도지형

초평호가 보여주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지형

전국에서 가장 한반도지형에 근접하다 하여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초평호 한반도지형은 두타산에서 초평을 굽어보면 위로는 중국이, 아래로는 한반도 지형과 제주도의 형상을 내려다볼 수 있다.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563-1
043-539-3622

보탑사

고요한 사찰에서 풍기는 편안함의 매력

보탑사에 들어서면 진천군의 보호수 느티나무가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한다. 하늘을 가득 채운 나뭇가지와 잎들이 자아내는 웅장함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보탑사는 비구니 승려들의 도량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사찰보다는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빼곡히 늘어선 연등과 꽃나무들을 통해 사찰이 주는 편안함을 만끽할 수 있다.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김유신길 641
043-533-0206

고령화의 중심에서
예술과 트렌드를 외치다

우수사례명

예술과 문화이야기,
연산문화창고

충청남도 논산의 대표적 고령화 지역인 연산면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세련되고 감각적인 비주얼과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들이 가득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이 탄생한 덕분이다. 마을의 유휴시설이던 농협 창고의 공간 재생을 통해 미관 개선은 물론 관광객의 유입 확대,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이곳은 바로 <연산문화창고>. 잔잔하고 정적이던 고령화 마을은 이제 인적으로 가득한 문화의 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INFO

- **지자체** 충청남도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포괄보조사업** 폐산업시설등유휴공간문화재생
- **내역사업명** 연산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





연산문화창고 전경

내 쓸모를 찾아서

2017년 충남 균형발전사업과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며 본격 사업에 착수한 <연산문화창고>는 연산역 주변 유휴시설인 농협 창고 5동을 활용해 다목적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1차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현재 2차 '기찻길 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 놀이터 조성사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쓸모를 잃은 폐창고들은 5개의 서로 다른 테마 공간의 이름을 달고 쓰임새를 되찾았다. 소규모회의, 공연장 등 창의활동공간으로 사용되는 1동 '담쟁이예술학교', 공유주방, 수제 맥주 공방, 커뮤니티 룸 및 사무공간으로 이루어진 2동 '커뮤니티홀', 세련된 인테리어와 시원시원한 공간미가 인상적인 3동 '대형 카페', 공연과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는 4동 '다목적홀' 등 1차 사업 기간 중 조성된 4개 동은 전시, 공연, 체험 및 대관 업무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5동 구역은 로컬마켓(알곡상점), 스마트팜으로 활용될 실내 공간과 야외 생태 예술 놀이터로 탈바꿈하여 조만간 제 쓸모를 얻을 예정이다.

존재감 없던 농촌마을의 환골탈태

지난 2022년 3월 <연산문화창고>가 개관한 이후 약 6개월 동안 6만 3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256회에 걸쳐 운영된 22개의 프로그램에서는 체험 참여 인원이 6만 6천 명을 웃돌았다. 선거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개관전시 기간 3만 명이 이곳을 찾은 덕에 주변의 비어있던 점포들도 하나둘 채워지며 제구실을 찾았다. 지역민 주도의 참여형 식당도 운영 중이다.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자발적 요청으로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도 운영 중이다. 타지로 떠나있는 자녀들의 발걸음도 덕분에 잦아졌다. 차분하던 초고령화 농촌마을이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그해 10월부터는 '논산문화관광재단'이 <연산문화창고>의 운영 관리를 맡으며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듬해 2023년 4월에는 NC문화재단과 '프로젝토리 in 연산문화창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현재 지역 청소년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실행하는 창의활동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대전역과 논산 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23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돼 '문학에서 만난 우리동네'란 인문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알곡을 보관하던 '미곡창고'가 점점 문화예술의 씨알을 쌓는 '문화창고'로 거듭나고 있다.

커뮤니티 프로그램(가드닝&다이닝)



우리가 흥할 수 있었던 이유

<연산문화창고>의 흥행에는 연산면의 타고난 지리적 이점과 공간기획자들의 후천적 노력이 주효했다. 논산시의 동북부에 위치한 연산면은 대전, 세종, 전주 등 대도시와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사통팔달의 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30분 거리의 계룡시에서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되는데, 군부대를 생활 터전으로 하는 청장년층의 문화적 갈증을 연산문화창고가 상당 부분 해소해주었단 평이다. 여기에 황산벌과 개태사로 유명한 천호산, 세계문화유산 돈암서원, 기차들의 오랜 쉼터였던 연산역의 입지 및 공간 콘텐츠 등 풍부한 지역의 문화자원들이 연산문화창고의 또 다른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간을 채울 콘텐츠였다. 공간의 지속을 위해선 콘텐츠의 지속이 필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지역 역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민관의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힘썼고, 강사 교육 등을 통해 지역 강사들을 배출해내기 위해 애썼다. 또한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주체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라운드테이블', '마을 살롱' 등을 개최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콘텐츠 기획의 장으로도 활용하였다.





연산문화창고
전시연계 체험



연산문화창고 기획전시 모습

돌이 길을 막으면 물은 새로운 길을 낸다

물론 난관도 많았다. 특히 사업 초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소규모 프로그램으로 전환, 한 번에 2~3명의 주민을 만나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다. '마을 살롱'이란 이름의 이 작지만 잦은 소통창구를 통해 127명의 주민들을 만났고, 다수가 모였을 때 하지 못했던 솔직한 생각과 감정들을 나누며 소통의 실효성 및 사업의 진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었다.

연산문화창고의 주요 콘텐츠 중 하나인 '수제 맥주 학교' 운영에도 곡절이 있었다. 현재 2동 술공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제 맥주 학교는 곡식이 풍부한 연산의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자 대중성 높은 문화 체험으로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곳에서 만든 수제 맥주를 기반으로 맥주 브루어리 및 펍 조성은 물론 지역의 시그니처 맥주 생산이라는



연산마켓 진행 모습 1

걸출한 사업 계획이 이어졌다. 그러나 사업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레시피 개발, 협동조합 구성 및 건양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그니처 맥주 상표 디자인 공모전 등 다양한 시도들을 펼쳤지만, 지자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행정적 문제 앞에서 부딪친 것이다.

이 좌절의 경험은 곧 전화위복이 된다. 맥주 펍을 계획했던 자리에 대형 카페가 들어서고 수제 맥주 학교는 문화 체험의 공간으로만 남게 되었지만, 전 연령층이 향유할 수 있는 카페로의 대체가 오히려 연산문화창고의 확장성엔 도움이 되었다. 남녀노소 친구끼리 연인끼리, 가족끼리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가진 관광객들이 각자 취향에 맞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이곳에 모여 휴식과 미식을 즐긴다. 사업화 이후에 대한 기대 가치들이 아쉬울 순 있지만, 좌절의 경험이 또 다른 기획의 바탕이 될 것이란 기대 또한 생긴다.



미각학교 프로그램 모습 1



미각학교 프로그램 모습 2

중요한 건 끊이지 않는 콘텐츠

이곳의 존재감은 바로 그 '기획'에서 나온다. 문화예술사업에서 콘텐츠의 기획은 영원한 숙제다. 무슨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미로 담을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다양한 경험에서 얻은 착안과 창의만이 알고 있다. 실패의 경험도 성공의 경험도 어떤 식으로든 콘텐츠 생산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업 기간이 종료된 1차 '연산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에 비해 앞으로의 사업들은 연산과 논산의 지역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사업 '기찻길 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 놀이터 조성사업'은 지역 기반 산업인 '농업'을 키워드로 문화로서의 농업, 미래지향적 농업의



연산마켓 진행 모습 2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려는 <연산문화창고>의 방향성이 엿보인다.

생태·예술 놀이터는 지역의 아이들은 물론 타 지역 아이들에게도 무료로 개방하여 가족 단위 방문을 도모하고, 겨울에도 미각학교, 생태놀이, 알곡놀이가 가능하도록 농막을 만들 예정이다. 창고 안에 스마트팜을 구축하여 다양한 농법을 통해 생산과정을 체험케 하고, 알곡 상점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상품화해 직접 음식으로 만들어 먹고 판매, 제로 웨이스트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리필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농촌이란 주어진 환경에 예술이 개입하여 지역의 독창성을 확보하고, 농촌 생활의 실체적 경험을 가진 주민들이 예술의 행위자 또는 선험자로 참여해 지역의 주체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주요 프로그램	
커뮤니티 판화학교 - 담쟁이예술학교	테이스트로컬@연산(파머스마켓) - 미각학교
수제맥주학교 - 미각학교	문화이벤트 거리공연 - 로컬 커뮤니티

문화예술이 경제가 된 시대

최근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등지에서 기획하는 문화예술 콘텐츠들이 화제다. 예술 작품의 전시에서 체험형 문화 콘텐츠까지 그 내용도 다채롭다. 문화적 경험을 위해 사람들이 모이고, 이는 곧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다. 경험을 소비하는 시대. 문화가 사람을 모으고 경제를 순환시키는 중심에 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소비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고령화의 중심에 자리한 <연산문화창고>가 이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독창적이라는 말이 있다. 연산만의 경험, 연산만의 자원, 연산만의 사람이 독보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트렌드와 예술을 담은 지금의 문화창고가 다음엔 무엇을 담아낼까. 오래된 농촌의 한 기억이 오늘의 새로운 가치로 치환되고 있다. <연산문화창고>가 써내려갈 다음 이야기가 자못 궁금해진다.

연산문화창고 시설 현황 (2022년 3월 개관)		
구분	**공간유형**	**용도**
1동	담쟁이예술학교	창의예술학교 소규모 회의실, 공연장
2동	커뮤니티홀	공유주방(미각학교/요리개발) 수제맥주공방, 커뮤니티홀, 사무실
3동	카페	카페 로컬푸드 판매
4동	다목적홀	공연, 전시, 대회의실 프로그램 발표실 등

기찻길 옆 지역공동체 문화예술놀이터 (2단계 사업 추진 중 / 2023년 10월 말 준공 예정)		
구분	**공간유형**	**용도**
5동	로컬마켓/스마트팜	로컬마켓, 스마트팜 곡물, 로컬농산물, 샐러드바 등 판매/먹거리 공간
야외공간	생태예술놀이터	숲 놀이터(유아 및 어린이) 활동 공간

충청남도

핵심성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유동인구 확보

문화공간 공유

지역상권 복원

내방객 확대 및 지역 경제 성장

내방객 확보

6 만여 명
(2022년 3~9월)

주민 소득 확대

논산시 연산면의 관광 자원(연산역, 연산시장, 돈암서원, 탑정호 등)과 연계해 내방객 체류시간 확대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적 욕구 해소

방문객 중 프로그램 참여 현황 (2022년 3~9월)

2,390 명
문화 이벤트 및 거리공연

970 명
담쟁이예술학교

552 명
연산맛놀이

주민 소통 강화

라운드테이블

- 예술가, 시민, 농부 대상
- **총 7회 / 109명 참여**

마을 살롱

- 논산시 연산면 지역주민 대상
- **총 15회 / 127명 참여**

성공 포인트

"지역 내 문화 콘텐츠 부족 및 인구 고령화로 혁신이 필요했던 논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1

방치되고 있는 지역 유휴시설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제시

02

지역민 주도의 참여형 식당 운영을 통해
새로운 관광·여가 코스 제안

03

논산문화관광재단이
직접 운영을 맡아
사업 운영의 전문성 강화

04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가 협의체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 환경 강화

05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 적극 청취
(주체적 참여 유도 및
소규모 주민 소통창구 구축)

논산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 TOP 4**

수락계곡

아름다운 사계절을 만나는 곳

대둔산에 위치한 맑고 아름다운 계곡이다. 한여름에도 차가운 물이 흘러 더위를 피하기 좋으며, 골짜기가 깊지 않아 계곡 주변을 가볍게 산책할 수도 있다. 계곡 곳곳에 있는 수락폭포, 선녀폭포는 시원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여름에는 피서객으로 붐비고, 가을에는 형형색색의 단풍이 이루는 훌륭한 경치를 보려는 등산객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일대
041-732-3568

탑정호 출렁다리

호수의 낮과 밤을 여유롭게 감상하다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넓은 호수인 탑정호는 맑은 물로 잘 알려져 있다.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만큼, 4개 면에 걸쳐 있어 지역 내 곳곳에서 찾아오기 쉽다. 출렁다리는 600m의 길이로 개통 당시 '동양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탑정호의 절경 중 하나는 저녁노을이다. 출렁다리를 거닐며 호수의 경관과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769
041-746-6645

선샤인랜드

역사의 현장을 살피고 체험하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 세트장을 관람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6·25전쟁이 끝난 1950년대 중반의 시대를 고스란히 담은 곳으로, 당시 현장을 생생하게 재현한 구조물을 볼 수 있다.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서바이벌 체험장, 밀리터리 체험관, 군장비 전시 광장을 통해 단순히 관람에서 끝나는 게 아닌 체험의 생동감을 전한다.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봉황로 102
041-730-2955

돈암서원

아늑한 공간에서 느끼는 역사의 기품

2019년, 돈암서원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서원 9곳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나뭇결이 살아 있는 정갈한 건축물과 평화로운 자연 경관은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 추진에도 불구, 철폐되지 않은 소수의 서원 중 하나라고 한다. 긴 세월의 흔적이 선명히 새겨진 공간에서 그 역사를 한껏 느낄 수 있다.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6-14
041-733-9978

해양 쓰레기 제로,
충청남도가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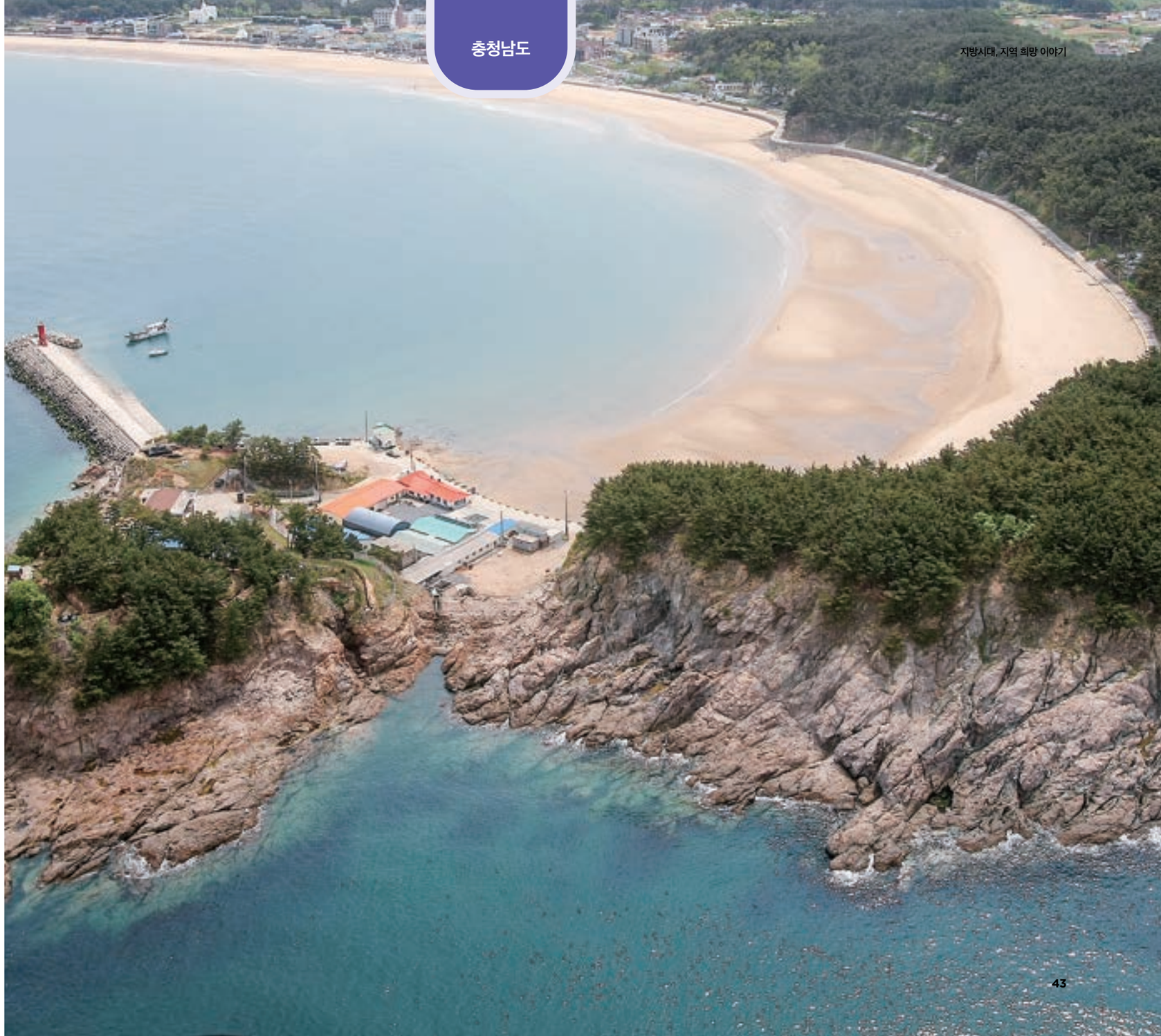
우수사례명

“UN 공공행정상” 수상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깨끗한 충남 해양환경 만들기

바다는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지금도 무수히 많은 생물이 바닷속에 살고 있다. 바다 생물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세대가 위협받는 것과 같다.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일은 결코 하루이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바다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모두의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소명이다. 충청남도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역사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다.

INFO

- **지자체** 충청남도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포괄보조사업** 해양 및 수자원 관리
- **내역사업명** 해양 및 수자원 관리





태안 유류피해 발생 당시 상황(만리포)

현재도 진행 중인 해양환경 오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해양오염사고로 기록된 2007년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바닷물이 기름으로 뒤덮이고 해양 생물이 대량 폐사하는 등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던 지역민들은 정신적·물질적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123만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전 국민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해양은 본래 모습을 되찾았지만 해양환경의 오염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위협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전국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약 14만 5,000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충청남도(이하 충남도)의 발생량은 1만 8,000톤으로 전국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도의 수거량은 1만 2,000톤으로 발생량의 약 68%가 수거되어 있으며, 이 수거량의 61%는 주로 자연재해 즉, 태풍, 집중호우로 육상에서 밀려 내려오는 쓰레기들이다. 해양쓰레기들은 바닷속에 가라앉거나, 사람이 갈 수 없는 지리적으로 위험한 지역에 부착되거나 해안가로 밀려오게 된

다. 바닷속에 가라앉은 해양쓰레기의 폐그물, 폐어구들은 어선들의 프로펠러에 엉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고, 물고기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들은 아름다운 해안가를 찾은 사람들과 마주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바다,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를 겪은 충남도는 해양환경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바다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므로 깨끗이 사용해야 한다는,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깊이 실감하게 되었다.

충남도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깨끗한 충남 해양환경 만들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2020년에는 이를 고도화하여 깨끗한 충남 해양환경 만들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해양쓰레기 발생량 5% 저감, 수거량 5% 확대'를 목표로 해양쓰레기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충남도는 2021년 행정의 노벨상인 'UN공공행정상' 및 '제15회 장보고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태안 유류피해 복구 후 사진(만리포해수욕장)



3단계로 쓰레기 제로화 추진

충남도는 2021년 '충남도 해양쓰레기 줄이기 원년'을 선언하고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계획을 수립, 발생예방(1단계), 수거보관(2단계), 운반처리(3단계) 등 3단계로 구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으로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1단계)하는 한편,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조사를 통한 해양쓰레기 분포지도 제작으로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2단계). 또한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3단계).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시설을 설치했다. 또 전국 최초로 4개의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를 충남도내에 운영하고 있는데 각 센터에는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교육 테마가 있다. 대규모 유류 피해를 입은 태안은 해양환경의 중요성, 가로림만이 있는 서산은 해양보호생물 관찰 등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을, 세계자연유산 갯벌을 품은 서천은 갯벌 생태계 중점 교육을, 충남연구원은 도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등을 추진한다. 해양쓰레기 분포지도는 전국 최초로 쓰레기의 성상 분석 등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해양수산부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졌다. 분포지도를 통해 지역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인력과 예산 투입 등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낭비 요인을 줄여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육상쓰레기 차단시설
R&D 개발(공주 유구천)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시위도 있었다. 주민들은 이 기구를 해양쓰레기 처리장이라는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지역 수산물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타 시군의 쓰레기를 가져온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는 해양쓰레기 수거 후 재활용률을 높이고, 지역의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추진배경과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정상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발생 예방 단계	•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4개소) •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원천 차단 시설 조성(3개소) • 충남도 연안환경측정망 중장기 모니터링 연구용역(5년간) • 반려해변 조성(20개소), 연안정화활동(매년 10회)
수거·보관 단계	• 충남도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3년간) ※ ('22년) 도서지역 ('23년) 해안가 ('24년) 침적폐기물 •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추진(5년간/233억 원) ※ 해안가 방치쓰레기(20,000톤), 침적폐기물(5,923톤) 처리 • 최근 3년간 충남도 해양쓰레기 평균 수거량은 총 13,365톤(해안가 12,778톤, 침적 587톤)으로, 전국 평균 128,378톤 대비 10% 차지, 전남과 제주 다음으로 전국 3번째 수준 • 해양쓰레기 관리 인프라 구축(집하장 72개소/94개)
운반·처리 단계	•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해양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건립 * 위치(태안군) / 사업비 150억 원 / '25년 말 준공 계획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건조·운영(75억 원)



해양쓰레기 로봇 청소기 R&D 개발(충남도 서천 홍원항)

첨단 기술로 효과적인 해양환경 정화

해양쓰레기는 바다에 떠다니다 밀려와 쌓이므로 그 구간이 다양하여 인력 수거에는 한계가 있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는 지난 2022년 6월 전국 최초로 해양쓰레기 수거 로봇인 바다로봇청소기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AI를 기반으로 한 바다로봇청소기는 인력 수거가 어려운 섬 지역이나 항·포구 등의 부유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해 쓰레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섬과 해안절벽 등의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카약을 이용한 해양플라스틱 사냥대회를 추진하여 민간 주도형 해양쓰레기 관리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천이나 강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차단시설을 개발, 비용 절감 및 쓰레기 발생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 최초로 해양 방사능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어업지도선에 부착, 가동함으로써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해양플라스틱 사냥대회-개회식 기념사진



해양환경정화선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작업(충남도)



주민과 함께하는 연안정화 활동(충남도)

2023년 3월에는 국내 첫 친환경 하이브리드 해양쓰레기 운반선인 '늘푸른충남호'가 정식 취항했다. 늘푸른충남호는 그동안 민간에 위탁해 옮기던 서해 연안 6개 시·군, 18개 도서지역에서 모은 해양쓰레기를 직접 운반할 뿐 아니라 해양환경 보존과 방제작업 지원, 해난사고 예방 및 구조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충남도는 스티로폼 부표를 비롯한 어구들을 비플라스틱 소재로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늘 푸르고 깨끗한 바다를 위해

해양환경 정화를 위해서는 해안 지역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창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때문에 정책의 개발과 운영 정도에 따라 지자체 간 해양환경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충남도는 충남연구원과 연계, 지속적으로 해양환경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충남도가 관할하는 해양의 환경은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 충남도는 단기적인 성과 달성 위주보다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대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조성했다. 또한 자발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해양쓰레기 현존량을 감소세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충남도는 2022년 9월 경기도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서해안 해양쓰레기 공동 수거 및 처리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충남도는 현재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최첨단 해양허브 인공 섬 조성,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 해양생명자원 전용조사선 건조 등을 도정 핵심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해양환경의 정화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은 우리 해양환경의 보존뿐 아니라 해양 관련 사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충남도의 헌신적 활동이 전 국토로 퍼져 나가 우리 후손들에게 늘 푸르고 깨끗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센터별 교육 테마	
태안	**서산**
대규모 유류 피해 극복과 연계한 해양환경의 중요성 교육	해양보호생물 관찰 등 현장체험 위주 교육
서천	**충남연구원**
갯벌 생태계 중점 교육	도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교육

핵심성과

대외적 인정

2022년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전국 1위)” 수상

-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늘푸른충남호) 건조 및 상시관리 체계 구축
- 전국 최초 환경친화적 전처리 시설인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추진

일자리 창출

수거 및 관리인력 운영을 통해 해양쓰레기 상시 관리체계 구축

2022년 **156** 명 고용

자긍심 고취

‘태안 유류피해극복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목록 등재

- 기름유출사고의 발생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을 담은 기록물로서, 대형 환경 재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의 가치 인정
- 123만 자원봉사자가 단기간에 재난을 극복한 사례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 세계에 알림

해양쓰레기 분포 지도 제작

- 해양쓰레기 분포현황 조사
- 지역별 특성 분석
- 인력 및 예산투입 효과적 관리
-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체계화

성공 포인트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해양 오염을 극복해야 했던 충청남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1

전국 최초로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종합대책 수립

02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3단계 프로세스로 체계적 추진

03

전국 최초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시설 설치

04

전국 최초로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4개 센터별 특화 교육)

05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극복을 위해
효용성 홍보 및 꾸준한 설득

충청남도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 TOP 4

공주 한옥마을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에 빠지다

우리의 전통 주거공간 한옥은 공주 최고의 잠자리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공주 한옥마을은 한옥의 기품을 오롯이 즐기기에 제격이다. 거실, 안방, 건넌방은 물론 다용도실과 옷장, 화장실을 안으로 들여 현대인이 살기에 적합한 구조로 집을 꾸며놓았다. 환경친화적인 재료로 집을 지어, 도시민의 심신을 달래준다.



충청남도 공주시 관광단지길 12
1899-0088

서산 해미읍성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읍성

해미읍성은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읍성으로, 조선 성종 22년, 1491년에 완성한 석성이다. 둘레는 약 1.8km, 높이 5m, 총면적 198,348m²(6만여 평)의 거대한 성이다. 복원 및 정화사업을 벌여 옛 모습을 되찾아 사적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조선말 천주교도들의 순교 성지로도 유명하다.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남문2로 143
041-660-2540

서천 국립생태원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

국립생태원에는 생태교육관, 복원생태관 등과 더불어 생태체험관(Ecorium), 한반도숲, 습지생태원, 고산생태원 및 사슴생태원이 조성되어 있다. 특히 생태체험관은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으로 구성되어 지구의 주요 생태계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041-950-5300

태안 꽃지해수욕장

아름다운 바다를 눈에 담다

꽃지해수욕장은 길이 3.2km, 폭 300m의 백사장이 있으며, 할미, 할아비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일몰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또한 해변의 경사가 완만하고 물빛이 깨끗하며 수온이 적당해서 해수욕장으로서의 입지조건이 아주 좋다. 해 질 녘이면 낙조 풍경을 구경하러 오는 이들로 북적거린다.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400
041-672-9737

양궁의 메카, **육상의 메카**로 이어지다

국무총리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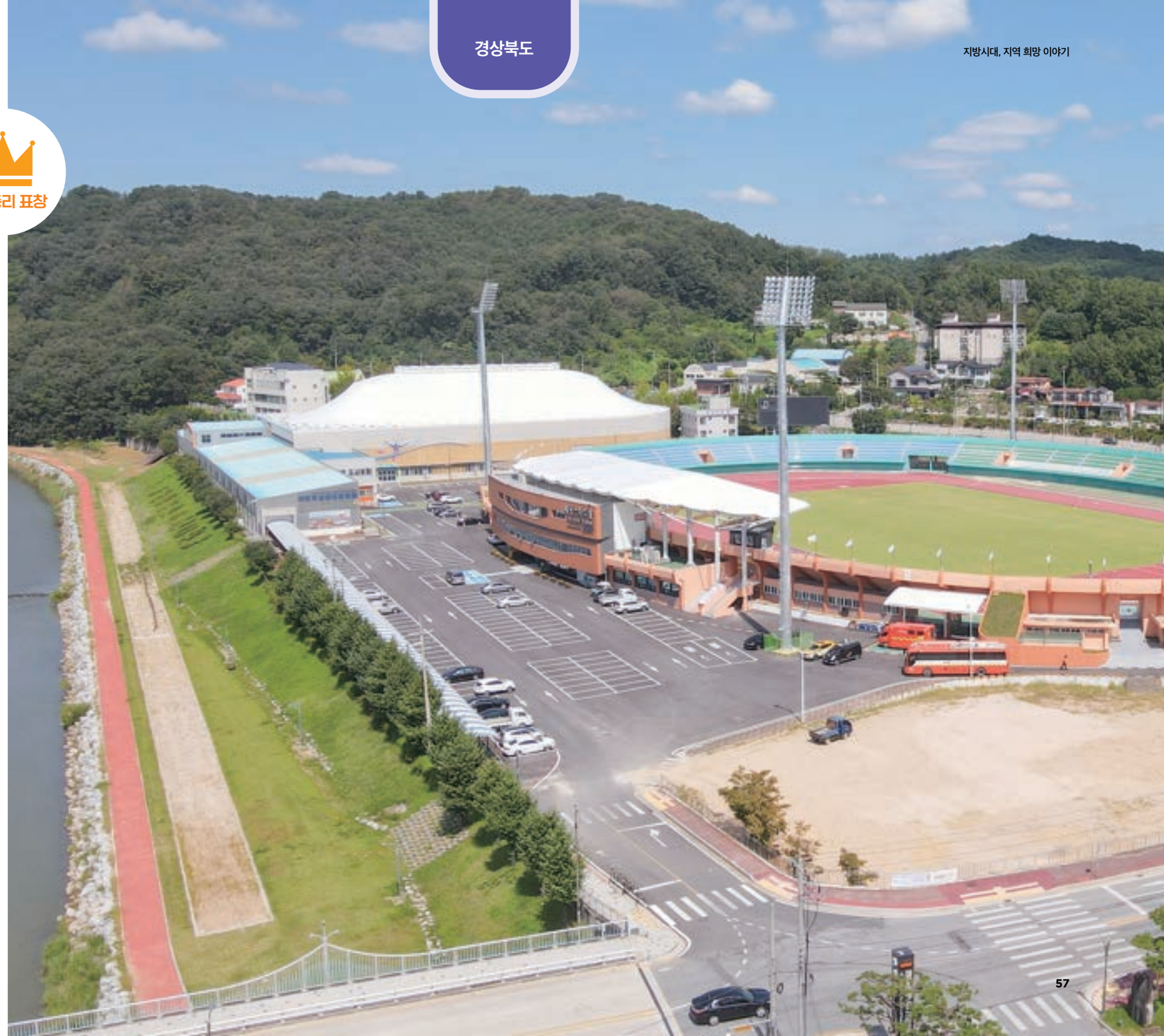
우수사례명

육상의 메카 달려라 예천!

한 도시가 그 도시만의 독창적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도시의 발전이나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이로 인해 경제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면 주민이 지역에 대해 느끼는 자긍심이나 애향심도 훨씬 커질 것이다. 예천은 지난 30여 년간 양궁의 도시, 곤충의 도시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육상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예천의 육상 훈련장은 육상선수들의 기량 상승은 물론 육상 인구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육상이 세계 수준에 도달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미래 예천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동력이 되고 있다.

INFO

- **지자체** 경상북도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포괄보조사업** 체육진흥시설지원
- **내역사업명** 체육진흥시설지원





예천스타디움 전경

예천, 양궁에서 육상으로

예천은 양궁의 메카 또는 곤충의 도시로 알려진 경상북도의 작은 도시이다. 1979년 당시 예천여고 3학년이었던 김진호 선수(현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베를린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5관왕에 오르면서 오늘날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우리나라 양궁의 신화는 시작되었다. 1984년 LA올림픽을 시작으로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양궁은 우리나라 메달의 효자종목으로 큰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예천은 1995년 진호국제양궁장을 조성하면서 우리나라 양궁 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다.

이제 그 예천이 우리나라 육상의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가고 있다. 우리나라 육상 종목은 마라톤 종목에서 황영조, 이봉주 선수가 메달을 따기는 했으나 필드나 트랙 종목에서는 메달은커녕 올림픽 본선 진출 자격 조건을 채우기도 힘겨운 상황이다. 남자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가 최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상위권 성적을 내면서 우리 육상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이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우상혁 선수의 쾌거는 우리 육상도 올림픽 메달 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천군의 정책 추진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예천은 육상 관련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여 국제 선수권대회 및 전국 단위의 대회를 개최하고 육상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심판 강습회를 비롯한 육상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육상의 메카로 발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세계적인 육상도시로 발돋움

예천군은 육상의 핵심시설인 예천스타디움과 육상실내훈련장,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의 3각 체계 구축을 통해 세계적인 육상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1996년 설립된 예천공설운동장을 리모델링했다. 2021년 11월에는 공설운동장의 명칭도 예천스타디움으로 변경했다. 육상대회 및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육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중계실, VIP실, 판독실 등 기능실을 기존 14실에서 23실로 증축했으며, 본부석 캐노피(막구조물 1,186㎡)도 신설했다. 건물 내외부도 리모델링(로비, 관중석, 내부 복도, 기자석 등 4,825㎡)했으며 특히 대형전광판을 추가 설치하여 2개가 됨으로써 국제대회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예천스타디움의 관중석 규모는 약 1만 석인데 노후시설 수리로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2023년 4월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제2종 공인육상경기장으로 공인되었다(공인 기간 : 2023.04.26 ~ 2028.04.25.).

예천스타디움 입구



예천군은 또한 국내 유일의 육상전용 실내훈련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했다. 연면적 8,720㎡의 육상실내훈련장은 2동 규모의 육상전용 훈련 시설로서 기상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훈련이 가능하다. 대회 보조경기장 및 전지훈련장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웨이트 트레이닝장, 경사로 훈련장, 150m 트랙, 재활치료실 등 체계적·과학적 훈련이 가능한 각종 부대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실내훈련장 바로 옆 야외에는 하천을 끼고 있는 300m 정도의 모래훈련장도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예천군은 아시아 최대 권위로 인정받고 있는 아시아 U20 육상선수권대회를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했다. 2023년 6월 개최된 이 대회는 경상북도 스포츠 행사로는 가장 규모가 큰 대회였으며 군 단위에서 이러한 대회를 개최한 것도 처음이었다. 이러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예천은 육상 메카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아시아 육상도시로 부상하는 계기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국제대회를 유치할 발판도 마련했다.

약 1만 석 규모의 관중석이 마련된 예천스타디움





육상실내훈련장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예천은 이미 각종 국내외 대회를 개최하고 선수훈련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우수한 체육인재 육성뿐 아니라 국민적 체육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초·중·고 및 실업 육상경기대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우리나라 육상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예천스타디움 또한 매우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스포츠이벤트는 물론, 전문 선수들 외에 일반인도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체육, 특히 육상 인구의 저변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학부모와 지역민이 함께 참가하는 코니페디컵 전국 유소년 축구페스티벌을 비롯, 예천군수배 전국 스프린트 육상경기대회(인기 육상선수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행사), 예천 축구 페스타(지역관광 및 축구 결합 행사) 등을 개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예천군은 경상북도 도민 중 최근 1년간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72.6%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2022년 국민생활체육조사, 문체부).



예천스타디움 옆 한천을 따라 조성된 모래 훈련장

올림픽 메달도 가능

예천군은 앞으로 예천스타디움 부지에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훈련센터가 완공되면 기존의 스타디움 및 실내훈련장과 더불어 육상지도자 연수, 우수지도자 양성, 우수 선수 발굴, 육상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우리나라 육상 발전을 주도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육상 전지 훈련지로 발돋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지도자 초청 강습회 등 WA(World Athletics 세계육상연맹)교육훈련센터로 육성함으로써 세계적인 육상도시로 지속 성장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육상실내훈련장 내부 웨이트 트레이닝장



육상돔훈련장 내부

예천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얻기까지에는 예천군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스포츠마케팅, 군 의회의 협조는 물론 예천군체육회와 예천군육상연맹과의 유기적인 협업, 시민사회와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예천군은 스포츠마케팅팀을 운영하면서 대한육상연맹 임원뿐 아니라 전국의 육상 감독·지도자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육상 꿈나무들이 이러한 시설에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U20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내외 대회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는다면 우리 육상, 특히 트랙이나 필드 종목에서도 충분히 올림픽 메달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천스타디움 내부 모습

소멸 도시에서 성장 도시로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발전의 소재나 아이템을 찾아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 전략을 수립, 체계적으로 실행한다면 지역발전, 균형발전은 가능하다는 것을 예천군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경상북도와의 협조도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군수를 중심으로 정책의 일관성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또한 지역 정체성 확립과 경제 유발 효과는 물론, 중앙 주도가 아닌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예천군의 전략은 외부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육상과 양궁의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등으로 연간 9만여 명이 예천을 찾고 있다고 한다. 예천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지자체와는 비교가 불가한 독보적인 스포츠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이끌어 내는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

예천군은 안동시와 인접해 있다. 2016년 경상북도 도청 이전과 더불어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에 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성장의 기회를 맞은 예천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도시'에서 '성장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도청 이전을 성장의 디딤돌 삼아 예천군은 우리나라 육상의 발전을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꿈도 실현해 가고 있다. 예천은 미래 발전방향을 스스로 찾았다. 그리고 조금씩 그 미래를 이루어가고 있다.

예천에서 비롯된 양궁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포츠로 국민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처럼, 예천에서 시작된 육상 진흥 프로젝트가 '육상의 메카 예천'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예천공설운동장(예천스타디움) 리모델링 사업 개요

- 운동장 기능실 증축(연결증축): 연면적 759.39m²
- 본부석 캐노피(막구조): 1,186.5m²
- 건물 내외부 리모델링(관중석, 내부복도, 기자석 등): 4,825m²

▶ 노후시설 수리로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최상의 상태 유지

대한육상연맹 교육훈련센터 유치 성공(2024년 준공 예정)

- 연면적 5,397m²(지하 1층 ~ 지상 6층 규모)
- 숙소 76실, 강당, 식당, 회의실 등 조성

▶ 예천공설운동장-육상전용돔훈련장-대한육상연맹교육훈련센터의 3각체계 구축

제20회 예천아시아 U20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설치물



핵심성과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

- 매년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개최 (매년 5월)
- 춘계 전국 중고육상경기대회 겸 춘계 전국 초등학교 육상경기대회 개최
- 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겸 전국대학대항육상경기대회 개최
-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야구대회

아시아U-20 육상선수권대회 한국 최초 유치

제20회 예천아시아 U20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개최기간 2023.06.04 ~ 07
장소 예천공설운동장
슬로건 “RUN TO YECHEON”
규모 24개국 1,500여 명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도민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최근 1년간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비율

72.6%



전국 **1** 위

출처 : 2022년 국민생활체육조사/문화체육관광부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022년 전지훈련 유치 연인원



14,871 명

(국가대표, 지자체, 대학교, 고등학교 선수단)

성공 포인트

> 우리나라 대표 육상도시로 확고한 입지를 다져야 했던 예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1



추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 협조

02



육상전용 실내훈련 인프라 시설 구축

03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훈련할 수 있는 **스포츠 저변 확대**

04



지역민이 함께하는 스포츠 대회 개최를 통해 관심 증대

05



일반인이 즐기는 지역축제 및 다양한 행사의 무대로 **예천스타디움 적극 활용**

예천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 TOP 4

예천진호국제양궁장

활 체험의 진면목을 확인하다

활쏘기 체험으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날려버릴 수 있는 곳이다. 사전 예약을 통해 편안하게 체험이 가능하며 활과 화살을 실제로 만져보는 특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다. 파란 하늘이 매력적인 화창한 날씨에 과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선명한 추억이 만들어진다. 자세에 대한 교육까지 받을 수 있어 양궁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다.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
054-653-2434

예천곤충연구소 생태체험관

곤충을 가장 유쾌하게 즐기는 방법

흥미로운 볼거리와 다채로운 체험 콘텐츠로 가득한 문화공간이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관람객으로 붐비며, 도심 속에서 찾을 수 없는 자연의 신비함을 만끽하는 곳이다. 놀이를 통해 곤충의 생태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으며 곳곳에 알록달록한 포토존이 마련돼 있어 유쾌한 사진도 남길 수 있다. 또한 곤충 형상의 특색 있는 건물이 곳곳에 위치해 있다.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1045
054-652-5876

삼강주막마을

눈으로 입으로 즐기는 역사의 현장

삼강주막마을은 '주막'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친근한 풍경과 다양한 이야기로 풀어낸다. 입구에 자리한 옛 보부상들의 동상을 마주하면 시간을 거슬러 오른 듯한 느낌마저 받을 수 있다. 돌담부터 소박한 초가집까지 찬찬히 둘러본 이후 파전과 잔치국수 등 맛깔스러운 음식까지 즐기고 나면 잊지 못할 추억이 만들어진다.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길 91
054-655-3132

회룡포전망대

푸른 자연으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곳

전망대에 오르면 이색적인 물돌이 마을로 잘 알려진 회룡포마을의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계절 변화에 따라 매번 새로운 분위기를 사진으로 남길 수 있으며 육지 안에 폭 안겨 있는 섬마을의 정취가 멀리서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오가는 길목에서는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싱그러움을 만끽하고, 정상에서는 탁 트인 하늘에 저절로 감탄이 터진다.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산116
054-653-6696

우리가 만든 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산림입니다

우수사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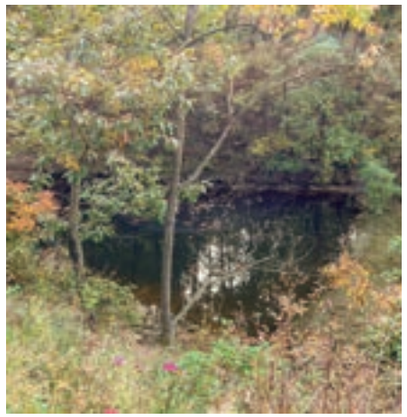
기본에 충실, 산림휴양은 덤!
「단밀 낙정~생송임도」

임도란 임산물을 운반하거나 삼림 관리를 위해 만든 산중 도로를 말한다. 임도는 산불 발생 시 불의 확산을 저지하는 방화선이자 소방 인력과 차량의 통로로서 산불의 초기 진화 및 야간 진화를 돕고, 주민 수가 적은 임도 주변 마을 간 연결 통로가 되어 열악한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는 구실을 한다. 거기에 외부 인구 유입을 용이하게 하여 산림을 활용한 휴양 및 관광 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의 임도 역시 임도의 기본에 충실한다. 그러나 이곳 임도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것이 도로가 아니라고 말한다. 인간의 손을 통한 인위적인 길이지만 산의 일부이며 자연의 하나가 된 산림이라 말한다.

INFO

- **지자체** 경상북도
- **소관부처** 산림청
- **포괄보조사업** 임도시설
- **내역사업명** 임도시설





생태연못 복원 모습



벌개미취 등 향토화본류 식재 모습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 친화적 임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된 노선길이 3.83km의 <단밀 낙정-생송임도>는 단밀면 생송리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고령화와 인구소멸로 적극적 인구유입이 필요했던 생송리 마을은 방치폐기물 야적으로 쓰레기산이 조성되는 등 한때 심한 고충을 겪었다. 이후 4대강 개발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으로 변화를 맞이한 마을은 산림휴양시설과 연계한 임도 조성을 계획, 추진한 결과 2022년 낙정리 마을로 연결되는 현재의 임도를 완성하게 되었다.

<단밀 낙정-생송임도>는 현장의 부산물을 활용한 통나무 편책, 골막이, 야생동물 은신처 등을 설치하고, 절·성토에 벌개미취 등 향토 화본류를 파종하여 자연 친화적 임도를 조성하는 데 힘썼다. 최근에 만들어진 도로임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생태 환경과 잘 어우러진 단밀 임도는 흐드러지게 핀 들꽃과 수풀로 무성한 산책로이자 저 멀리 강변까지 한눈에 담는 천혜의 전망과 풍광을 자랑하는 포토 스폿으로 이용객들에게 힐링을 선사한다. 또한 저지대에 위치한 항상 물이 메말라 있던 연못을 생태 연못으로 복원해 임도의 집수정 및 산불 발생 시 임시 급수지로 활용함과 동시에 수생 동·식물의 서식지로도 역할하게 하였다.

접근성 강화가 빚어낸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전체의 67%가 산림인 의성군은 대내외적으로 취약한 접근성이 늘 문제였다. 그러나 임도의 조성 이후 농산촌 마을이 연결되며 숲속야영장, 등산로 등과 연계한 임도망 계획을 현실화하며 임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였다. 임도 개설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이 편리해졌으며, 지역 주민들이 채취·생산한 임산물의 이동뿐만 아니라 지역 내 주민 간 교류도 확대되었다.

현재 <단밀 낙정-생송임도>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생 고유종의 재정착, 질 높은 생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밀면 생송리 일대의 '쓰레기산 생태축 복원사업'이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된다. 낙정리 산 일원의 휴양공간이자 공립1호 숲속야영장이 될 '단밀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산림치유와 문화체험시설 등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중부내륙권 관광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올해 2023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건립한 생송리의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과 낙단보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들이 준비 중이다.

특히 숲속야영장이나 캠핑장 등의 조성으로 대구광역시, 상주시 등 인근 도시민들의 숲캉스, 숲치유 등 산림휴양이 활성화되고, 상주시와 협업하여 산악자전거 대회 등을 유치하여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지역의 문화자원 및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문화 관광 스포츠 콘텐츠를 확보하여 의성군뿐만 아니라 경북 내륙 지방이 새로운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

의성 숲속야영장 조감도



<단밀 낙정-생송임도>만의 특별한 이야기

산림이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고 주변 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생태 친화적 임도', 인적 물적 교류의 통로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경제 친화적 임도'. 이러한 임도의 특징들은 기존의 임도 사례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점들에 속한다. 의성군 <단밀 낙정-생송임도> 또한 그러한 장점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곳 임도만이 가지는 특별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단밀 임도만의 신공법 이른바 '레일형 개거'의 시공이다. 노면을 따라 흐르는 유수를 차단하여 옆도랑 또는 집수정 등으로 유도하는 배수시설인 개거(open channel , 開渠)를 가드레일을 활용하여 시공, 원활한 유수 처리와 사후 관리를 도모한 특허(제10-1574701호 [임도 레일형 개거 및 이의 시공방법])까지 받은 공법이다.
또한 경제림육성단지(안계다인 7,018ha) 내 임도를 조성하여 목재생산, 산림소득작물 재배 및 판매 등 경제활동의 시너지를 꾀했다. 특히, 임업 기계화 작업장을 적절히 배치하여 목재생산, 간벌재 생산·운반 등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높였다. 자체 제작한 임도망 책자로 기관 간(국유·민유임도), 지역 간(시·군) 임도망 연계도 강화했다.



레일형 개거 시공 모습



자체 제작 임도망도 책자

한편 친환경적 사방공법을 통해 산을 깎아 만든 임도의 산사태 취약 요소를 제거하고, 미관도 개선했다. 초기 사업 구간은 원래부터 있던 생태군락지처럼 자연 수풀의 느낌을 주었다. 오동나무도 식재하지 않은 자생한 것인데, 임도년차에 따라 주변 나무 굵기가 서로 달랐다. 반대편 성토 사면도 초록으로 우거졌다. 자연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연과 인간이 저절로 어우러지는 곳, 이것이 바로 단밀 임도가 가진 힘이 아닌가 싶다.



기계화 작업장

국가적 차원의 임도 확충의 필요성

산골 마을을 연결하고, 목재나 임산물을 수송하고, 휴양 산책로이자 외부 인구의 유입 등 긍정적 활용도가 높은 임도이지만, 국내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산림 629만㏊에 설치된 임도는 지난해 말 기준 총 연장거리 2만 4,929㎞에 이르지만, 임도 밀도를 보면 3.97m/㏊로 산림 선진국인 독일(54m/㏊)의 1/14, 일본(23.5m/㏊)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경상북도의 임도 밀도는 2.75m/㏊로 우리나라 전체 수준보다 크게 밑돈다. 우리나라 국유림 임도 밀도는 4.98m/㏊, 공유림과 사유림 임도 밀도는 3.6m/㏊로, 전체 산림의 74%를 차지하는 공·사유림의 임도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 임도 설치에 여러 제약이 따르는 국립공원 지역의 임도 밀도는 0.16m/㏊로 더 열악한 형편이다.

임도를 확충하면 이용 가능한 산림면적이 약 5~8배 증가한다고 한다. 임도 밀도가 높아지면 기계화 목재생산을 통해 집재비의 절반 가까이를 아낄 수 있어 산림자원 순환경영에도 기여한다. 최근 한 여론 조사에서는 산불 진화 등에 활용되도록 임도를 더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68.8%에 달하기도 했다.



임도 전경



등산로 연계 모습

국토 균형발전이 곧 국민 삶의 균형발전

단밀면 생송리는 행복자치사업을 통해 공무원과 산주, 주민, 전문가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산림경영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몇 가구 되지 않는 소외됐던 마을이 임도 개설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며 활기를 되찾았다. 농촌소멸 극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전국의 마을 활동가들이 모여 여러 경험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교류와 연구를 통해 극복 방안들을 모색했고, 현재도 꾸준히 단밀면 소재 직원, 주민자치위원회, 전국 농촌 면 단위 활동가 등 참여하는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전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된다. 임도를 활용한 산림경영의 활성화 및 생태적으로 우수한 산림의 보전 등은 낙후 지역의 소득 증대를 꾀하고,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의성군은 향후 새로운 하늘길(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관련해 인근 지역이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의 역점 사업들과 연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 간, 기관 간 임도망 연계 강화 및 완결을 위하여 경북 내 단절된 임도 파악 및 기관 협의를 추진 중이다. 또한 탄소 중립 및 녹색 성장의 실현을 위해 임도 등 산림 경영 기반의 구축으로 산림 순환경영, 탄소 흡수량 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후 등의 이유로 빈번해진 산불의 대형화 방지를 위한 임도 설치 확대를 위해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임도의 성과는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변화나 결과를 보여주는 것과 거리가 멀다. 우리가 늘 먹는 삼시세끼 식사나 아무렇게 걸쳐 입는 평상복처럼 특별할 것 없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기본이 흔들리면 전체는 무너진다. 제아무리 화려한 문양과 값비싼 자재의 건물이라도 기본이 박약하면 사상누각일 뿐. 임도는 국토 구석구석을 움직이는 모세혈관과도 같다. 의성군 <단밀 낙정-생송임도>의 튼튼한 기본기가 관내는 물론 국토의 구석구석을 움직이게 하는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



임도 조성 개요		
사업기간	**조성 구간**	**기대효과**
2020~2022년	의성군 단밀면 생송마을~낙정마을 연결	농산촌마을 주민의 정주여건 및 교통편의 개선

임도 조성 방법		
기설 등산로 연결	통나무 편책·골막이 설치	향토 화본류 파종
등산로와 임도를 연결해 주민 휴양 공간 제공	현장 부산물(통나무)을 활용한 구조물 설치로 사면 안정 및 예산 절감	벌개미취 등 향초 화본류를 파종해 경관 조성, 사면 침식 방지

핵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의성-상주 간 **지역 연계 강화**

문화관광자원 (낙단보, 조선통신사 산책로 등) 이용

산림소득작물 판매 활성화

산림휴양 활성화

의성군 숲속야영장 등산로와 연계한 임도망 계획

대구·경북권 도시민의 산림휴양 활동 증대

숲캉스

숲치유

효율적 목재생산체계 구축

경제림육성단지 내 임도 조성

임도를 중심으로 임업 기계화 작업장 적절히 배치

목재 생산·운반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 상승

생태연못 복원

메마른 연못을 생태 연못으로 탈바꿈

임도의 집수정 역할

산불 발생 시 **임시 급수지로 활용**

숲속 수생 동·식물의 서식지 역할

성공 포인트

"효율적인 임도망 미조성으로 인해 대내외적 접근성이 취약했던 의성,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1

친환경적 사방공법을 통해 **산을 깎아 만든 임도의 산사태 취약 요소** 제거 및 미관 개선

02

임도 건설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 (쓰레기산 생태축 복원사업, 단밀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등) 추진

03

신공법으로 '레일형 개거 (Open Channel)'를 시공해 원활한 유수 처리 및 사후 관리 도모

04

인근 산림휴양시설과 연계해 철저한 고민을 통한 **임도 조성 계획 수립**

05

지역 간(국유·민유임도), 기관 간(시·군) 임도망 연계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의성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 TOP 4

최치원문학관

평화를 꿈꿨던 문장가의 숨결을 따라

신라 시대의 대학자인 최치원의 학문과 사상을 기리는 공간이다. 관직에서 물러난 최치원 선생은 고운사에 머물며 불교문화를 꽃피우려 노력했다. 애민사상을 노래하고, 평화를 꿈꿨던 최치원의 아름다운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의 삶과 작품을 통해 문화를 탐방하고 미래의 주역들에게 바른 정신을 고취시킨다.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241
054-834-8200

의성금성산고분군

옛 유적을 따라 걷다

의성은 삼한 시대 부족국가 중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조문국의 옛터이다. 조문국의 대표적인 유적 중 하나가 의성금성산고분군이다. 국도 28호선을 타고 달리면 탁 트인 풍경을 맞이할 수 있다. 역사가 품은 이야기와 아름다운 모습은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준다. 봄에는 작약이 흐드러지고 가을에는 국화가 만발한다. 가족과 함께 산책하고 사진을 찍기에도 제격이다.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일대
054-830-6910

빙계계곡

더위를 물리치는 신비의 계곡

빙계계곡은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에 흐르는 계곡으로 경치가 아름다워 경북 8경에 속한다. 부처님과 용이 대결을 했다는 전설이 남아있다. 풍혈과 빙혈은 빙계리 입구에 있는 바위틈으로 한여름에도 얼음이 얼고 겨울에는 영상 온도를 유지해 훈훈한 바람이 분다고 한다. 물놀이와 천혜의 풍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896
054-830-6952

고운사

때 묻지 않은 천년 고찰

의성에는 '구름을 타고 오른다'는 뜻을 가진 산이 있는데, 마치 연꽃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 꽃이 핀 자리, 천이 시작되는 자리에 의상대사가 절을 짓고 고운사라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고운사는 민가로부터 떨어진 덕분에 여전히 순수한 자태를 간직하고 있어 정감이 넘치는 사찰이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광이 매력적인 공간이다.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054-833-2324

경남 진주에서 만난
숲속 힐링의 모든 것

우수사례명

숲속에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으로 진주를 찾다

경남 진주 월아산 자락에 조성된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진주시민들에게 알찬 휴식을 선물하며 지역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숲속의 아름다운 경관부터 피톤치드, 음이온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산림치유 인자가 가득한 곳에서 건강한 휴양이란 무엇인지 선도적으로 선보이는 중이다. 산불 피해지역이었던 과거의 모습은 말끔히 지운 채 푸릇푸릇한 자연이 살아 숨 쉬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찾고 싶은 녹색 휴식공간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INFO

- **지자체** 경상남도
- **소관부처** 산림청
- **포괄보조사업**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 **내역사업명**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산림휴양관

지역이 함께 키워낸 월아산의 자연

일상의 건강증진은 물론 색다른 휴양을 즐기기 위한 산림휴양·복지 활동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바다와 육로를 연결하는 교통적 요충지에 위치한 경남 진주에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명품 산림휴양 서비스 공간으로서 지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곳이 자리한 월아산은 진주시의 금산면, 문산읍, 진성면에 걸쳐 있는 높이 해발 482m의 산으로, 1986년에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만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시내에서 가깝고 산세가 가파르지 않아서 오래전부터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

그러던 중 1995년 발생한 대형 산불은 아름다운 월아산의 자연을 단번에 집어삼켰다.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진주시와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이곳을 다시 초록빛으로 물들일 수 있었다. 지역이 함께 키운 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월아산 일대는 지역 주민들의 애정이 곳곳에 묻어 있다. 현재는 다양한 활엽수 수종들이 월아산 정상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능선부에도 소나무 등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봄이면 만개한 벚나무가 시선을 사로잡는 곳이기도 하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자연의 생명력을 가득 품고 방문객들에게 숲의 혜택을 전하기 위해 정진 중이다.

우드랜드에서 복합산림문화복지시설로 변모

'월아산 숲속의 진주'의 시작은 2017년 준공 후 2018년 4월부터 운영된 목공 체험장 '월아산 우드랜드'였다. 산기슭에 세워진 우드랜드는 직접 만드는 DIY 목공 체험과 다양한 즐길거리로 많은 방문객을 유치했다. 특히 아이들이 즐기기 좋은 나무 놀이 시설과 장난감이 준비돼 있어 어린아이와 함께 찾는 가족 단위 관람객의 큰 사랑을 받았다. 자연 속에서 친환경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추천 여행지로 점차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목공 체험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활용 소재의 한계성이 있었고 주차 등 편의 시설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에 진주시는 더 많은 시민이 숲속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계획 아래 시설 및 프로그램 확장에 돌입했다.

2019년부터는 방문객들이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유아숲 체험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산림청을 통해 프로그램 인증을 받는 등 전문성을 갖춰 나갔다. 뒤이어 2020년에는 자연휴양림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대적인 시설 착공에 들어갔고 숲속 어린이도서관 착공, 네이밍(월아산 숲속의 진주) 선정, 산림레포츠 시설 착공, 전선지중화 및 도로포장에 이르기까지 변화에 가속도를 붙였다. 한 달간의 공모와 1차/2차 심사, 온라인 투표를 거쳐 마침내 2020년 11월 선정된 시설 명칭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숲의 가치를 담은 진주(眞珠)와 진주시의 진주(晉州)라는 중의적 의미로 월아산 산림복지시설이 가지는 가치가 보물과 같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2022년에는 콘도와 글램핑 시설, 캠핑을 위한 야영데크까지 갖추며 당일형 체험에서 숙박형 체험 명소로 거듭나기도 했다. 누구나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간, 최고의 산림휴양 서비스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진주시는 공간의 다양성을 보다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는 데 전력을 쏟았다.



월아산의 청정 자연을 품은 숲속 산책로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의 긴 준비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복합산림문화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이곳은 우드랜드,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 시설이 모여 숲속의 보물 같은 시간을 선물하고 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IC)와 3km 근거리에 위치할 뿐 아니라 젊은 세대가 많은 진주혁신도시에서도 가까워 입지상 큰 장점도 가지고 있다. 한편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급격한 기후변화 등의 배경을 통해 많은 이들이 치유의 경험을 원하게 됐고 이와 맞물려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 산림복지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 지역민의 만족도가 높고, 시민들이 사업의 타당성에 적극적인 공감을 보내오기도 했다. 빠른 입소문을 통해 이제는 주말이나 연휴에 숙소 예약이 어려울 만큼 말 그대로 첫 번째 전성기를 구가하는 중이다.

월아산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4동	산림휴양관 1동 (콘도형 10실)	글램핑 8동	야영데크 5개소



산림레포츠 시설
(곡선형 짚와이어)



산림레포츠 시설(네트어드벤처)

그러나 과정에 순탄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시설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고 묘지를 매입하는 등 일부 사례에서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고, 무허가 건물을 조치하는 데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됐다. 또한 도심에서 불과 10분 거리로 높은 접근성을 가졌지만 막상 주차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추가 시설이 확충되고 관람객이 증가하며 주차난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졌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지만, 주차 공간을 늘리느라 오히려 숲을 망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고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일 역시 쉽지 않았다. 진주시는 다양한 어려움을 넘어 끝내 3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약 25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솔루션을 구상하고 있다. 더 많은 이들이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 진주시의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부분이다.



달빛정원의 이국적인 풍경

아름다운 산석정원, 지형의 한계를 뛰어넘다

월아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곳이지만 이처럼 산림복지 시설이 들어서기에는 사실 적합한 곳이 아니었다. 산불 피해의 영향도 있었지만 '애추지형'이라고 불리는 암석 퇴적 지형으로 돌이 많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긴 세월 풍화 작용을 거치며 절벽의 돌이 떨어져 나가고 작은 돌들이 쌓이며 형성된 이 같은 지형으로 인해 땅을 파면 돌이 무더기로 나오기 마련이었고 시간과 비용도 상상을 뛰어넘었다. 산불 복구 당시 조림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무를 심으려면 땅을 파야 하는데 돌 때문에 나무를 심는 데도 큰 어려움이 따랐다. 진주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빛나는 아이디어로 타개했다.



달빛정원의 아름다운 야경



초여름 수국으로 가득한 달빛정원

우선 산림 회복을 위해 장기적 관점으로 수종을 선택했다. 돌이 많은 지형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기에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수목원부터 산림청 연구소, 지역 대학(경상대학교)의 산림자원학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에 의뢰해 수시로 자문을 얻었다. 그 결과 현재는 월아산 일대에서 조경수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질 정도로 푸른 자연을 품게 됐다. 또한 처치 곤란인 산석을 활용해 조성한 달빛정원은 이국적인 풍광으로 '월아산 숲속의 진주'의 랜드마크로 사랑받고 있다. 쏟아져 나온 돌을 버리지 않고 이곳만의 특색을 살리는 데 활용한 기지가 빛을 발했다. 돌과 다양한 식물을 이용한 훌륭한 조경이 돋보이며, 다른 휴양림과 확연히 차별화되는 개성 요소로 자리 잡게 됐다. 흡사 스페인의 구엘공원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눈부시고 잔잔한 경관을 형성해 숲의 초록빛 이외에도 다양한 시각적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 안에 넓게 자리함으로써 경사면에 나타날 수 있는 산사태 등의 재해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잔디마당에 마련된 휴식 공간



숲속 어린이도서관 내부 전경

누구나 찾기 쉬운, 누구나 찾고 싶은 숲속의 진주

2024년에는 '치유의숲'까지 완공돼 경남권 최대의 복합산림문화복지시설로 활성화에 날개를 달 전망이다. 진주시는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2028년 KTX역까지 조성되면 진주시와 경상남도를 넘어 전국의 관람객이 몰리는 명소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작가정원'과 주차장을 추가로 완공할 예정이며, 단순히 수혜자를 넘어 진주시와 월아산에 큰 애정을 가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활발히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별 신청을 통한 자원봉사, 시민정원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의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도 상생의 가치가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시설 내 매점을 운영하지 않고, 필수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자판기 정도만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숙박하며 머무르는 관람객들로 인해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되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목공 재료 생산의 허브로 성장하며 지역의 목재 생산업 성장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약 30여 개의 목재 생산 업체가 월아산 일대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중이다.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2022.05.04부터 운영)

네트어드벤처	곡선형 짚와이어	에코라이더

한편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무려 3개나 산림청 인증을 받음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체험객 입장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자부심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수차례 시도하며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진심과 집념으로 인증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 경상남도 내 16개 기관 중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단기간 내 이룬 성과라 더욱 값지다. 편리한 시설,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2022년에는 총 23만 명이 다녀가며 산림복지와 산림휴양의 1번지로 자리 잡는 중이다. 진주시는 SNS 채널과 유튜브 등 미디어를 통해 '월아산 숲속의 진주'의 홍보를 강화하고 입소문을 통해 긍정적 인식을 계속 쌓아나가며, 지역민을 위한 선물 같은 공간으로 가꿔나겠다고 다짐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 예약제 시스템과 할인 제도 등도 적용해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잡고자 한다. 진주시는 이곳의 성공 요인으로 수요자 맞춤형 아이템과 훌륭한 인재들을 꼽는다. 체계적으로 기획돼 기반이 탄탄할 뿐 아니라, 작은 것부터 감동을 전하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구성원들이 있어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

핵심성과

일자리 창출
신규 채용

7 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65 명
기간제 근로자

인프라 조성
숲속어린이도서관

2021.11.11
개관일

14,435 권
보유 도서

산림청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
3건(경상남도 내 유일)

나무가 주는 선물

내손으로 만드는 탄소 통조림

책읽고! 숲걷고! 락(樂)forest!

이용객 증가
산림휴양시설 이용객 합계
(2022.12 기준)

176,139 명
우드랜드

22,045 명
자연휴양림

29,599 명
산림레포츠

합계 **227,783** 명

성공 포인트

"주민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연 휴양 시설이 부족했던 진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1

산불로 인해 지역민에게 아픔으로 남아 있는
월아산을 명품 산림복지공간으로 조성

02

도심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차별화된 매력 포인트로 승화

03

주민 참여 확대 및 의견 적극 수용
(한 달간의 공모와 투표를 거쳐
시설 명칭 확정 / 자원봉사 활성화)

04

다양한 채널(SNS 및 유튜브)을 통한
홍보 확대 및 긍정적 이미지 구축

05

지형의 한계 등 약점 요인을 개성 요소로 활용
(암석 퇴적 지형으로 인해 개발 시 발생되는
산석을 이용해 이국적인 정원 조성)
시각적 만족도 상승 /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예방 효과

진주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 TOP 4

촉석루

물속에 비친 역사의 한 장면을 건져 올리다

진주성 남쪽에 자리한 촉석루는 계절마다 새로운 그림으로 채색된다. 남강을 내려다보며 논개의 충절을 떠올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2020년 6월 11일에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승격되기도 했으며 한눈에 담기 어려울 만큼 웅장한 건축물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노란 조명이 수면에 비치면 낭만적인 야경이 펼쳐진다.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626
055-749-5171

국립진주박물관

온 가족이 함께 빠져드는 역사와 문화의 광장

1984년 개관한 국립진주박물관은 경상남도 최초의 국립박물관으로 2008년, 2018년 두 차례 개편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동아시아 사회의 역사, 경남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 교육, 연구하고 있어 가족 단위 체험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제격인 특성화 박물관이다. 지역민을 위한 품격 있는 문화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626-35
055-740-0698

망진산봉수대

가슴이 탁 트이는 절경으로 초대합니다

망진산 봉수대는 진주 8경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봉수대 위에 올라서면 진주 남강과 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며, 밤이 되면 화려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봄이면 새하얀 이팝나무꽃이 만발해 사진 명소로 재탄생하며, 우리 역사의 흔적까지 발견할 수 있어 휴식공간을 넘어 교육공간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



경상남도 진주시 봉수대길 116
055-749-5312

경상남도수목원

푸른 자연으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곳

국내외의 다양한 수종을 전시하고 있는 산림 문화공간이다. 넓은 면적에 총 1,500여 종에 10만여 본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침엽수, 수생식물, 선인장, 장미 등으로 세분화된 전문수목원은 16개 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계절 변화에 맞춰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풍광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가만히 머무르는 것만으로 영롱한 초록빛이 일상에 활기를 더해준다.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055-254-3811

주민공동체 소통의 장이자 문화 향유의 공간,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우수사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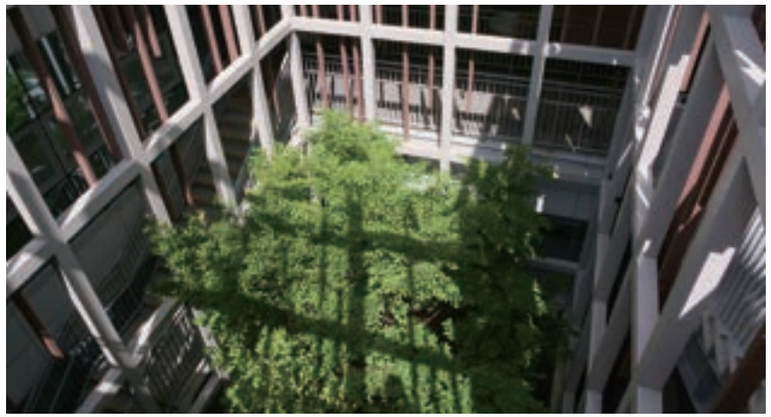
문화활력소, 도안동 행정복지센터로 오세요!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은 2022년 6월 20일 가수원동에서 분동되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단지와 공원녹지를 조성한 이후 지역 상권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그에 비해 문화·여가시설은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주민들의 오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문을 활짝 열었다. 도안동에 문화 활력소를 불어넣고 있는 특별한 행정복지센터의 이야기에 주목해 보자.

INFO

- **지자체** 대전광역시
-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포괄보조사업** 문화시설 확충
- **내역사업명**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





중앙정원

행정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

과거 대전광역시의 중심 인프라는 동구 대전역세권과 중구 은행동·선화동 그리고 서구 둔산지구에 구축되어 있었다. 반면 도안동·가수원동은 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낙후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지역 주민들이 행정·문화·복지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은 2005년 도안 택지개발사업지구(1단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최초로 결정되어 빠르게 성장했다. 도안동의 본격적인 개발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공원녹지 조성 추진 등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한 결과 도안 지역의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공동 주택에 수천 세대가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인 행정기관이 없어 주민들은 전입신고, 등본발급과 같은 간단한 행정 서비스조차 받을 수 없었다. 행정·문화·복지 세 가지 요소가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 절실한 순간이었다. 불편함이 이어지는 가운데 2014년부터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치명적인 걸림돌 또한 존재했는데, 바로 가수원동과 도안동의 분동 논쟁이었다. 도안동이 행정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탓에 도안동 주민들은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 멀리 떨어진 가수원동까지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이에 가수원동과 도안동의 분동 추진이 시작되었다.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다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세 가지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첫 번째, 지역주민의 생활 문화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행정·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가 결합된 복합 커뮤니티 조성으로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두 번째, 공간 제공을 통한 주민 자치적 소통과 공유 확대이다. 행정복지센터 내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공동체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세 번째, 시대 변화 및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제공이다. 도안동의 생활 문화를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지역 주민이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문화 네트워크 공간을 꾸리고 각종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 사회로 나아가는 활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2020~2022년 동안 진행되었던 '도안동 청사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2019년 4월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21년 3월 실시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 2021년 4월 착공에 들어가 2022년 5월 준공되어 마침내 도안동 주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추진 과정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 회계과를 비롯하여 자치행정과, 토지정보과의 활약도 컸다. 특히 자치행정과는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 주민 간담회는 2020년 8월 실시 설계용역 진행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었다. 도안아이파크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대표 20명과 구청장, 시·구의원이 모여 행정복지센터 추진 경과와 기본 설계안을 토대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당시 주민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은 주차난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였다. 도안동 행정복지센터는 규모 대비 주차 공간을 여유롭게 설계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건립 후에도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차를 자제하는 등 주차 공간 개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너나우리놀이터



대전
광역시

문화로 하나 되는 도안동

2개 이상의 생활SOC 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2019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대전광역시의 각 자치구에서 진행한 사업 중 청사 내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한 것은 도안동 행정복지센터가 최초이다. 생활문화센터의 조성 목적은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것인데,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복지센터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셈이다.

2022년 7월 주민들의 희망찬 발걸음이 닿기 시작한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는 행정복지센터의 1층과 4층에서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들이 마주치고 소통하는 마주침공간, 음악 활동을 위한 방음공간, 정적인 활동을 위한 학습공간, 운동 활동을 위한 탈의실 및 샤워실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 활동 유형에 따른 세밀한 공간 구획이 돋보인다. 타 지역의 생활문화센터와 차별화된 마주침공간 활용 방안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대부분의 생활문화센터 마주침공간은 내부 공간으로만 이어져 있는 반면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내 생활문화센터는 전면을 개방하여 내부뿐만 아닌 외부와의 연결성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내·외부를 아우르는 주민들 간의 자연스러운 마주침을 형성하고자 한 것이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현황

구분	공간명	층	용도	주요 설치 기자재
필수시설	마주침공간	1	주민 공동체 공간	도서, 테이블
	주민자율공간(방음공간)	4	동호회 활동 공간	음향시설
	주민자율공간(학습공간)	4	학습, 스터디	책, 의자
	다목적 홀	4	교육강의 공간	도서, 테이블
공용시설	탈의실, 샤워실	4	스포츠 활동	
	홀	4	화장실, 복도	



너나우리놀이터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고 있다. 현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요가교실, 라인댄스, 사교댄스, 노래교실, 여성축구(풋살)교실, 기타교실이 있다. 이중 여성축구교실은 대전광역시 최초의 여성축구교실이다. 체육의 대중화에 주목했던 대한청소년스포츠클럽연맹 회장이자 도안동 주민자치회 부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3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주민들이 운동의 즐거움을 배우고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뿜어내고 있다. 2023년 1월 회원을 모집하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다. 그리고 6월에는 2023년 여성풋살대회 '하나 퀸즈컵'에 참여하는 이색적인 성과를 이룩했다.

도안동 행정복지센터는 2022년 9월 제24회 대전광역시 건축상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기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물론 건축물의 심미적 기능 또한 고려하



플레이가든

여 만들어낸 결실이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작은 공간들을 섬세하고 창의적으로 구상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가운데에는 내부에서도 개방감을 만끽하고 초록빛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그린아트리움'이 존재한다. 시민과 소통하며 자연과 함께 흐르는 'ECO_Flowing(에코 플로윙)' 콘셉트로 친환경적인 면모까지 챙겼다.

주민들의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

추진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도안동은 가수원동에서 분동되어 신설된 동이기 때문이다. 주민 설명회와 주민대표 구성을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애썼다.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긴 시간 동안 회의를 개최한 결과 현재의 계백로를 경계로 하는 분동 경계를 마련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또한 신설 동 명칭 및 동 청사 내 생활문화센터 건립 부지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이렇듯 사업의 시작과 끝에는 항상 도안동 주민들이 있었다. 그들 덕분에 사업이 추진되고 마무리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내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된 후에도 주민자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로 거듭날 수 있었다.



같이놀이 장난감 대여실



너나우리놀이터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3층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길목에서

도안동 행정복지센터는 생활문화센터 외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연계 사업 간의 특별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다. 주민들을 위한 주차 공간에 여유롭게 주차하고,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생활문화센터의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잘 정돈되고 안전한 환경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기고…. 한 공간에서 행정·문화·복지 세 요소가 맞물려 돌아간다. 도안동의 인구는 지금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 많은 주민의 바람이 모이고, 더 가치 있는 문화가 실현되는 장소로 도안동 행정복지센터가 자리매김하길 희망한다.



너나우리놀이터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명	장소
요가교실	4층
노래교실	
라인댄스	
웰빙댄스(초급, 중급)	
기타교실	
여성축구교실	옥녀봉체육공원 축구장

대전광역시 건축상 은상 수상

시민과 소통하며 자연과 함께 흐르는 행정복지센터 ECO_Flowing		
커뮤니티 (도시와 자연, 사람과 사람을 연결)	랜드스케이프 (개방감 선사, 초록빛 풍경)	에코 플로 (쾌적한 실내환경, 휴식공간)

대전
광역시

핵심성과

문화 인프라 조성

- **마주침공간** (주민 소통)
- **방음공간** (음악 활동)
- **학습공간** (독서, 강연)

대전광역시 건축상 은상

- 2022년 9월 제24회 대전광역시 **건축상 은상 수상**
- **아름다운 도시 경관**
- **자연친화적** 환경

여성축구교실 개설 (대전광역시 최초)

- 2023년 1월 **회원 모집**
- 2023년 **2월 프로그램 운영 시작**
- 2023년 6월 여성풋살대회 **'하나 퀸즈컵' 참여**

행정·문화·복지 연계 사업

행정	문화	복지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주민 주차 공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성공 포인트

> 기초적인 행정 기관 부재와 분동 논쟁으로 불편함을 겪어야 했던 대전 서구 도안동,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1

행정·문화·복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사업 계획 제시

02

건립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 (주민설명회, 지역 대표자 면담 등 소통 체계 구축)

03

행정복지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성 증진 강화**

04

주민자치회 정기 회의를 통한 주민자치프로그램 개설로 문화 향유 다양성 증대 및 높은 참여율 달성

05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주차 공간, 육아종합지원센터 동시 개청으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대전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 TOP 4**

한밭수목원

숲과 꽃의 녹색도시를 만끽하다

한밭수목원은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학습의 장이 되어주고 시민들에게는 도심 속의 푸르름을 나누어 준다. 온전한 쉼을 내어주는 녹색 공간이다. 수목원 내부는 동원과 서원으로 구분된다. 가장 인기를 끄는 곳은 수생식물원과 암석원으로 수목원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곳곳에 형형색색의 꽃들이 즐비해 보는 이의 마음을 절로 들뜨게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
042-270-8452

장태산자연휴양림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연휴양림으로 오세요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숲이 시선을 뺏는 곳이다.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산림욕을 즐기는 휴양림으로 유명하다. 숲의 냄새를 맡고 피톤치드로 몸의 긴장을 풀거나 피로를 회복해 자연 속에서 기운을 되찾을 수 있다. 장태산자연휴양림에서는 숲에 서식하는 곤충을 관찰할 수 있고, 흙을 만지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로 461
042-270-7883

국립중앙과학관

아이와 즐길 수 있는 호기심 천국

우리나라 대표 과학관이다. 미래기술관, 과학기술관, 꿈아띠 체험관, 자연사관, 인류관 등의 전시관을 보유하고 있다. 자녀와 함께 방문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기에 좋다. 어린이들에게 신기한 경험을 제공하여 과학적 상상력과 더불어 미래과학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돕는다. 특별전도 운영하니 일정을 맞춰가면 잊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
042-601-7979

대전시민천문대

낭만이 가득한 별의 놀이터

2001년 개관한 대전시민천문대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별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별 관측이 가능한 야간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시청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 3층 관측실에서는 천체 망원경으로 주간에는 태양의 홍염과 측점, 야간에는 성운, 성단 등의 관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어두운 도심 속에서도 언제든 별을 만날 수 있어 특별한 체험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제격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213-48
0507-1312-8762

세종특별
자치시

주민이 제안하고 시가 행동한다
민관합동의 파워풀 앙상블

우수사례명

원스톱 주차환경개선
(주차환경·보행환경개선·전선지중화를 한번에!)

2012년 7월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를 입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다. 철저한 도시 계획으로 세종시 곳곳이 최신의 인프라들로 채워졌지만 계획 구역이 아닌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하기 시작했고, 신도시와 구도심은 섞이지 못한 채 점점 구분 지어졌다. 그로부터 약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세종시에는 작지만 옹골찬 변화들이 일고 있다. 자신들의 오랜 삶의 터전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어보려는 구도심 원주민들의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그 움직임의 중심에 금남면이 있다

INFO

-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포괄보조사업** 주차환경개선지원
- **내역사업명**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장 공사 전 신촌리 일대 모습

구도심이 달라진다

금남면의 면 소재지인 세종시 용포로 일대는 전통시장과 다수의 음식점, 소매점 등이 조밀하게 입점돼 있어 유동 인구가 비교적 많다. 그러나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불법 주정차, 이른바 '개구리 주차'가 고질병이 되었고 좁은 도로, 정리되지 않은 전선 등 열악한 보행환경은 도시 미관은 물론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2018.09)」을 수행, 그 결과 주차수요가 많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금남면 용포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보행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주차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더불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도 함께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의 발단엔 주민들이 있었다

용포로 보행환경개선의 시작은 금남면 주민 200명의 목소리가 담긴 동의서에서 비롯되었다. 금남면 주민들로 구성된 '금남면 주민발전위원회'가 세종시에 먼저 사업을 제안, 이를 수용한 시가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과 '보행환경조성사업'에 각각 공모한 것이다. 민관이 힘을 모아 사업 과정에서의 각종 시행착오를 함께 극복했고, 그 결과 보행환경조성사업은 90%의 공정을 이루었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완료하여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사업 제안의 당사자인 '금남면 주민발전위원회'는 기존의 관 주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협의체 등과 달리 주민들 스스로 구성한 주민자치회의다. 면적이 넓고 인구도 많은 금남면이지만,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로 구성돼 있어 주민들이 생활에 고충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자 2018년에 1기 위원회를 발족, 3기인 현재까지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주차장 공사 전 신촌리 일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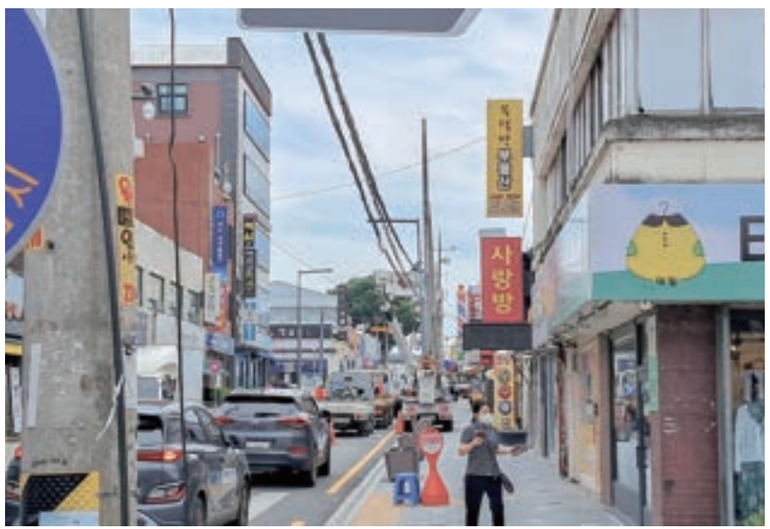


세종특별
자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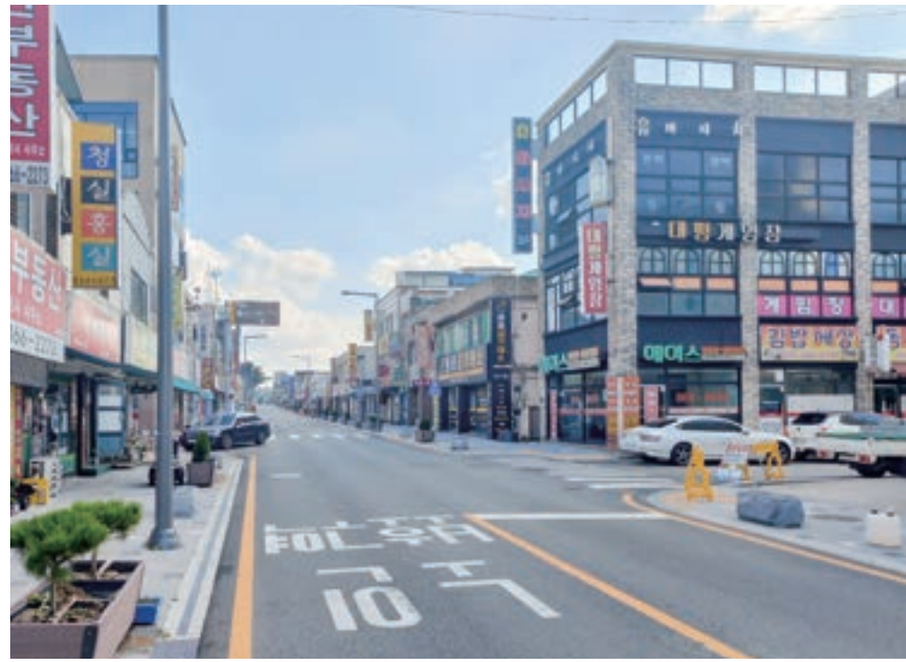
세 가지 사업을 한 번에, 원스톱 사업 추진

금남면 주민발전위원회의 제안을 수락한 세종시는 실태조사와 함께 기본계획에 관한 용역 결과를 반영, 금남면 신촌리 일원 유휴부지를 공영주차장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한 결과 총 55면 규모의 3층 주차타워 건립의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2020년부터 금남면을 대상으로 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착공한다. 추가로 인근 나대지를 임차하여 108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도 마련, 총 163면의 주차공간의 신설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용포로 보행환경을 전면 개선하고자 주차환경개선사업(국토부), 보행환경조성사업(행안부),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한전, 6개 통신사) 계획을 동시에 연계해 수립했다. 국토부와 행안부 공모에 각각 신청한 결과 2019년 사업에 선정되고, 2020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선지중화사업 역시 2019년 12월 사업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을 거쳐 2020년 4월 전선지중화 이행협약을 체결 후 사업이 착수되었다. 용포로 환경개선을 위한 세 사업의 삼단 합체가 마침내 이루어졌다.



한전주 전선제거
작업 모습



한전주 전선제거 작업 후 달라진 모습

민관합동의 파워풀 앙상블

세종시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을 단장으로 국토교통부, 세종시 미래수도기반조성과, 도로과, 공공건설사업소, 그리고 금남면 주민발전위원회를 위시한 금남면 전체가 사업의 공동주체가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승인 및 예산지원, 사업추진상황 점검 등의 업무를, 세종시 미래수도기반조성과는 설계 및 보상 추진, 공사 발주 및 감독, 관련 부서 협의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도로과에서는 주차장 관련 도로에 관한 다양한 사업 협의와 협조 역할을, 공공건설사업소는 건축사업 분야별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을 각 분야 감독관으로 임명, 공사 과정 곳곳을 검토, 검사하게 하였다. 금남면은 관과 주민 사이의 중개자가 되어 여러 가지 의견 조율에 힘썼으며,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대표 성격인 발전위원회는 주민 여론을 사업부서에 전달하거나 원활한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대민 업무의 핵심축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금남면 신촌리 일대 전경

세 가지 사업을 원스톱으로 추진하는 일은 세 가지 이상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 있는 높은 문제해결능력을 요하는 고강도 미션이었다. 그러나 일방적인 관 주도가 아닌 민관이 어우러진 이 상생의 조합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파생된 갈등 상황들을 민관이 합동하여 해결해나간 것은 서로 간의 우호적 인식과 가치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이다.

사업의 효과는 한꺼번에, 논스톱 지역발전

사업은 원스톱으로 진행됐지만 그 효과는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우선 개선의 폭이 획기적이었으며, 주민들의 인식 또한 개별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훨씬 높아졌다. 각각의 사업을 별도로 진행했을 시 이중 삼중으로 지출될 비용을 한꺼번에 해결해 비용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을 줄여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하였다.

사업의 주민주도적 특징은 주민들의 자부심과 자치 역량을 더욱 강화하였다. 특히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보상 협의 과정에서 난관이 많았는데, 보상비 불만으로 보상 협의에 불응하는 소유자로 사업이 지연되자 발전위원회가 소유자를 직접 만나 보상 협의에 응하도록 설득,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던 사례들이 있었다.

그 밖에 지역의 가장 죽어있던 유휴공간을 주민들이 원하는 유용한 공간으로 바꾼 공간 재생의 경제 효과, 낙후된 지역 이미지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구도심 주민들뿐 아니라 인근 신도시와 읍면 지역의 접근 강화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원스톱 주차환경개선 사업의 효과는 논스톱으로 무한 진행 중이다.

세종특별
자치시



주차장 내부



주차장 내부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개선하자는 데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신도시와 구도심의 경계를 흔들기 시작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쪽과 저쪽이 한데 어우러져 섞이진 않을 것이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겪어온 문화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길이 있다면 서로 다른 둘은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만난 둘은 조금씩 서로를 경험하며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이다. 서로의 경험을 소비하며 또 다른 소통의 장을 열어갈 것이다. 길을 정비하는 일은 어쩌면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금남면 용포로 주차장 건너편으로 보이는 신도시엔 높다란 고층아파트, 대형 유치원과 학교 건물 등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신도시와 금남면 사이에는 '행복대로'라는 이름의 큰 도로가 놓여있다. 그간 신도시는 신도시의 행복대로로 금남면은 금남면의 행복대로로 길을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친 어느 작은 길을 통해 그들 각자의 행복대로가 이들 모두의 행복대로로 다시 이어질 거란 기대가 든다.

금남면 용포로 공영주차장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신촌리 297-3번지 일원
개요	3층 규모, 주차 공간 55면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경과	
2019년 4월	'20년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2020년 3월	건축설계 등 용역 착수
2020년 6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2021년 6~10월	경관심의 및 건축허가
2021년 12월	편입지장물 보상 완료
2022년 3월	기존건축물 철거 완료 및 공사 착공
2022년 11월	공사 준공
2023년 3월	무인정산주차시스템 설치

세종특별
자치시

핵심성과

3개 사업 연계 추진

주차환경개선사업 (국토교통부)	보행환경조성사업 (행정안전부)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 설치	보도 및 차도 재포장, 보·차도 분리시설, 가로등 신설 등	배전선로 지중화 1.1km, 지상기기 설치, 전주철거 등

사업 비용 절감

보행환경 조성 및 전선·통신 지중화 원스톱 추진

- 굴착 작업으로 인한 **이중 비용 지출 방지**
- **공사 기간** 지연 방지
- **주민 보행** 불편 감소

주민 요구 실현

활용처 없이 방치된 유휴부지를 사업 대상지로 지정 → 주차타워(3층) 건설 → **주민 삶의 질 향상 유동인구 확대 공간재생 실현**

지역이미지 개선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하나.	둘.	셋
낙후된 마을이라는 지역이미지 개선 및 도시 미관 향상	시장 이용객들이 **불법 주정차의 불편함** 없이 편하게 소비 활동	**신도시**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

성공 포인트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도심환경 개선이 필요했던 세종 금남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1

주민들 스스로 구성한 주민자치회
(금남면 주민발전위원회)의 주도로
다양한 민원 해결에 집중

02

통합적 변화를 위해 주차 환경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 동시 연계 추진

03

관 주도가 아니라 민·관이
어우러진 상생의 조합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04

주차 공간 부족, 불법 주정차,
좁은 도로 등 문제점에 대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인식 및 솔루션 계획

05

유휴부지를 공영주차장
대상지로 선정함으로써
사업 경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증대

세종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 TOP 4

국립세종수목원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초록빛 세상

국립세종수목원은 국내 최초 도심형 수목원으로 온대 지역의 식물을 보전하고 우리 전통 정원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어졌다. 세종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의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온실 전망대에 서면 아름다운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고, 저녁 시간대 노을이 어스름해질 시간이면 전통정원의 고즈넉함이 우리를 맞이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수목원로 136
044-251-0001

베어트리파크

동물과 교감하며 자연을 만끽하는 곳

동물들이 뛰놀고 꽃과 나무들이 늘어선 '동물원과 수목원'이다. 반달곰, 꽃사슴, 원앙 등 일상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동물들을 가까이서 만나고 먹이 주기 체험까지 가능하다. 베어트리파크에서 환영 인사를 담당하는 오색연못을 지나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하계정원, 수천 송이의 장미원, 국내 야생화까지 풍부한 볼거리를 통해 참된 휴식을 선사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신송로 217
0507-1414-7971

세종홍판서댁

단아함을 품고 있는 고택의 매력

홍판서댁은 고종 3년(1866년)에 지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한옥이다. 병조판서와 예조판서 등을 지낸 홍순형이 소유했던 가옥으로 충청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ㅁ'자형 평면 구조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안마당의 우물과 향나무, 뒤뜰의 향나무와 감나무가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지금까지도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고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용포동촌길 43-19
044-300-5814

세종호수공원

시민들의 여유로운 휴식 공간

금강 강물을 끌어와 조성한 세종호수공원은 국내에서 가장 큰 인공 호수이다.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호수소풍숲뿐만 아니라 자작나무 등 다양한 수종들도 만나볼 수 있다. 호수를 가로지르는 수상무대섬에서는 축제행사와 야외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어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한다. 날이 어두워지면 운치 있는 야경도 구경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호수공원길 155
044-301-3923

PART 2

시군구 편성 12개 지역

함께했기에 키울 수 있었던 공간의 가치,
우리 지역 성장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1 경기도 가평군

#2 경기도 포천시

#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5 충청북도 영동군

#6 충청북도 괴산군

#7 충청남도 아산시

#8 전라북도 김제시

#9 전라남도 함평군

#10 경상남도 김해시

#11 부산광역시 서구

#12 대구광역시 중구

술과 음식으로 꽃피는 맛있는 가평

우수사례명

맛있는 “가평군의 술과 음식”이 즐거운 축제의 꽃으로 피다

경기도 가평군의 공유양조벤처센터 ‘술지움’이 문을 활짝 열었다. 가평군은 술·식품·음식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쏟아왔으며, 그 결실로 ‘술지움’이라는 특색 있는 브랜드를 탄생시켰다. 청정 자연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 그리고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이 있었기에 전국 최초의 공유양조벤처센터가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었다. 그 안에 담긴 숨은 노력과 미래 가치를 함께 살펴본다.

INFO

- **지자체** 경기도 가평군
- **소관부처** 경기도
- **포괄보조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 **내역사업명** 농촌신활력플러스





공유양조벤처센터 조감도

휴양의 도시 가평이 되기 위해

우리나라 주류산업은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가장 큰 변화는 주류시장의 다변화다. 전통주에 대한 인식 전환부터 수제맥주, 수제와인의 인기에 힘입은 소규모 양조장의 확산까지 점차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중이다. 가평군은 이 같은 주류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빠르게 읽어냈고 지역관광의 미래 모델로 삼아 청사진을 그렸다.

경기도 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가평군은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어 이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 중이지만, 그 이면에 개발의 어려움과 일자리 부족이라는 문제점도 동시에 안고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대기업 등을 유치하는 데 있어 제약이 많으며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가평군의 노령화지수(유소년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는 314.35로 경기도의 시군 중 가장 높으며, 2021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지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한 솔루션이 절실한 시점에 가평군은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골몰했다.

가평군의 선택은 기존의 강점을 살리는 동시에 '술'과 '식품'이라는 유망 산업을 관광과 연계하는 방향이었다. 수상레저와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레저 관광이 활성화된 곳이지만 이와 함께 농업도 중요한 산업이기에 지역 농산업의 발전에 힘이 될 만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가평의 청정 자연이 선물한 가평쌀과 찹쌀, 잣나무 등이 모두 훌륭한 자원이 되어 주었고, 이 밖에도 다양한 먹거리를 음식 산업으로 발전시킬 무궁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체계적인 추진으로 날개를 달다

가평군은 이미 수상레포츠라는 독보적인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다. 당일뿐 아니라 1박 2일 숙박형으로 가족 단위의 여행객이 많다는 점에 주목했고, 레저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체류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가 추가로 필요했다. 또한 서울 동북부에서 출퇴근이 가능할 만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사람들이 가볍게 찾기에 좋다는 강점을 알리는 것도 필요했다.

2018년 8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가평군은 이를 시작으로 기본계획을 튼튼히 세우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했다. 기획의 핵심은 주민과 지역의 농산업을 주요 관광 자원으로 인식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체험프로그램과 축제 등 콘텐츠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 창출 효과까지 노려볼 수 있었다. 가평군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는 단연 '수상레저'이지만 가평군의 미래 관광은 술·식품·음식 산업의 특화 노력과 함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자 했다.

2층 테마카페



'가평군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은 이 과정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교육·양조 분과, 음식·창업 분과, 축제·관광 네트워크 분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며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까지 더해 확실한 성과를 향해 멈춤 없이 나아갔다. 지역의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었다. 가평군에 필요한 후속 사업이 무엇인지 빠르게 분석함은 물론이고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다.

'술지움', 술의 진가를 탐험할 수 있는 곳

2022년 12월 완공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가평 공유양조벤처센터 '술지움'은 가평 관광 산업의 새로운 막을 올렸다. 설계와 건축 과정에서 추가 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등 잡음도 발생했지만 술문화복합체험 공간을 지향한 '술지움'은 총 2층 규모의 공간을 양조부터 체험과 시음, 판매, 휴식까지 술과 관련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게 꾸몄다. 가평의 명물인 '잣'을 모티브로 건물 외관을 디자인하는 등 지역성을 드러내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술지움'은 대중에게 하나의 브랜드로 각인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람과 자연 그리고 전통 술이 공존하는 술 메카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1층은 양조공간으로 가득 채웠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맥주, 와인, 막걸리, 증류주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자 차별점이다. 기본적으로 양조 면허를 위한 규격을 갖췄을 뿐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많은 장비를 들여와 전문 양조를 가능케 했다.



주류 숙성을 위한 오크통



가평 공유양조벤처센터 (지상 2층 / 건축 연면적: 981.19m²)	
층	**주요 시설(용도)**
지상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일반음식점) : 교육실, 전시 공간, 시음장, 카페&바 등 교육 및 관광 홍보 공간
지상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제조업) : 전통주/과실주, 증류주, 맥주 제조장 등 주류 제조 공간

누룩·효모 배양사업	
개요	가평군 6개 읍·면의 산 11개소, 5일장 4개소 방문하여 식물, 흙, 과일, 누룩 등 분리원 수집
사업 결과	총 58점의 분리원을 수집하여 효모 2,488점 및 곰팡이 72점 분리 (막걸리 제조용 효모 GPY3, 맥주 제조용 효모 GPY27, 양조용 황국 곰팡이 GPF26 등)

특히 생산과 가공이 아닌, '양조' 그 자체의 보급과 확산에 주목했다. 소규모 양조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창업 전 양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며, 상시 견학을 운영해 '술을 만드는 모습' 자체를 콘텐츠로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 주종별로 1박 2일 체험과 5일간의 전문가 과정도 운영 중이라 누구나 개인의 관심도에 맞게 술 문화를 깊이 향유할 수 있는 곳이다.

2층 공간은 더 다채롭게 구성돼 있다.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곳은 '양조 카페&펍'이다.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간으로, 음료와 술을 편하게 마실 수 있어 양조 체험이 아니더라도 순수한 휴식의 시간을 즐기게 한다. 또한 판매장(바틀샵)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술뿐 아니라 술잔과 보냉백 등 기념품도 구매할 수 있어 방문객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부족함 없는 '체험장'에서는 '막걸리 키트'로 직접 만든 막걸리를 가져갈 수도 있다. 인근의 아침고요수목원은 물론 남이섬과 자라섬 방문객, 북한강에서 수상레저를 즐긴 이들이 가평에 체류하며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양조 체험 콘텐츠로 여행의 다양성을 높이는 중이다.



축제푸드올림픽 현장 모습

경기도
가평군

지역 자원의 가치로 흠뻑 빛나다

가평군은 '가양주 아카이브'를 구축해 지역의 가양주 자원을 폭넓게 조사 및 발굴하고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기도 했다. 가양주 아카이브로 책자를 편찬·발간해 전통을 계승하고 '술'과 '가평'을 자연스레 잇는 브랜딩에도 기여했다. '양조 체험은 왜 가평인가?'라는 물음에 오랜 전통은 물론 술 산업에 대한 열정으로 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양에 가향을 담다>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책자는 사라져가는 가양주의 전통과 맥을 잇기 위해 기획됐으며, 가평군 곳곳에 남아있는 유·무형의 가양주 자원과 특성을 파악하여 알차게 담아냈다. 마을을 찾아다니며 여전히 가양주를 만드는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청취하고 현황을 종합하는 일이었다. 가평군의 고유한 농산물을 그대로 활용한 가양주이기에 가평의 특성을 보여주는 데도 제격이었다.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가평군의 6개 읍, 면과 126개 리를 조사했으며 집안의 내력부터 술에 담긴 이야기까지 살아있는 역사를 채취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가평군은 지역성과 주민의 일상성, 주체성이 담긴 축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지속했다. 상징적인 성과로는 가평역 앞에 조성된 'GAPYEONG' 글자 조형물이 있다. 가평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인상적인 눈도장으로 지역의 첫인상을 남기고 있다. '구석구석 마을축제' 역시 성공을 거뒀다. 2021년 개최한 축제는 각종 언론 보도와 함께 블로그 소개, 유튜브 방송 등으로 관심을 끌었고 약 800여 명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다. 2021년 진행만으로 약 3,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경제 기여 효과도 있었으며 지역 특산물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하고 주민 친화적인 축제의 가능성을 공고히 했다.

한편 2021년 12월에 개최한 '축제푸드올림픽' 성과도 빼놓을 수 없다. 가평의 대표 축제로 잘 알려진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과 연계해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축제 푸드' 개발을 위해 개최했으며 개인, 단체, 조리학과 학생 등을 아울러 전국의 지원자가 몰렸다. 가평특산물을 활용한 52종의 음식을 발굴했으며, 특히 본선에 진출한 15개 팀의 레시피는 품평회를 거쳐 시상한 이후 보급 확대를 위해 레시피 연구 개발까지 진행했다. 깐부잖아(피자), 타코잣코(제육타코) 등 이색 음식의 레시피를 담아 레시피북도 제작해 축제음식 문화



막걸리 키트 만들기 체험모습

의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발굴한 축제 음식들은 공모를 통해 선발한 '축제음식특공대'가 실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에서 부스를 운영해 판매했으며 총 4,1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역역량 강화에 미래를 걸다

'맛있는 가평군의 술과 음식이 즐거운 축제의 꽃으로 피다'라는 비전 아래 가평군은 술·식품 산업화와 축제·관광 네트워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야망을 하나둘 가시적으로 이뤄냈다. 실험적인 도전으로 개척한 소규모 축제의 인기, 주민 주도의 마을 공동체 회복,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참여를 통한 마을 매출 증대 등 파급효과를 이끌어 내며 가평 관광의 미래에 희망을 실었다.

인구 대비 면적이 넓은 가평군은 소외되는 마을과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미션을 성실히 수행 중이다. 신활력 술, 음식 아카데미를 통해 권역별 기초교육 476명·심화교육 80명 수료, 찾아가는 양조 교육 171명 수료,

특강 및 술해설사 양성교육 76명 수료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역량을 높여왔다. 또한 가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강사 육성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16개 반 총 129명이 수료하는 등 활발한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냈다.

가평 공유양조벤처센터 '술지움'은 이제 막 첫발을 뗐지만 숱한 고민과 노력을 거쳐 탄생한 결과물인 만큼 가평군의 미래 먹거리로 당당히 자리하고 있다.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유명한 양조장을 샅샅이 찾아다닌 인고의 시간과, 지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업단의 노력이 모여 가평의 자랑할 만한 명소로 차츰 자리 잡는 중이다.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됨은 물론 센터 자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내실 있는 활동과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자 한다. 관내 교육기관이나 기업과 MOU 체결을 통해 현장실습, 취·창업 정보 교류 등 상호 협력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끈끈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반 성장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증류주 기계



경기도
가평군

핵심성과

지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가평 휴식 아카데미) 운영

총 1,228명 수료 교육생 배출

주류 및 음식 시범 교육	269명	찾아가는 교육	191명
기초 교육	575명	심화 교육	100명
특강 수료	71명	술 해설사 발굴 과정	22명

아카이브 구축 사업 추진

"가평군의 숨은 이야기와 명소, 사람들의 삶터 이야기를 발굴하다"

가양주 기록물 책자 편찬 및 배포

10편
미디어 기록물 촬영

일자리 창출

상근 인력	비상근 인력
11명	308명
(2020~2023년)	(코디네이터, 조사원, 진행원 등)

마을축제 홍보 및 지역사회 활성화

구석구석 마을축제 홍보	관광객 유입	특산물 및 전통음식 판매
언론 보도 **10건** 지면 보도 **7건** 홍보 영상 **2건**	약 **800명 이상** 참여 (2021년)	약 **3,000만 원 이상** 매출 달성 (2021년)

성공 포인트

"수상스포츠와 휴양을 넘어 지역관광의 미래 먹거리가 필요했던 가평,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1

급변하는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흐름
(전통주 인식 전환, 소규모 양조장 확산 등)을
빠르고 예민하게 읽어내 신속히 대응

02

가평쌀, 찹쌀, 잣나무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개발 및 확산

03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04

지역 내 가양주 제조 현장을 생생히
취재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등
술 산업 콘텐츠에 대한 전통성 강화

05

공유양조벤처센터의 조성에 앞서
적극적인 시장조사 수행으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 TOP 4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 다빈치

동화 속 세상에서 추억을 쌓다

이탈리아마을 피노키오와 다빈치는 국내 유일한 이탈리아 문화 테마파크이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동화 피노키오와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주요 콘텐츠다. 건물 생김새부터 길에 깔린 돌 하나까지 이탈리아의 모습을 본떠 이국적인 모양을 하고 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멀리 가지 않고 해외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619-1
031-5175-8929

자라섬

자연 속에서 보내는 특별한 시간

선선한 강바람이 불어올 때쯤이면 오색찬란한 옷을 갈아입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로도 유명하다. 평상시에는 캠핑을 위해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좋은 컨디션의 카라반, 오토 캠핑장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명실상부한 문화와 여가 생활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는 곳이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1-1
031-8078-8028

자라섬이화원

서로 다른 것들의 화합

이화원은 '화(和)'를 중심으로 화합·화목·평화·조화를 추구한다. 동양과 서양, 수도권과 지방, 우리 민족과 세계가 추구해야 할 화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한국관과 열대관, 영남과 호남 등 특정 지역의 수목들을 비교하며 즐길 수 있도록 식재해 두었다. 군민들에게 자연생태 체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풍부한 볼거리를 선물한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자라섬로 64
031-580-4633

운악산 출렁다리

운치 있는 암릉의 풍경

운악산 출렁다리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아찔한 흔들다리 아래로 천년고찰 현등사부터 아름다운 계곡은 물론 운악산과 대금산, 호명산 등의 명산들이 이어진다. 눈앞의 절경을 둘러보면 힘듦을 절로 잊게 된다. 출렁다리까지 갈 수 있는 계단은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이용이 부담스럽다면 반대편 야자수매트가 깔린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가평군 현등사길 34
031-580-4634

지질 자원으로 만들어가는 무한한 아이디어

우수사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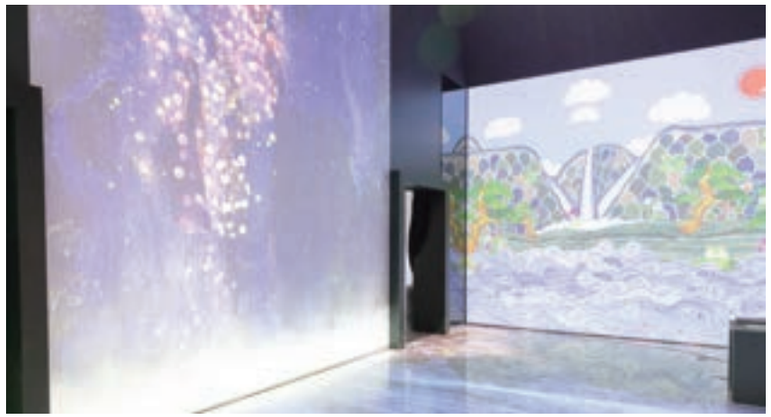
한탄강 지오페스티벌 운영

포천시 한탄강 권역은 무궁무진한 관광 자원을 품고 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축제 및 공연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추진력이 붙었다. 그중에서도 한탄강 지오페스티벌은 포천시 관광 자원의 미래를 표현할 만큼 상징적인 행사다. 지역 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포천시의 행보는 기발함과 꾸준함, 그리고 자신감이었다. 포천 관광의 숨은 보석을 한탄강에서 찾아보았다.

INFO

- **지자체** 경기도 포천시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포괄보조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
- **내역사업명** 지역소득증대





실감형 디지털체험관

포천 관광의 미래를 묻다

우리나라는 '축제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자체마다 대표적인 축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고유한 특산물을 이용한 축제부터 지역의 오랜 역사 자원, 위치와 자연환경의 특성을 살린 축제까지 소재와 형식도 매우 다양하다. 모든 축제가 사랑받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한 번 대중의 뇌리에 박히게 되면 최고의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된다. 이 때문에 축제의 성공적인 정착은 지역 관광 활성화의 필수 과제로 여겨지기도 한다.

포천시는 축제의 소재로 한탄강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택했다. 화산 폭발로 인해 만들어진 용암 지형이라는 점에 착안해 뜨거운 용암의 이미지를 열정적인 음악 장르 'EDM(Electronic Dance Music)'과 연결했다.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로 기획해 점차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한탄강 권역이 품은 천혜의 자연경관 명소를 홍보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천시는 지속적으로 관광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내부순환도로 구축은 포천 관광에 변혁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누구나 쉽게 찾고, 편히 둘러보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한

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 내 조성 중인 실감형 디지털 체험관을 통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볼거리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비둘기낭 폭포'부터 '포천한탄강하늘다리'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좋아할 관광지가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포천시는 한 단계씩 부단히 계단을 오르는 중이다.

바로 앞까지 덮쳐 온 지역 소멸의 위험

포천시 한탄강 권역은 경기북부의 최북단 지역으로 오랫동안 농경을 이어 왔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사격장,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발전이 더딘 지역이었다. 결정적으로 2000년대에는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로 포천시에 약 160만 평의 홍수터가 발생해 약 1,000여 명의 이주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역 소멸의 위험이 점차 현실로 다가왔고 포천시는 이 같은 위기를 '관광'을 통해 극복해내고자 했다.

포천시는 비로소 2009년 '한탄강 상수원보호구역의 단계별 해제'를 신호탄 삼아 한탄강 권역의 숨은 명소와 관광 자원을 발굴하는 데 온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꿈꾸며 보존 및 활용계획을 촘촘히 수립했고 끈기 있게 성과를 향해 달렸다. 포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 전경



천 한탄강 8경 지정, 한탄강 권역 내 5개소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국가지질공원 인증,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모두 그간의 숱한 노력이 맺은 결실이다.

그리고 다음 과제는 귀한 자원들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명소,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알려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포천시는 주민이 직접 주체로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반 성장하는 미래를 그렸다. 2019년에는 한탄강의 활성화 및 지역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한탄강사업소'를 신설해 가속도를 더 붙이기도 했다. 주민 연계 및 협력 사업 발굴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것이다.

더 뜨겁게, 더 돈독하게 '한탄강 지오페스티벌'

2017년부터 개최한 한탄강 지오페스티벌은 포천시가 자신 있게 내놓은 '기막힌 한 수'였다. 관광 자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홍보를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있었기에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를 지향했으며, 포천 한탄강의 명소인 '비둘기낭 폭포'를 배경으로 다양한 행사가 곁들여진 축제로 꾸몄다. 한탄강 지오페스티벌은 그 자체만으로는 불과 며칠 만에 끝나버리는 짧은 행사지만 포천 관광의 브랜드를 만들고 주변 명소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

한탄강 지질공원의 위상 확대	
2015년 12월	**2020년 7월**
우리나라 제7호 국가지질공원 인증 및 고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한탄강 지오페스티벌		
매년 7~8월 중 개최 (2023년 8월 26일~27일)	비둘기낭 폭포 권역 내 한탄강 다목적 광장 활용	뮤직 페스티벌, 캠핑 페스티벌, 과학체험, 푸드트럭, 리버마켓 등 진행



한탄강 전망대

물론 진행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었다. 2019년에 예정됐던 제3회 페스티벌은 모든 준비를 완벽히 마친 상황에서 불과 개최 2일 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인해 전면 취소되는 시련을 겪었다.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시점이었기에 취소가 불가피했지만 수많은 이들의 준비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연이어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2020년에도 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다. 축제의 존속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지점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7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소식은 포천시에 큰 위안이자 소중한 기회로 다가왔다. 포천의 탁월한 관광 자원을 알리는 데 제격이었고, 한탄강을 배경으로 한 지오페스티벌의 가능성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순간이었다.



비둘기낭 폭포 전경

경기도
포천시

2021년까지도 팬데믹으로 인해 쉬어가야 했지만, 마침내 2022년 축제는 '화려한 부활'이라고 해도 손색없는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됐다. 기존의 EDM 뮤직 페스티벌에 '캠핑 페스티벌'이라는 야심 찬 기획을 더했으며, 지질 생태 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한탄강 리버마켓' 운영으로 활력과 생기 넘치는 축제를 완성했다. 메인 공연인 뮤직 페스티벌에는 총 9,8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있었고 축제의 밝은 미래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머무르고 싶은 포천이 되기 위해

포천시는 신규 축제 개발과 아울러 한탄강 권역의 광활한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포천시는 축제를 빼놓더라도 이미 '비둘기낭 폭포'와 '포천한탄강하늘다리' 등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있고, 생태 경관의 보존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무기를 가진 곳이다. 또한 지역 작가 초대 특별전을 열거나 지역 공동체가 합심해 정원을 조성하고 '리버마켓'을 통해 주민 상생을 추구하는 등 참여 문화도 확고히 자리 잡는 중이다. 포천시는 '한탄강 지오페스티벌'을 킬러 콘텐츠로 육성하는 한편 본질이 되는 관광 인프라 개발도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

포천시의 다음 과제는 '머무르는 포천'이 되는 것이었다. 숙박 연계가 활성화되지 않아 당일 여행객들이 특정 장소만 짧게 둘러보고 떠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페스티벌 시기를 고려하여 관내 숙박 업체와 연계한 숙박 관람 패키지를 판매하기도 하고 좀 더 오래 머물러야 하는 '체험' 요소를 강화하는 등 관광 자원 결집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내부순환도로의 조성은 한탄강 권역 일대를 하나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높여줄 메인 사업이다. 편리한 이동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하루 더 머무르고 싶은 포천으로 변혁을 꾀하는 중이다.



한탄강 지오페스티벌1

주민의 힘으로 되살아난 관광, 이제 보답할 차례

'한탄강 지오페스티벌'은 지역 소비 확산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페스티벌의 관람료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했으며, 캠핑 페스티벌에서는 관내 소비를 증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했다. 또한 사전 모집 공고와 심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한 '푸드트럭존'은 한탄강 권역 내 먹거리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응원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요인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직 완성형 축제는 아니지만, 지역과 협업하며 실질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축제로 지속해서 발전할 전망이다.

포천시는 앞으로 체류형 콘텐츠 확대로 포천 관광의 전성기를 열고자 한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포천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캠핑 시설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캠핑과 축제를 긴밀히 연결할 뿐 아니라, 앞서 관내 숙박 업체와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했듯이 지속적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정원사업은 한탄강 권역에 화려한 컬러를 입히는 중대 과제다. 1단계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뤄질 사업을 통해 국가(지방)정원이 완성되면 대규모 야외행사장과 캠핑장까지 한데 묶여 '한탄강 공연캠핑 문화레저 단지'가 마침내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포천시는 300만 평 홍수터에서 숨겨져 있던 아름다운 지질 자원을 발굴·보존하는 데 힘썼고, 광활한 광장을 강렬한 EDM 음악으로 채웠고, 이제 아름다운 정원까지 펼쳐 보이려 한다. 이 모든 것이 함께 공존할 포천의 미래 관광은 이유 있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비둘기낭 폭포'가 품은 신비한 빛깔을 감상하고, 자연의 위용을 느낄 수 있는 '포천한탄강하늘다리'를 힘차게 건너고, 신나는 음악으로 일상의 짐까지 덜어내고 나면 누구나 포천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내 관광이 필요하다면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에서 전시와 실감형 체험을 즐길 수도 있다. 지역 소멸이 우려될 정도로 침체된 곳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한탄강 권역은 무궁한 가능성으로 활기가 넘실대는 중이다.



한탄강 지오페스티벌2



경기도
포천시

핵심성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 건립 및 운영

전시 및 체험 중심 공간(2019년 4월 18일 개관)

- 실감형 영상체험 공간 (디지털 체험관) 조성
- 디지털 콘텐츠 5종 구축
- 한탄강 지질생태 체험관
- 4D 라이딩 영상관

지역 관광 홍보

한탄강 지오페스티벌(EDM 뮤직 페스티벌) 개최

"축제 기간 내 일 방문객 약 2만 명 이상"

- 40대 이하 세대 방문 증가
- 가족 단위 방문객 만족도 상승(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후기 다수)
- 야간 공연에 따른 숙박 체류 여행객 증가

지역 소비 확산

- 페스티벌 관람료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원하여 소비 확대
- 관내 소비(구매)를 증명하는 공정 캠핑 페스티벌 운영

대외 홍보 확대

청년 서포터즈 운영

주변 지역 대학생 — 지역 동호회 회원

- 포천 한탄강 관광자원 인식 개선
- 바이럴 마케팅

성공 포인트

"훌륭한 관광 자원을 갖추었지만 대중 인지도 확대가 필요했던 포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1

자연 자원(한탄강세계지질공원의 용암 지형)을 **훌륭한 문화 자원**(EDM 음악 축제)으로 연결

02

기존 관광콘텐츠 (비둘기낭 폭포, 포천한탄강하늘다리)를 축제의 배경으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콘텐츠와의 융합에 집중**

03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한탄강 권역의 **숨은 관광 자원**(한탄강 8경, 국가지정 문화재 5개소) **발굴에 전력**

04

관광 자원 홍보를 위해 **주민이 함께 참여** (한탄강 리버마켓, 푸드트럭, 지역 작가 초대 특별전 등)**하는 축제 기획**

05

지역 내 숙박 연계 (축제 관람과 숙박을 묶은 패키지 판매) 및 체험, 캠핑 인프라 확대를 통해 오래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경기도
포천시

포천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 TOP 4

산정호수

산속의 커다란 우물

잔잔한 호수는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힘이 있다. 산정호수는 포천의 북쪽에 자리 잡은 명성산 아래에 위치한다. 해발 약 300m의 망봉산과 망무봉이 좌우에 있어 마치 산속의 커다란 우물 같은 모습이다. 수려한 풍경으로 찾는 발길이 늘어나면서 포천의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 호수를 따라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이 잘 조성돼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로411번길 108
0507-1409-6135

서운동산

사진 맛집 나들이 명소

서운동산은 자연 속의 전원휴양지이다. 휴식을 위해 숲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난 요즘, 가족 나들이에 제격이다. 주변으로는 광릉숲과 아름다운 호수를 끼고 있고, 산책로를 따라 아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사진발 좋은 여행지 101'에도 선정되어 각종 CF, 화보, 드라마 등의 촬영 장소로도 이름을 떨쳤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127-3
031-533-9090

포천아트밸리

자연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다

에메랄드빛 호수와 깎아지른 듯한 화강암 절벽이 장관을 이룬다. 자연 속에서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포천아트밸리는 1990년대까지 아무도 찾지 않는 폐채석장이었다. 그러나 자연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많은 이의 노력으로 연간 40만 명이 찾아드는 세계 유일의 폐채석장 업사이클링 관광지가 되었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아트밸리로 234
1668-1035

허브아일랜드

향기로 가득한 허브의 섬

관광농원 허브아일랜드는 허브의 원산지인 지중해의 생활을 테마로 이색적인 볼거리들이 다양하다. 허브아일랜드에서 운영하는 세계 최초의 허브식물 박물관에서는 사계절 내내 허브를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치유와 휴식을 테마로 한 허브힐링센터는 아로마 족욕&마사지 등의 체험도 제공한다. 그 외에도 허브 식단이 마련된 레스토랑 등 오감을 채워주는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947번길 51
031-535-6494

민·군·관의 지혜로
지역의 미래를 개척하다

우수사례명

사방거리
민·군·관으로 通하다

요즘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장교와 장병을 막론하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북 카페에서 독서를 할 수도 있고, 동료 장병과 게임을 즐길 수도 있다. 심지어 스크린야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이용할 수 있다.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일명 사방거리는 최근 마을 정비와 더불어 군 장병쉼터를 건립했다. 이 쉼터를 통해 접경지역이라는 지역 이미지를 쇄신하면서 지역 주민은 물론 장병과 면회객들에게 정서적 안정감도 심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식 고취,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도 함께 거두고 있다.

INFO

-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포괄보조사업** 특수상황지역개발
- **내역사업명** 기초생활기반





장병쉼터 내부

전방의 라스베이거스 사방거리

사방거리는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인제 서화면 천도리와 더불어 대표적인 전방 군부대 지역이다. 화천군은 이 마을에 차원이 다른 장병 여가문화를 만들면서 다른 군부대 지역에도 선한 영향을 주고 있다. 7사단, 15사단 예하 수십 개 부대가 주둔해 있을 만큼 군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군사분계선과 가까워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에 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70~1980년대에는 군 장병들과 면회객들로 특수를 이루었으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전방의 라스베이거스' 또는 '사스베이거스'로 불릴 정도로 인근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었다. 여러 종류의 업소가 130개에 달할 정도로 상권이 활발했으며 한때는 다방과 유흥주점은 물론, 도시에나 있었을 법한 양장점과 양화점도 여러 개 있었다. 군부대가 야외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마을에서 환영식이 펼쳐질 만큼 군과 지역의 유대도 끈끈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군부대 위수지역 확대, 국방개혁2.0에 따른 군부대 해체, 장병들의 소비 패턴 변화 등에 따라 군인들과 면회객들이 관외로 나가는 경우가 잦아졌다. 지역경제의 큰 축이 빠져나갔을 뿐 아니라 도로가 확충되고 승용차가 일상화됨에 따라 지역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군 장병의 평일 외출·외박이 시행되고 있지만,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 등이 외출 기피로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내 여가·문화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산양리 지역경제는 활성화되지 못했고 지역침체를 넘어 지역 소멸의 위기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화천군은 지혜를 발휘했다.

민·군·관이 힘을 합쳐

화천군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통해 한숨 소리 가득했던 산양리를 생기가 돌고 웃음이 가득한 마을로 변화시켰다. 가장 먼저 문화낙후지역인 접경지역의 군인과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향유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이 중요했다. 군 장병과 면회객을 지역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지역의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과 장병이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다. 그래서 퇴근한 장교 및 부사관, 휴가·외출장병과 면회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타지에 나가지 않고도 스포츠와 문화생활을 즐기며 지역 내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산양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진행되었다. 평화지역 거리 조성을 비롯하여 입면 및 내부시설 개선, 쉼터 조성, 전선지중화 등 4개 분야 19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화천군은 2016년 조성된 DMZ스포츠센터(영화관, 체육관) 및 상서 종합문화센터(목욕탕, 헬스장, 탁구장)와 연계하여 다양한 여가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산양리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내부시설 조성을 위해 산양리 인근 군부대 주임원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 장병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장병들이 선호하는 스포츠 시설을 검토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선호도 또한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장병쉼터 전경



접경지역 이미지를 따스하게

시가지 경관개선, 천변 보행공간 정비, 쉼터·포토존 및 야간경관 조성 등을 조성함에 따라 지역주민뿐 아니라 군 장병과 면회객들이 다양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지러이 마을 경관을 훼손하면서 불안감마저 조성했던 전선도 땅 밑으로 모두 묻었다. 그 결과 마을 분위기는 훨씬 차분해졌다. 전방 지역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대전차 방호벽이다. 벽의 밑 부분에 폭약을 설치했다가 유사시에 폭파하여 전차의 진격을 저지하는 장애물이다. 도로 양쪽에 늘어서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화천군은 대전차 방호벽도 레고 모양으로 꾸밈으로써 흉물이 아닌 친근한 이미지의 대전차 방호벽으로 바꾸어 놓았다. 전장 같았던 거리 분위기가 동화 속 거리로 변신한 것이다. 화천군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탁구, 아트서예, 헬스교실, 원예, 요가, 수영교실, 중국어회화, 바리스타, 난타, 노래교실 등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도 이루었다.

장병 쉼터 건립사업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추진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화천읍 신읍리, 사내면 사창리 등 산양리 인근지역의 스크린야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운영 업소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수차례 설득함과 동시에 사업규모를 일부 축소하거나 북카페 및 휴게실을 추가하는 등 내부시설을 조정했고, 민간의 스크린스포츠 수준에 맞춰 이용요금을 책정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였다.



장병쉼터 층별 안내도



산양2리마을회관

전방 지역 새로운 문화, 장병 쉼터

장병 쉼터는 전방 군부대 지역의 여가문화를 바꾸어 놓고 있다. 독서를 할 수 있는 북 카페를 비롯하여 요즘 젊은이들이 즐기는 게임과 실내 야구뿐 아니라 스크린골프까지 즐길 수 있다. 지역주민뿐 아니라 군 장병도 외출이나 체육활동 시간에 스크린야구, 스크린골프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월평균 9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2022년 3월 24일 개관 이후 2023년 5월 16일까지 1만 1,904명의 군 장병 및 지역주민들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스포츠·문화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군 장병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을 통해 민과 군이 상생하고 화합하는 지역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다른 지역에 복무 중인 친구들이 무척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군기가 빠지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군인 본연의 임무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방거리 일대 전경

산양에 다시 볕이 들다

산양리는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사방거리, 웃마산, 아랫마산을 병합하여 '산양리'가 되었다. 6·25전쟁 이후 이곳에서 군 복무를 마친 후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고 해서 사방거리라고 불렸다는 설이 있고, 화천의 최북단인 발골에서부터 장날 상인들이 다음 장으로 산지사방 흩어져 간다고 하여 사방거리란 설도 있다. 한때는 춘천에 비교될 정도로 번성했으나 인구소멸 위기까지 맞았던 산양리였다.

그러나 이제 지역주민이나 장병, 면회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도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카페나 도넛 가게 등 새로운 사업장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내 체류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역 내 소비도 늘어났다. 쉼터 관리 등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됨에 따라 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주변상권도 활성화되었다.



평화지역 거리 조성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DMZ시네마 스포츠센터



장병쉼터 3층 스크린골프장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사방으로 통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사방거리, 전방 군부대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사방으로 전파하며 화천군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산양(山陽)은 산속 양지바른 곳이라는 뜻이다. 한때 비껴갔던 볕(陽)이 다시 산양리를 감싸고 있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지혜와 열정이 볕을 불러들였다. 산양리는 따스함이 가득 느껴지는, 양지바른 곳이 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주요 실적]			
성과(단위)	2020년	2021년	2022년
이용자 수(명)	76,346	97,109	149,348
프로그램 수(개)	22	60	66

[장병쉼터 이용현황(2022년 3월 ~ 2023년 4월)]					
구분	합계	스크린골프연습장	실내 골프연습장	스크린야구연습장	북 카페
이용자 수(명)	11,904	808	853	1,919	8,324
수익금(천 원)	30,747	10,271	2,550	17,926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핵심성과

군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형성



지역 간 문화향유 불균형 해소



군장병 외출 확대 및 면회객 유치

접경지역에 친근하고 따스한 이미지 구축

- 시가지 경관 개선
- 전선 지중화
- 대전차 방호벽 미관 개선
- 보행공간 정비

전방 군부대 지역의 여가문화 혁신

장병 쉼터 개관(2022년 3월 24일)



스크린야구



스크린골프



북카페

월 평균 이용객 **900** 여 명

지역 공동체 활성화



식음료 가게 등 새로운 사업장 지속 신설



유동인구 및 체류 인구의 증가에 따른 소비 활성화



쉼터 관리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성공 포인트

> 군부대 위수지역 확대, 장병들의 소비패턴 변화로
> 지역경제의 큰 축이 흔들렸던 화천,
>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1



군부대 간부와 장병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및 수요 조사를 통해 방향 설정

02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역과 장병의 상생을 위해 타협점 형성

03



도시 미관 개선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 구축 및
여가 인프라 확대

04



주민을 위한 다양한 취미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

05



주민의 생계유지를 최우선하여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

화천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 TOP 4

조경철천문대

별과 꿈이 펼쳐진 밤하늘을 보다

아폴로박사 고성 조경철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천문대다. 박사의 별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지하 1층에 그의 삶에 대한 전시가 마련되어 있다. 광덕산 정상에 위치한 천문대는 맑은 하늘을 배경 삼는다. 육안으로도 선명히 보이는 별들,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화성과 목성 등 우주를 한눈에 담아 간직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천문대길 431
033-818-1929

용화산

신령스러운 산의 경치를 만나보세요

짧은 코스의 등산로를 가뿐히 오르면, 산 정상에서 멋진 전경을 볼 수 있다. 화천과 춘천의 경계에 위치한 용화산에서 산중 용화산성, 산 밑의 용화사와 용흥사를 관람할 수 있다. 용마굴, 장수굴 등 전설을 간직한 기암과 6개의 폭포는 수려한 경관을 보여준다. 또한 용화산의 안개와 구름은 예로부터 화천팔경이라 불리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용암리 일대
033-243-9261

붕어섬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편안히 보내는 휴가

화천강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 춘천댐 담수로 인해 만들어진 작은 섬이다. 자연환경 보존이 잘 되어 있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휴양지로 조성되었다. 싱그러운 수목이 어우러져 훌륭한 풍경을 전하고, 다양한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붕어섬 주변에는 큰입우럭 등 여러 종류의 민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어 낚시터로도 인기가 많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033-440-2575

화천박물관

화천 역사의 깊이를 느끼는 배움터

청동기 시대를 비롯해 철기, 한성백제 시대의 유물이 다량 출토된 화천에서 그 유물과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박물관이다. 선사시대 유물 약 6,000점과 민속생활 모습, 800여 점의 민속자료를 통해 역사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또한 6·25전쟁, 분단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화천 문화유산 이론수업 등 월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337
033-440-2549

변화를 받아들이니 희망의 마을이 되더라

우수사례명

희망을 안고 사는 통일의 길목

강원특별자치도 최북단 도시 고성군. 그중에서도 최북단의 현내면 대진리 일명 신촌마을은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재해복구 집단 거주 마을이다. 통일전망대 길목에 위치한 마을은 금강산관광 사업이 중단된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낙후되었을 뿐 아니라 정주 여건 또한 매우 열악했다. 그러나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마을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으며 주민의 삶의 질도 높아졌다. 통일의 길목 신촌마을은 더 이상 인구소멸 지역이 아니라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마을이 되었다.

INFO

-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포괄보조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 **내역사업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주택 정비 전(왼쪽), 후(오른쪽) 비교 모습

50년 된 노후주택 개량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는 지난 1968년 해일로 인해 발생한 2만 4,000여 명의 이재민 중 일부 주민이 주택복구 사업을 통해 이주함으로써 형성된 마을이다. 주민 대부분이 수십 년 동안 터를 잡고 살아왔으며 월남한 주민들도 많이 있다. 현재 164가구 29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주로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5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약 80%를 차지함으로써 안전사고도 우려될 뿐 아니라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주민불편도 컸다. 이에 고성군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되면서 주택 정비, 안전 확보 및 생활·위생 인프라 기반시설 구축과 마을 환경 개선사업을 펼쳤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사업 초기에는 토착민, 실향민, 해녀 등으로 구성된 마을사람들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경계와 저항이 심했으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주민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다. 마을 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고,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각 개인이 원하는 바도 달랐다. 이러한 갈등 요소를 조율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해 부족에 따른 갈등 관리에 어려움

고성군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추진위원회, 고성군, 한국농어촌공사(영북지사), 전문기관(컨설팅 업체), 자문단으로 구성된 민·관 전문가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계획과 시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성군이 사업의 시행자로 실질적 사업추진 및 관리점검을 담당했다. 또한 고성군에서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영북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준공 등 통합 추진체계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이 진행되고서도 고령 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못 되는 가구 중에서 포기자가 발생했다. 경제적 취약 계층이 많은 마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예산 외에도, 지침상의 사업비 지원 한도 내 주민 자기부담금을 군비 예산으로 충당, 주민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노후가 심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개보수를 못하고 있던 기초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벽체균열 보수, 누수 보강, 창호 교체 등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주택 수리를 완료했다.

정비 완료한 진입로 모습



고령층의 안정과 행복감 증대

초고령화라는 마을 특성에 따라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는 새로운 경제 활동층 유입보다 고령층 안전시설 위주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노인들의 행복감 증대와 안정을 우선했다. 차량 교행이 힘들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 해안진입로를 정비했으며, 주민 통행이 잦은 마을 안길에는 CCTV와 LED 가로등을 설치했다. 또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인해 골목길 외부에 노출되어 있던 취사용 LPG가스 보호 장비도 설치했다. 이외에도 1988년 준공되어 그동안 노후로 인해 방치되어 있던 마을회관 1-2층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마을회의, 행사 등 휴먼케어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사업추진 실적, 성과 및 현황				
주택 정비	경관·안전·위생인프라	마을환경 개선	휴먼케어	역량 강화
• 슬레이트지붕 개량 40호 • 슬레이트 처리 8호 • 주택 보수 53호	• 해안진입도로 526㎡ 정비 • 무선방송장비 160개소 구축 • CCTV 8개소, 가로등 10개소 • LPG보호장비 140개소 설치 • 주차장 359㎡ 정비 • 마을회관 리모델링	• 게시판·안내판 7개소 • 소공원정비 1식 • 진입로 334㎡ 정비	• 장수사진촬영 • 주민워크숍 • 준공백서	• 리더교육 • 주민교육 • 선진지 견학 • 운영지원



리모델링을 마친
마을회관 모습



오랜 세월 마을을 지키고 있는 가게 모습

생활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마을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들을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살게 하겠다는 고성군 공무원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간 것이다. 해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보금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쾌적하게 만들어 주고 싶었다. 한집 두집 지붕개량이 진행되고 이전보다 편리해진 집들을 보면서 노인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렸다. 변화를 두려워하던 마을 사람들이 새롭게 바뀌는 환경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냥 있는 대로 살겠다는 노인네들이 많았지요. 그러다가 지붕도 새로 하고 집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고는 서로 한다고 그랬어요. 많이 좋아졌지요. 특히 예전에는 방송시설이 스피커만 있었는데 이제 녹음도 되고 언제 방송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어서 너무 좋아요"



대진1리 해수욕장 진입로 모습

편리해진 생활 그리고 주민 안전과 통합

주택개량 사업 외에도 마을의 안전과 미관을 위한 사업도 진행했다. 마을 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골목도로의 선형이 불량하고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보행에 많은 지장을 받았으나 우수관 설치 및 아스콘 재포장을 완료함으로써 말끔히 해결했다. 밀집된 마을 구조로 인해 차량 주차가 불편했으나 기존의 임시주차장을 마을 공용 주차장으로 재정비하였으며, 주차장 부지와 연결된 옹벽을 활용, 대진의 명물인 대왕문어를 형상화한 타일벽화를 조성했다. 옹벽 외관도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 인구가 대부분인 작은 마을에는 마을 내 행사나 대소사를 알릴 게시판도 없었다. 마을 주민 간 화합을 위해서도 정보 공유는 매우 중요했다. 이에 주민들의 보행이 잦은 위치에 마을의 주요사안을 알릴 수 있는 게시판도 설치했다. 고성군은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마을개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주민 공동운영 조직을 설립하고 원활한 마을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한 운영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LPG가스 보호 장비 설치 모습



CCTV와 LED 가로등 설치 모습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달라진 마을 모습



대진1리 경로당

소멸위기에서 희망의 터전으로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소통 수단이 늘어나면서 주민들도 더욱 화합하게 되었다. 주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주민 간 대화의 빈도도 높아졌다. 한마을이라는 정체성도 찾게 되었고 자부심도 생겨났다. 변화를 받아들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것이다. 개선된 생활여건은 관광객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여 마을을 찾는 방문객도 늘어나고 있다. 지역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도 고성군의 최북단 관광지인 화진포와 통일전망대 방문객이 경유하는 지역으로서 관광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해수욕장 운영, 유동인구에 대한 귀농·귀어 등 인구 유입 정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을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어나갈 계획이다.

주거환경 개선만으로 단기적인 경제 유발이나 인구 유입의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 후를 대비하더라도 마을의 희망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고성군과 주민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마침 6·25전쟁 이후 70여 년간 단절되었던 강릉~제진 간 철도 건설사업도 2022년 1월 착공되어 현재 제진역 인근 지역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구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대진1리는 제진역과 불과 10여 km 떨어져 있다. 고성군은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큰 희망을 품고 있다. 아파트가 없는 강원특별자치도 최북단 마을, 아담한 대진1리 해수욕장이 있는 통일의 길목, 불리한 지리적 여건과 각종 규제로 인한 불안한 정주여건 때문에 소멸위기에 처해 있던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일명 신촌마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 또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이제는 희망이 살아나고 웃음이 꽃피는 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신촌마을 주거환경 변화

마을 조성	구조보강 필요성 부각	주거환경 개선사업
1968년 해일로 인해 133가구가 집단 이주하면서 형성 슬레이트지붕 위에 함석을 덧씌운 가옥 형태	신축 후 50여 년 경과 자재 부식, 단열 취약 등의 문제 심화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안전 및 위생인프라 확충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핵심성과

주택 정비로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존 슬레이트지붕을 판넬 지붕으로 교체

석면 제거로 주민 건강 위협요소 감소

마을 미관 개선

단열 성능 강화

생활 기반시설 정비로 정주여건 개선

160 개소
주택 내 수신시스템 구축

140 개소
외부 LPG가스 보호장비 설치

휴먼케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호응 확대

장수사진 촬영	선진지 견학	바리스타 및 제과제빵 교육	준공백서 제작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영정사진 촬영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찾고 공유하는 대화의 장 마련	주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7회에 걸쳐 실시	마을의 역사 및 변화된 모습을 담아 홍보 기록물로 활용

지속 가능성 확보

사업 종료 후에도 마을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해 효율적 방안 지속적 탐색

운영 주체, 활성화 여부, 부진 사유, 안전 확인 등 예방 차원의 종합적 점검

성공 포인트

"인구 초고령화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했던 고성,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1

민·관의 전문가들이 한데 힘을 합쳐 **끈끈한 협력 체계 구축**

02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계획과 시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유연성 부여**

03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최우선하여 지속적인 설득과 공감대 형성

04

마을 내 눈에 잘 띄는 게시판을 설치하여 노인층에게 마을의 주요 현안 공유 및 결속감 확대

05

주민 간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소통 확산 및 마을 운영에 대한 추진력 부여**

고성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 TOP 4

DMZ박물관

비극의 공간에서 태어난 평화의 상징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에 건립한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다. 휴전선이 갖는 역사의 의미와 단절의 아픔,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생태환경 등을 전시물로 구성했다. 과거에는 비극의 공간으로 기능했으나 얼어붙은 땅에 평화의 기운이 깃들기 시작했다. 과거 전쟁의 참혹한 현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생명이 태동하는 평화의 땅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로 369
033-681-0625

하늬라벤더팜

향긋함이 맴도는 관광농원

매년 6월이 되면 라벤더가 세상을 보랏빛으로 물들인다. 빛깔뿐만 아니라 머금은 향기도 일품이다. 라벤더팜은 마치 유럽의 작은 마을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라벤더 농장이다. 축제 기간에는 향수나 향기주머니, 비누 만들기 체험이 가능하고 향기음악회와 같은 문화공연도 즐길 수 있다. 라벤더길로 들어서면 포토존을 마련해두어 인생사진을 남길 수도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꽃대마을길 175
033-681-0005

대진항수산시장

시장에서 만나는 정겨움

시장이 있는 곳엔 사람이 몰려들어 활기가 넘친다. 대진항수산시장은 우리나라 최북단 자연산 수산시장이다. 어부들이 잡은 고기를 판매하는 공판장이 있고, 어판장과 창고를 지나면 싱싱한 횟감을 파는 수산시장도 있다. 횟집이 모여 있어 즉석에서 회를 떠서 먹을 수도 있다. 고성의 관광명소들과 가까우며 바다를 보며 식사도 가능하니 눈과 입이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147
033-682-2050

화진포

그림 같은 호숫가를 거닐다

자연풍광이 수려하고 송림이 우거진 곳이며, 여름이면 해당화가 호수를 따라 피어 화진포라 불리게 되었다. 인적이 드문 겨울에는 고니와 청둥오리 등 철새가 날아들어 장관을 이룬다. 바다와 연접하여 민물과 바닷물이 경계 없이 흐르고 생태계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호수 둘레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는 10km에 달해 하루 정도 시간을 들여 여유롭게 둘러보면 좋을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일대
033-680-3352

충청북도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 광장 조성으로 살맛나는 영동군

우수사례명

주민공동체 문화와 축제의 중심, 힐링타운 광장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 갈라지는 곳에 있어 어느 곳에서나 아름다운 능선을 감상할 수 있는 충청북도 영동군.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곳이지만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은 여느 농촌 지역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큰 날개를 달고자 하는 영동군의 노력은 남달랐다. 영동군만의 고유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군민들의 정주여건까지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영동군이 꿈꾸는 밝은 미래,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광장을 통해 들여다보자.

INFO

- **지자체** 충청북도 영동군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포괄보조사업** 성장촉진 지역개발
- **내역사업명** 지역개발지원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광장 조성 현황

구분	내용
달빛폭포	천연 암벽과 달 조형물 활용
워터스퀘어	축제 공간이자 평상시 물을 채워 관광객 유치
경관폭포	광장 입구의 인공폭포
회랑	기존 암반 지역을 활용하여 174m 규모 자랑
주차장	회랑을 통해 광장으로 진입 가능

관광 거점 조성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서다

우리나라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한 충청북도 영동군은 탁월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한다. 충청북도에서 가장 기온이 따뜻하고 일조량이 많아 예로부터 '과일의 고장'으로 불렸다. 특히 영동군은 전국 제일의 포도 주산지로 유명하다. 영동군의 포도 생산량은 전국의 8%, 충청북도 내 76% 정도를 차지한다. 포도와 연계한 와인 산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악의 3대 악성 중 한 사람인 난계 박연 선생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뛰어난 관광 자원을 가진 영동군도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서 쉽사리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그 여파는 과수 산업에도 영향을 주었다. 해외 포도 수입량이 급증하며 농가의 총소득액이 줄어드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 현상까지 겹쳤다. 농가수 및 재배 면적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포도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쌓아 올린 주산지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어려운 실정 속에서도 영동군은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그중 하나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이다. 영동군 관광 거점을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소멸 및 유출을 방지하자는 전략이었다. 지역의 모든 특화 자원을 녹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곳은 중부권 최대 체류형 관광지를 목표로 한 것이다.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영동군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의 랜드마크, 광장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의 메인 콘셉트는 '지역 자원을 매개로 체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복합 치유 공간'이다. 신체적 치유만을 경험할 수 있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다. 영동군의 전통과 자연, 건강한 먹거리, 문화와 예술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획기적인 관광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광장은 문화와 예술 분야에 주목한다. 광장 조성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직접 교류하는 문화와 소통의 장을 구현하는 것이다. 영동군은 포도 축제, 난계 국악 축제, 와인 축제, 곶감 축제와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4대 축제를 개최한다. 따라서 축제 업무를 전담하는 영동축제관광재단과 각 축제 주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최 장소를 광장으로 변경했다.

하늘에서 바라본 광장의 야경



충청북도
영동군

두 번째 목표는 사방이 다른 지역으로 둘러싸인 내륙 도시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영동군 주민들은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타 지역으로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장에 워터스퀘어, 바닥분수, 회랑, 캐스케이드 등을 활용한 수경 공간을 마련했다. 주민들은 멀리까지 가지 않고도 가까이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얻게 된 것이다.

광장 조성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와 군비를 포함한 137억 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영동군은 열악한 군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으로 광장 조성을 신청했다.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과 지역개발사업구역 고시를 통해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 착공 및 준공으로 이어지는 광장 조성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했다. 아울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영동군과 민간 개발이 힘을 합쳐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추진 위원회를 설치했다. 중요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밟아 여론을 수렴했다.





물놀이장 운영 모습



바닥분수가 아름다운 야간 전경

지역 경제와 주민, 둘 다 웃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는 선(先) 공공부문 개발, 후(後)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되었다. 공공시설은 광장을 비롯하여 영동문화예술회관, 영동와인터널, 과일나라테마공원 등이 있다. 이러한 공공시설 부문의 개발에 힘입어 1,000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 유치에 성공했다. 모두 7개의 지구로 구분하여 지구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했다. 광장은 영동군의 문화·예술·이벤트가 결합된 복합 공간 '영동문화예술 존(Zone)'에 해당한다.

광장은 국내 유일의 축제 전용 공간이다. 비록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2021년 기간 동안 4대 축제 개최와 물놀이장 운영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2022년 비로소 영동군이 꿈꿔왔던 청사진을 현실화할 수 있었다. 포도 축제(8월), 난계 국악 축제(10월), 와인 축제(10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공사 중 모습

충청북도 영동군



물놀이장 운영 모습



회랑으로 향하는 이동로 모습

월)를 개최하여 농촌 축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의 단체 관광객 위주의 행사에서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방문할 수 있는 가족 중심 축제로의 전환이 일어났다.

7월 한 달간 광장에서 운영한 물놀이장 역시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냈다. 국내 최장형 거울형 분수를 활용한 야외 물놀이장은 운영 기간 중 10,240명이 방문했다. 영동군의 인구가 약 46,000명인 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낸 셈이다. 대전, 세종, 김천, 구미 등 인근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관광객들도 찾아오면서 광장의 물놀이장 운영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웃음꽃이 활짝 피어난 것은 관광 분야뿐만이 아니었다. 광장은 영동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교두보가 되었다. 4대 축제 개최에 무려 31만 5천 명이 방문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전통시장, 외식업조합, 청년상인,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지역 상권과 연계하여 주민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직접적인 교류가 성사된 것이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

'4대 축제 개최와 동시에 사계절 활용 가능한 광장을 조성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에 빠져 있던 영동군은 국내외 사례를 연구하고 실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했다. 내륙 도시의 한계에 정면으로 맞서 역발상으로 물이 있는 광장을 구상했다. 마침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순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렸다.



기존 암반 지역을 활용한 회랑의 모습

광장의 차별화된 특징은 잔디밭이 아닌 돌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미 과수 분양 및 수확을 체험할 수 있는 과일나라테마공원에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색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그러나 전국에 유사한 사례가 없어 사업 조성 계획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영동군은 돌 광장의 유일한 모델이 존재하는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섬 테네리페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이렇듯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광장은 영동군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얻어낸 결실이다. 그 결과 2022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워크숍이 영동군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청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등 농촌의 문화 격차와 소외를 뛰어넘은 균형발전의 모범사례로 거듭난 것이다.

대표 농촌관광지로 우뚝 설 날을 향해

영동군은 광장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4대 축제와 광장 물놀이장을 계획하고 있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영동군만의 특성을 살린 관광 브랜드 '풍류영동'을 통해 농촌 관광지의 흥과 멋, 깨끗한 자연환경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4대 축제를 비롯한 각 사업별 매뉴얼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일관성 있는 광장 운영을 꾸려나갈 방침이다. 영동군의 목표는 뚜렷하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의 하드웨어 역할을 담당하는 광장을 단순한 관광 시설이 아닌 지역 주민과 영동군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관광 수요를 창출하며 생활 인구가 늘어나는, 살맛나는 영동군이 되기를 바란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7개의 레인보우 지구

구분	차별화 전략
영동문화예술 존	영동군의 문화·예술·이벤트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
일라이트 휴양 존	신비의 광물 일라이트를 활용한 색다른 힐링 공간
휴양 숙박 존	빼어난 자연 경관, 감성적 편안함으로 온전한 쉼 제공
상업판매 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교류하는 화합의 공간
과일나라 존	생명력과 즐거움이 가득한 가족 체험 공간
운동레져 존	농촌에서 즐기는 즐거운 레포츠
와인테마 존	영동군의 특산물 포도, 와인의 정체성 반영



광장의 야경

충청북도
영동군

핵심성과

보유 자원 개발 및 활용

- 영동군만의 전통, 자연, 먹거리 바탕으로 개성 확립
- 최근 관광 트렌드 '힐링' 요소 접목
- 농촌 체험 활동 강화 및 숙박 시설 증대로 체류형 관광지 전환

민간 자본 유치

- **선(先) 공공부문 개발, 후(後) 민간투자 방식**
- **1,000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 유치에 성공
- **골프장, 호텔, 콘도 조성 추진**

전국 유일의 축제 전용 광장

총 31만 5천 명 방문 집계

- 2022년 8월 포도 축제
- 2022년 10월 난계 국악 축제
- 2022년 10월 와인 축제

야외 물놀이장 운영

2022년 7월 운영 총 10,240명 방문 집계

- 국내 최장형 거울형 분수 활용
- 물이 없는 내륙도시의 한계 극복
- 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 기여

성공 포인트

"인구 소멸 및 과수 산업 위기로 타개책이 필요했던 영동,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1

단순한 관광 시설이 아닌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까지 **동시에 고려한 사업 계획 제시**

02

서울·부산에서 약 2시간 30분 소요,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활용**

03

열악한 군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광장 조성 신청에 집중**

04

지역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부족과 결핍 도출 결과 **전국에 유사 사례가 없는 돌 광장 조성**

05

영동축제관광재단, 4대 축제 주관 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영동군 4대 축제의 개최 장소를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광장으로 집결 노력**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군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 TOP 4

월류봉

달과 함께 걷는 둘레길

'달이 머물다 가는 봉우리'라는 뜻의 월류봉은 이름처럼 아름다운 달밤의 경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뛰어난 경치를 이루는 월류봉의 여덟 경승지를 한천팔경이라 부른다고 전해진다. 산 아래로 흐르는 맑은 초강천과 밤에 비치는 달빛이 근사함을 더한다. 봉우리와 강을 감상할 수 있는 둘레길을 걸으면 한적하지만 우아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원촌리
043-740-3214

영동와인터널

오감이 즐거운 와인의 품격을 느끼다

영동와인터널은 영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다. 와인의 역사를 보여주는 와인문화관, 영동농가에서 생산해 의미 있는 와인을 전시하는 영동와인관, 각 나라의 특색 있는 와인을 소개하는 세계와인관 등 다양한 문화 시설이 꾸려져 있다. 와인체험관에서는 시음이 가능하며 와인 음식도 함께 곁들일 수 있어 풍부한 맛의 향연을 느낄 수 있다.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영동힐링로 30
0507-1342-3636

옥계폭포

찬탄이 터져 나오는 수려한 절경

박연폭포라고도 불리는 옥계폭포는 깎아놓은 듯한 절벽과 아름다운 경관이 어우러져 절경을 보여준다. 난계 박연이 매료된 폭포수는 옛 문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가져다주었다고 한다. 옥계폭포는 다른 폭포와 달리 바위 위가 아닌 바위의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흐른다.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와 잔잔한 하단의 냇가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산75-1
043-740-3215

반야사

불법을 옹호하는 산신령, 호랑이가 있는 곳

반야사는 동북쪽에 솟아있는 백화산 계곡의 큰 연못에 살던 용을 몰아내고 연못을 메워 사찰을 지었다는 설화가 구전된다. 수천 년 동안 흘러내린 돌무더기가 주변의 나무들과 경계를 이루며 만들어 낸 호랑이 형상 때문에, 호랑이가 지키는 절로도 알려져 있다. 대웅전, 극락전, 삼층석탑과 같은 건축물과 두 그루의 배롱나무를 눈에 담을 수 있다.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백화산로 652
043-742-4199

오직 청년을 위한 실험 공간, 활기 넘치는 괴산 몽도래언덕

우수사례명

젊은이들이 꿈을 그리러 오는 언덕, 몽(夢)도래언덕 조성사업

유휴공간을 활용, 지역의 랜드마크로 성공시킨 곳이 있다. 괴산 '몽(夢)도래언덕'이다. 몽도래언덕은 젊은이들이 꿈을 그리러 오는 언덕이라는 뜻이다.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몽도래언덕은 일자리 창출 및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핫플레이스가 됐다. 오랫동안 방치된 농협양곡창고와 모텔, 새마을공원 등 폐시설을 활용한 몽도래언덕 조성사업은 청년층 수용을 위한 시설 정비 및 젊은 문화 확산, 청년층의 괴산군 정착을 유도하는 매개이기도 하다.

INFO

- **지자체** 충청북도 괴산군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포괄보조사업** 성장촉진지역개발
- **내역사업명** 지역개발지원





몽도래언덕 벽화 조성 모습

청년의 꿈을 펼칠 꿈틀이

한반도의 중심인 충청북도, 그 충북의 중심부에 괴산군이 위치한다. 지리적 중심인 까닭에 전국에서 접근이 용이해 보이지만,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에 인접해 내륙 산악지역이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지역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곳이다. 점점 낙후되어 가는 괴산은 인구감소율도 높아져 인구소멸지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괴산읍의 오랫동안 방치된 농협양곡창고, 모텔 등의 폐시설과 농산물유통센터는 유휴공간 집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슬럼화 우려 지역이 되면서 공간 재생이 절실한 곳이었다. 낙후시설을 비롯한 우려 지역에 대한 변신의 필요성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을 이끌어 냈다.

반면, 괴산군에는 중원대학교와 육군학생군사학교가 소재한 관계로 1만여 명의 20대 청년 상주인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 플랫폼 도입, 젊은 문화를 확산할 공간 도입 등 청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또한 지역 특성상 생산 비중이 높은 농산물의 활용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숙제였다.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청년문화가 뿌리내릴 공간이 없다는 것이 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원인이었다.

지역의 슬럼화 현상을 초래하는 폐시설의 리모델링과 젊은 청년들의 정주를 견인할 공간 마련의 필요성이 결합하여 탄생한 것이 '몽(夢)도래언덕' 조성사업이다. 괴산군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핫플레이스 조성에 착수했다. 괴산읍 동부리 일원의 농협양곡창고, 궁전모텔, 새마을공원 등 폐공간들이 변신의 대상이 되었다.

내륙산악지역, 청년을 유혹하다

몽도래언덕은 '농협양곡창고를 개조해 카페를 만들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자. 그리고 이곳을 청년들의 거점 공간으로 삼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문화단체, 기획단체, 주민 자치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맺었다. 이후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과 협의체를 마련하고 방향을 설정해 사업의 구도를 잡아 발주했다. '몽(夢)도래언덕' 조성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몽도래(夢圖來)'는 '젊은이들이 꿈을 그리러 오는 공간'으로, 괴산의 '몽마르트르'적 지향이었다. 즉 괴산에서 청년들이 창작과 예술을 꿈꾼다는 의미다. 그런 언덕을 만들기 위해 민·관·학이 뭉쳤다. 괴산군과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의 창업 청년 선배 등 모두 괴산 몽마르트르를 꿈꾸며 머리를 맞댄 것이다.

주요사업 개요		
사업명	위치	내용
콘서트그라운드	농협창고	소극장, 카페, 전시 시설
팹랩그라운드	궁전모텔	창업보육센터, 공연연습장 및 세트장, 게스트하우스
플레이그라운드	새마을공원	공원 경관 조성, 야간 경관조명 설치
지역역량강화	괴산읍 일원	창업지원프로그램 지원, 홍보마케팅 실시, 상시 공연프로그램 운영

사업 성공을 위한 홍보 활동			
청년층 대상		지역주민 대상	
청년층의 관심사를 주제로 한 '청년창업 콘서트' 개최	몽도래언덕 서포터즈 모집(괴산군, 중원대학교, 육군학생군사학교 연계)	매월 발간하는 괴산군 군정소식지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방법 홍보	사업설명회 및 중간보고 실시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및 적극적 참여 유도

충청북도
괴산군

몽도래언덕 조성사업은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추진됐다. 하드웨어 부분은 괴산군 동부리 일원의 농협양곡창고, 궁전모텔, 새마을공원과 농산물유통센터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및 정비 과정으로 진행됐다. 폐시설이었던 유휴공간은 콘서트그라운드, 팹랩그라운드(스타트업파크), 플레이그라운드로 변모했다. 이 하드웨어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궤도에 올려줄 소프트웨어는 크게 창업지원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상시공연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문화를 조성하는 '젊은 문화', 청년 일터를 활성화한 '젊은 일터', 유기농산업을 업그레이드한 '유기농'을 사업 콘셉트로 잡았다.

한편 사업 추진 단계에서 돌발상황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특히 유휴시설의 활용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하는데, 몽(夢)도래언덕 조성사업이 그러했다. 예컨대 콘서트그라운드(농협양곡창고) 리모델링 시 오랫동안 방치된 노후건물에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점, 팹랩그라운드(궁전모텔)는 건물의 특성상 현 용도로 리모델링하기에 최적화된 공간 배치가 어려웠다는 점 등이다. 이런 현상은 공사를 지연시켰을 뿐 아니라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동력도 떨어뜨렸다. 하지만 새옹지마라고 했던가. 조금 더 돌아가는 대신 좀 더 완성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향후 거점 공간이 될 건물에 대한 안전성 체크와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 과정은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한층 더 일깨웠다. 다양한 콘텐츠를 양산하는 계기도 됐다. 꿈을 그리러 오는 청년들의 '몽마르트르'적 사고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공간을 채우며 함께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카페 몽도래 외관



카페 몽도래 내부

마방터, 몽도래언덕으로 변신하다

조선 시대 서울에서 영남으로 오가는 길목에 위치한 몽도래언덕은 마방터였다. 그 마방터가 지금 지역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난 것이다. '몽도래 스타트업 파크'로 변신한 구)궁전모텔은 5층 건물로 괴산읍내와 동진천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치해 괴산 최고의 뷰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몽도래언덕은 팹랩그라운드와 콘서트그라운드, 플레이그라운드 등이 트라이앵글 구조로 동진천을 앞에 두고 괴산군의 수려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공간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몽도래언덕은 괴산읍의 주요 거점을 두루 통하는 결절지이며,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다는 점 또한 장점이다. 유휴공간의 탈바꿈은 과거 공간이 가졌던 특별한 스토리와 이를 활용할 청년들의 스토리까지 더하고 있다. 이는 과거 공간의 현재성 확보와 함께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간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충청북도
괴산군



몽도래스타트업파크

몽도래언덕은 콘서트그라운드, 팹랩그라운드(스타트업파크), 플레이그라운드로 구성되었다. 새롭게 변신한 공간의 구체적인 시설과 활용도를 살펴보자. 첫째, 콘서트그라운드는 농협양곡창고가 '카페 몽도래'와 공연·전시장으로 각각 탈바꿈한 곳으로, 주요시설은 스튜디오 카페와 소극장이다. 스튜디오 카페는 전문 스튜디오와 일반적인 상업공간(cafe)이 결합된 비즈니스모델로, 창고형 카페와 같은 개방적 공간계획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현재 중원대학교와 지역 예술가들이 연계한 소극장과 카페로 활용 중이다. 연극, 뮤지컬, 영화 등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지는 문화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팹랩그라운드(스타트업파크)는 궁전모텔을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재구성한 곳으로, 청년들의 창업역량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공간이다. 현재 공유오피스 6실 중 5실을 기업이 임대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이곳은 지자체와 중원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취업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청년들은 물론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몽도래스타트업파크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공유오피스, 게스트하우스, 동아리 연습장 등으로 구성돼 괴산군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셋째, 플레이그라운드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되었는데 다양한 야외 소공연 및 전시를 수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유기농 야외콘서트와 청년창업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콘테스트도 개최하고 있다.



괴산 기념품 판매모습

몽도래언덕에서 괴산군의 다양한 사업들이 이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지역 역량강화 사업으로 '괴산에서 60일 살기', 3주 만에 로컬 크리에이터 되기의 '괴산이유', 청소년 비즈스쿨 창업, 푸드 테라피 지도자 양성과정 교육, 라이프 커머스 공동체 구성, 아이디어 공모전인 '자, 괴산으로 가보자GO' '커피바리스타 교육'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그램 '괴산이유' 또한 인기 프로그램이다. 2022년 117명이 참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은 몽도래언덕 공간 조성 이후 더욱 활기를 띄고 있다

이 사업의 성공적 요인은 민·관·학의 거버넌스 구조에 의한 유기적 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원대학교와 연계한 창업 교육 및 일자리 교육을 청년과 시니어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이 지역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스타트업파크의 다양한 교육은 지역에 활력은 물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냈다. 젊은 문화와 유기농산업의 결합을 위한 허브공간 조성 또한 생활문화 공간 확충으로 주민 간 커뮤니티 형성을 활성화했다. 괴산군은 몽도래언덕을 조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활성화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몽도래언덕은 지역 내외 청년들의 문화, 경제, 사회 활동을 다양하게 수용하는 거점지구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혁신성과 지속성을 확보했다.

몽도래언덕, 괴테를 만나다

괴산 몽도래언덕은 서울에서 영남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몽도래언덕 위로 중원대학교가 자리하며, 그 위로 육군학생군사학교, 대제산업단지가 위치한다. 몽도래언덕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면 괴산 전통시장이 나온다. 몽도래언덕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산업단지가 괴산읍으로 연결되고 있다. 몽도래언덕은 인문지리적으로 유동인구의 통로이자 중심에 자리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계층의 문화가 이합집산하여 교류와 발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아가 젊은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소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몽도래언덕은 '괴테'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괴테는 괴산의 테마여행이다. 몽도래언덕에서 괴테를 만나는 방법은 다양하다. 우선, 괴산 테마의 중심은 청년문화이다. 청년과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테마다. 다양한 청년문화가 자유롭게 펼쳐지고 있는 이곳에서, 청년 창업 선배가 알려주는 창업 프로그램과 경험은 인생 여정에서 중요한 가이드이자 산교육이 될 것이다. 결국 여행은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다. 이 지역에서 청년이 무엇을 하며 정주할 수 있는지, 혹은 청년이 즐기면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왜 그러한 분야가 매력이 있는지 등을 함께 체험해보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다. 괴산에서 괴테와의 접속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몽도래언덕에서 지역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도 주목해볼만 하다. 그 일환으로 중원대학교 교수의 정규 수업이 몽도래언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틀을 깬 수업, 즉 캠퍼스 밖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 과정은 그만큼 자유롭다. 자유로운 토론과 함께 즐기면서 하는 수업은 매우 특별한 장면이다. 이제 '몽도래언덕'은 괴산의 랜드마크로 그 위상을 확보했다. 이곳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문화가 활성화되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몽도래언덕의 문화적·경제적 다양성이다. 이는 몽도래언덕이 단순한 장소로서의 가치만을 지닌 것이 아닌, 지역의 진정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공간임을 증명한다. 괴산 몽도래언덕은 꿈을 그리러 오는 젊은이를 환영한다. 꿈을 그리고 꿈을 펼치고 싶은 청년들의 발길을 기다린다.

몽도래언덕 벽화 조성 모습



충청북도
괴산군

핵심성과

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개요(2022년)

청소년 비즈쿨 창업교육	커피바리스타교육 및 카페운영교육	청년기업가정신스타트업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창업경진대회
10명	20명	20명	25명
로컬투어 및 크리에이터 교육	**라이브커머스 공동체 구성 및 교육**	**유기농푸드 테라피 지도자 양성교육**	**프로그램 특강**
25명	18명	16명	10명

방치된 폐시설을 핫플레이스로 탈바꿈

농협창고

공연 공간을 통해
문화생산기지 구축

궁전모텔

청년들의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공간 조성

농산물유통센터 주차장

다양한 야외공연 및
전시를 수용하는
복합공간으로 공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우선 고용

카페 청년 + 시니어
괴산형 컬래버 일자리 창출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몽도래 청년창업센터

성공 포인트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유휴시설의 효과적인 재생이 필요했던 괴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1

폐시설의 리모델링으로
지역 청년들을 위한 공간 구축

02

지역 문화단체, 기획단체,
주민자지단체와 **컨소시엄 결성**

03

노후건물 리모델링 시
안전을 최우선하여 진행

04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확고한 방향 설정

05

콘텐츠 양산을 위해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 TOP 4

쌍곡계곡

아홉 가지 색깔을 지닌 물줄기의 향연

기암절벽과 소나무의 조화로 괴산 8경 중 하나로 꼽히는 쌍곡계곡은 보배산, 군자산, 비학산에 둘러싸여 있다. 계곡에 흐르는 맑은 물과 주변의 바위는 절경을 이룬다. 9개의 곡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구곡은 서로 다른 매력으로 계곡의 특색을 더한다. 소금강, 장암 등 넓은 계곡이 선사하는 명소들은 사계절 내내 자연의 다채로움을 선물한다.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쌍곡리 85-7
043-830-3457

수옥폭포

벼락같은 폭포수가 장관을 이루는 곳

3단 계단 형식으로 이루어진 수옥폭포는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풍경을 전달한다. 상류의 두 곳은 깊은 웅덩이를 이루고, 주변의 푸른빛 산림은 아름다움을 부각시킨다. 1960년 복원된 폭포 근처 정자 수옥정에서는 경치를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단원 김홍도가 즐겨 찾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많은 사극의 촬영지로 사랑받고 있다.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일대
043-830-3604

산막이옛길

짙은 녹음을 감상하며 옮기는 발걸음

산골마을인 산막이 마을까지 연결되었던 옛길을 복원한 산책로다. 복원 과정에서 친환경 공법을 사용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생한 자연을 그대로 보여준다. 좌우로 펼쳐진 괴산호를 볼 수 있는 망세루, 괴산호를 내려다보며 한눈에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꾀꼬리전망대, 연인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연리지 나무 등 26개의 빼어난 명소가 산책로를 구성한다.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 546-1
043-832-3527

문광양곡저수지 은행나무길

산책로를 따라 펼쳐진 노란 물결

문광저수지에서 최고의 시간과 장소는 은행나무가 물드는 가을에 만나는 양곡은행나무길이다. 저수지를 따라 길게 은행나무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맑은 날이면 노란 빛살 사이를 지나가는 신비함도 느낄 수 있다. 축제와 함께 시작하는 풍성한 은행나무길의 가을을 느껴보면 좋겠다.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67-13(주차장)
043-830-2513

주민 화합과 마을 재생으로 거둔 빛나는 성과

대통령 표창

우수사례명

사랑해유 함께해유 송악마을공간 “해유”

아산 송악마을은 에코 뮤지엄 기행작가인 오하라 가즈오키의 ‘마을은 보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제목이 어울리는 마을이다. 송악마을은 사람이 보물이고 그 귀한 사람들이 가득 찬 보고(寶庫)다. 마을을 통해 개인의 존재감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곳이다. 이곳은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그래서 모두 뭔가를 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의 빈 곳을 채워가는 것이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 조밀하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마을이다. 송악마을공간 ‘해유’를 통해 만난 조그만 이 시골마을은 저마다 뭔가를 하고 싶어 들썩이고 있다. 누구나 꿈꾸고 싶은 마을, 송악마을은 바로 그런 곳이다.

INFO

- **지자체** 충청남도 아산시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포괄보조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 **내역사업명**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소통협력사업으로 진행한 선진지 견학 모습

마을 공유자산을 확보하라!

아산시 송악(松岳)은 산촌마을로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아름다운 청정 농촌마을이다. 송악은 충청남도 아산시 최남단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대부분 산지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으로 각종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이었다. 변화가 적어 발전이 더딘 까닭에 '낙후지역'으로 구분됐다. 주지하다시피 생기를 잃은 마을은 쇠락의 속도도 빠르다. 과거 송악면도 예외는 아니었다. 면 소재지의 거산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했고, 마을은 공가와 폐가가 증가했다. '인구소멸' 및 '고령화'와 '지역소멸'이란 악순환의 고리가 지역민들에게 각인되었다. 비어 있는 만큼 활력소가 충전되어야 했다. 변화를 시도하고 이를 주도할 기획자가 필요했다. 이에 송악면은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면 소재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지역까지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빈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송악동네사람들' 사회적기업을 구축한 것이다. 2011년 송악면은 송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착수했다. '사랑해유 함께해유 송악마을공간 <해유>'를 위한 서막이 시작된 것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돌발상황도 나타났다. 전통문화예절센터로 설계한 공간 50평이 너무 협소하다며 확장을 요구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설계를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건설회사가 부도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공사가 중단됐고, 추가 비용 문제, 공사 기간 지연 등 변수에 대처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닥쳤다. 다행히 정년을 앞둔 현장소장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때부터 공사가 다시 진행되어 무난히 마무리됐다.

송악은 대부분의 농산어촌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인구소멸, 고령화, 지역소멸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하나씩 구체화하며 그 해결점을 찾는 것부터 시작했다. 각각의 공동체를 구축하면서 이를 실현해 나간 것이다. 인구소멸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마을교육네트워크로, 고령화는 마을돌봄공동체에서 '돌봄코디네이터'를 추진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또 지역소멸에 맞서 마을협동경제공동체를 통한 마을공유경제를 확보했다. 3개의 큰 축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는 '마을공간 해유'를 통해 인구 유입 요인을 발굴, 특화를 통해 마을 발전의 근본적이면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했다. 민·관·학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진행된 사업이었으나, 관의 주도가 아닌 주민들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운영과 결속으로 진행된 결과였다. 2021년 송악면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며 마을만들기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고,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마을자치동아리 운영 모습



다채롭고 다양한 마을의 향기

송악마을 '해유'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성과의 집합체다. 또한 현재 진행형이다. 송악마을 조성에 있어서 하드웨어 부분은 송악마을공간 해유, 커뮤니티센터1·2관, 무선마을공지사항 방송시설 설치, 교량 보수, 쉼터 조성, 상수도 및 구거 정비, 중심가로 경관개선, 문패 설치,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을 들 수 있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주민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이루어졌다. 파급효과는 무궁무진했다.

송악면 종합정비사업으로 건립된 '송악마을공간 해유'는 송악면 주민들의 거점 공간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송악동네사람들'이 아산시로부터 위탁 받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공모사업 등을 진행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학습을 통한 송악마을 공동체 기반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나아가 마을소통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교류협력사업, 마을공통체네트워크사업, 마을학당, 마을학습회 및 세미나, 마을활동가 워크숍, 마을온라인소통사업, 마을공동체활성화 소규모 동아리사업, 마을비전포럼, 송악놀장, 송악마을 예술제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송악지역 주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하고 공동체 형성과 지속 가능한 마을 순환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세대공감 마을학교도 운영 중이다. 새싹예술학교, 마을인생학교, 청정프로젝트, 자원순환마을학교 등을 비롯한 총 14개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놀다가게 운영 모습



마을자치동아리 운영 모습

송악의 '해유'는 아산시 지역역량 활성화에 힘쓴 모범사례다. 마을만들기 아산대회, 농촌현장포럼, 마을기자단육성 및 신문 발행 등 일반 농산어촌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한 점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의 활력 감소와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농촌 실정에서, 공동체 운영을 활성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 과정에서 자발적인 주민 참여와 주민 리더 육성 등은 미래지향적인 요건이었다. 이는 사업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마을 발전을 견인하는 주민 자립의 중요한 동력 요소이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 우리, '사랑해유 함께해유'

'송악마을공간 해유'는 매년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다. 농촌중심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된 '해유'는 '사랑해유 함께해유'라는 슬로건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교



송악놀장 운영 모습

충청남도 아산시

육공간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곳이다. 송악마을공간 해유는 마을공동체 문화를 선도하고 혁신해 온 주민들로 가득하다. 주민 모두가 '1인 1재능'의 주인공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날마다 연속드라마를 촬영 중인데 마을이 그 세트장이다. 이를 벤치마킹하러 오는 방문객들은 공유경제를 체험하는 시청자가 된다. 벤치마킹 목록도 다양하다. 마을교육공동체, 마을협동경제공동체, 마을돌봄공동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송악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한 곳이다. 교육공동체특화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농촌마을로 각광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폐교 위기의 거산초등학교를 주민들의 힘으로 살려낸 일이다. 1990년 5,338명의 인구가 지역이 쇠퇴하면서 2005년에는 3,116명으로 줄었다. 그런데 사업 진행 후 2023년 현재 4,189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마을학교도 운영하며, 이곳은 충남 유일의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었다. 한편



마을인생학교 운영 모습



자원순환마을학교 운영 모습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아동 양육가구가 늘어나면서 '젊은 농촌마을'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이 지역의 특징이다. 이곳의 평균 연령은 43세, 현재 선주민과 후주민의 비율은 6:4이다. 이는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많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송악마을사람들'이 운영하는 '마을공간 해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역 내의 생산-소비로 이어지는 순환경제 모델을 창출하면서 마을 일자리 창출까지 뒤따른 것이다. '해유'는 마을 경제 회생의 동력이 됐다. 로컬장터 송악놀장과 송악마을장, 송악마을예술제 등의 운영으로 송악면 소재지 주민과 만나고, 정보 교류 및 소통의 장(場)을 활



송악마을공간 해유 전경

성화하여 경제적 영향력을 인근 마을까지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송악마을 함께돌봄 사업'도 각광 받는 타이틀이다. 이는 마을에 사는 어르신들을 주민 스스로 돌본다는 의미다. 마을은 이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틀을 잡아나갔다. 사회적기업과 협업하고 고용노동부 신중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코디네이터들이 마을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심리상담, 미술 치유, 건강 먹거리 나눔, 치유 원예 등 다양한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한 반찬 나눔과 송남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80여 명이 참여하는 '마을살이 봉사활동 동네 손주 왔어유!'는 이 사업의 백미였다. 가족과 이웃 간의 세대 소통은 물론 이웃 어른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특별한 활동이었다.

공동체 활성화의 성공적인 모범사례, 확산하라!

송악의 마을소통위원회는 선주민과 후주민이 7: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는 월 1회 개최한다. 이곳에서는 원주민과 이주민이 아닌 선주민과 후주민으로 구분한다.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다. 송악 '해유'의 성공적인 요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정부의 정책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실행한 점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지역활성화와 주민역량강화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이 화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예컨대 농촌지역의 결손가정 아이들과 독거노인들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은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해결한 것으로 그 파급효과도 컸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졌다. 선주민과 후주민들이 같은 선상에서 회의를 진행한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한 사례이다. 또한 하나의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후속 사업이 단계적으로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한 점은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한 결과일 것이다. 주민 자치 조직들이 경직되어 있지 않고 열려 있는 시각으로 활동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송악 '해유'이다.



전생애주기 마을평생학습공동체 형성		
유아·아동 대상	청소년 대상	성인 대상
새싹예술학교 (창의댄스, 미술, 이야기할머니 등)	청청캠프 (청소년-청년 멘토링, 마을디자인프로젝트)	마을인생학교 (가드닝, 자연밥상, 자수, 생활목공 등)

마을 인프라 개선 내용		
방송시설 설치	교량 보수	쉼터 조성
상수도 구거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경관 개선

충청남도
아산시

핵심성과

충청남도 유일의 혁신교육지구 형성

- 01 주민 재능기부를 통해 공동으로 아동 교육
- 02 대안학교 교육혁신 (송남초, 거산초, 송남중 등)
- 03 평생학습 전인교육 특성화 (어른 공경, 공동체 기여 등 가치 집중)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 마을 작업장을 통한 순환경제 토대 구축
- 운영기관 주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살림, 환경 교육

문화·체육활동 참여 확대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송악마을예술제 개최** 음악, 영화, 연극, 미술, 먹거리
- **문화프로그램 운영** 운동, 댄스, 공예, 미술
- **전시회 개최** 마을작가 활동 기반

운영조직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 연 2회 **마을활동가 학습회**
- 연 2회 **워크숍**
- 7개 분야 28개 의제 도출
- 자발적 모임을 통한 조직 구성 + 주체적인 역량 강화 교육
- 2030 송악발전 포럼 개최

성공 포인트

"인구고령화 극복 및 마을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확보가 필요했던 아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끈끈한 마을교육네트워크 형성**

02 **'돌봄코디네이터' 추진을 통해** 마을돌봄공동체 형성

03 **주민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사업의 파급효과 극대화

04 마을협동경제공동체를 통해 **마을공유경제 확립 및 지역소멸 대응**

05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을 통해 후속 사업으로 연결 역량 강화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 TOP 4

외암민속마을

조선시대를 거닐 수 있는 마을로 초대합니다

2000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외암마을은 곳곳에 냇물이 흐르고 입지가 좋은 지형적 이점으로 일찍부터 형성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물레방아, 참판댁, 초가집 등이 마을 곳곳에 보존되어 있다.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비롯한 문화유산은 물론, 아름다운 회화나무와 수석이 어우러진 정원도 감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길 5
041-541-0848

현충사

충무공 이순신의 숨결을 담은 곳

충무공 이순신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본전으로 오르는 길에는 우람한 아름드리나무와 소나무가 즐비해 있다. 본전에는 이순신이 자라난 고택과 무예를 닦던 곳인 활터가 있는데, 500년 수령의 은행나무 두 그루가 활터에 자리 잡아 존재감을 드러낸다. 충무공 관련 유물과 당시 해전 사료, 조선 수군의 활약상을 전시하는 기념관도 관람할 수 있다.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041-539-4600

아산지중해마을

이국적인 향취를 느껴보세요

유럽을 그대로 옮긴 듯한 풍경을 자랑하는 마을이다. 원형의 파란 지붕과 하얀 벽으로 구성된 건물은 마치 유럽 여행을 하는 듯한 달콤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몇 년 전 산업단지가 들어서며, 주민들의 이주가 불가피해진 상황 속 꾸려진 마을은 새로운 출발에 걸맞은 산뜻한 분위기를 풍긴다. 날씨 좋은 날, 마음에 쏙 드는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이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8번길 55-7
041-547-2246

온양민속박물관

전통을 체험하며 되새길 수 있는 곳

한국인의 생활문화를 한눈에 보고, 듣고, 체험하는 박물관이자 복합문화공간이다. 본관, 구정아트센터, 세미나실, 아산공예창작지원센터, 카페온양, 뮤지엄숍이 공간을 구성한다. 옛 선조들의 삶을 살필 수 있는 유물 전시를 관람하며 삶과 문화의 뿌리를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다. 또한 박물관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전 세대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123
041-542-6001

청년의 활기로 농촌을 깨우다

우수사례명

청년들의 희망 '이랑', 활력 넘치는 김제시를 꿈꾸다!

초고령 사회를 넘어 지역 소멸을 걱정하던 농촌, 전라북도 김제시에 청년의 활력이 더해졌다. 김제시는 2019년부터 '청년과 함께하는 농촌마을 리빙랩' 프로젝트를 시작해 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청년들이 직접 살피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이 주체가 되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고 관광, 문화, 복지, 소득, 조사, 경관, 환경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해 활동을 전개했다. 청년들의 발걸음이 늘어나면서 마을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적막하던 농촌에 활력이 더해지면서 김제시는 매일 조금씩 젊어지고 있다.

INFO

- **지자체** 전라북도 김제시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포괄보조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 **내역사업명** 시군역량강화사업





청년단체 이랑 활동모습

호남평야 중심 김제, 인구감소와 노령화를 마주하다

전라북도 김제시는 쌀 재배 면적이 1만 8,960ha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전북에서는 가장 넓다. 쌀 생산량도 전국 쌀 생산량의 2.7%를 차지한다. 말 그대로 호남평야의 중심이다. 첨단 농법에서도 앞서간다. 김제시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는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농업의 자동화, 정밀화, 무인화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기반으로 김제시는 도시와 농촌,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를 표방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 산재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연령층의 노령화로 농촌 상황의 개선은 쉽지 않았다. 김제시는 농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김제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청년의 눈으로 농촌의 오늘을 살피고 그들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은 내일을 만들어 보기 위한 시도였다. 이를 위해 김제시는 먼저 청년들이 지

역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해 보는 '리빙랩'의 개념을 도입해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기획감사실과 농촌활력과에서 사업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농촌협약지원센터·역량강화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청년이 주체가 되는 마을실험실, '농촌마을 리빙랩'

김제시의 농촌마을 리빙랩은 2019년에 시작됐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은 청년 단체에 용역방식으로 진행해 청년 단체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추진했다. '농촌마을'을 키워드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행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실험적 활동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김제시도 청년단체도 청년 리빙랩 프로젝트가 처음이었다. 리빙랩에 대한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았고 유사 사례를 찾기도 어려웠다.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었다. 김제시와 청년단체는 함께 여러 지역의 유사 사례를 찾고 전문가 강의를 들으며 리빙랩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농촌 마을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업의 빠른 정착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김제시는 기획·홍보마케팅, 마을만들기·농촌관광, 사회적경제·사회서비스 영역의 전문가들로 상시자문단을 운영해 사업을 지원했다.

새싹삼 요거트 만들기 체험 단체사진



마을실험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다. 용역으로 진행한 사업을 공모 형태로 바꾸면서 다양한 청년 그룹이 각자의 아이디어로 사업에 도전해 2021년과 2022년 각각 3개 그룹이 참여해 활동했다. 김제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 그룹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전에는 교육을 통해 해당 사업의 의미를 전달했고, 사업진행 과정에서는 모니터링과 컨설팅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실험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했다.

건강과 소득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청년단체 이랑'

'청년단체 이랑'은 귀농 청년들이 생산하는 우유와 유제품을 활용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새싹삼과 낙농업을 하는 청년이 생산한 우유를 활용한 요거트 만들기 체험프로그램과, 어르신들에게는 낯선 음식인 피자를 함께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또 마을에서 생산되고 있는 작물인 새싹삼과 우유를 활용한 체험 꾸러미와 스트링 치즈를 활용한 피자 체험꾸러미를 개발, 설명회를 마을잔치로 진행하기도 했다. 마을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 꾸러미는 상품화하여 출시할 예정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단체 이랑' 피자 만들기



'청년단체 이랑' 새싹삼 요거트 만들기



'농촌을 보고 배우다' 팀의 플리마켓 운영 모습

지역의 바른 먹거리에 대한 고민, '농촌을 보고 배우다'

'농촌을 보고 배우다'팀은 지역의 바른 먹거리를 제값 받고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단순히 지역 농산물 판매장을 여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함께하는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고민했고 청년 놀이터와 플리마켓을 진행했다. 청년 놀이터(물놀이, 추억의 오락실 등)를 마련하고 청년 농업인 생산 작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플리마켓을 열었다. 김제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유명인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도 진행했다. 소규모 청년들의 문화 공연의 장이 마련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모였고, 플리마켓은 지역주민과 청년들의 신나는 놀이터가 되었다.

리빙랩 참여단체 '프로듀사' 사업 내용				
사업 목적·내용 설명	프로그램 참여 주민 모집 (마을 방송 3회, 마을회관 직접 방문)	복원할 사진 고르기 및 이야기 기록	사진 복원 (1차 선택 후 1~2장 선별) 및 글 수정	기념촬영 전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세부 내용		
마을 서포터즈 활동가 매칭 (활동가 3명 매칭 및 7회 활동)	신문 제작 교육 운영 및 수료자 배출	마을주민 인터뷰 영상 완성

사진으로 어른과 지역을 기록하다, '프로듀사'

'프로듀사'팀은 농촌의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 나섰다.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고 가족의 지난 시간을 복원했다. 옛 사진 복원 프로젝트는 마을 사람들의 추억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고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이야기꽃을 피우게 했다. 금산면 평지마을 수류성당의 옛 모습과 지금은 사라진 수녀원의 모습을 기록했다. 마을 내에 있는 화율초등학교의 1회부터 31회까지의 졸업앨범을 복원하고, 마을 사람들이 다녔던 금산중학교의 다양한 행사 사진을 복원하기도 했다. 둘로 시작한 부부가 28명의 대가족이 된 이야기와 4남매를 키운 엄마의 이야기처럼 마을 주민의 일상의 모습도 복원해 기록으로 남겼다. 복원한 사진 중 일부를 엮어 사진집을 만들고 전시회도 열었다. 잊혀 가던 마을의 과거가 하나둘 복원되면서 마을에서는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일이 늘었다.

다양한 시도와 긍정적 변화

청년들의 도전은 성공적이었다. 청년들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이라 서툴고 어색했지만 마을 주민들은 적극적인 청년들의 모습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프로젝트가 매개가 되어 웃음꽃이 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과, 서툴지만 즐겁게 임하는 청년들의 유대는 숫자로 나열할 수 없는 사업의 큰 성과였다. 실제로



성과 공유 홍보물



'프로듀사'팀의 옛 사진 복원 프로젝트

2021년 프로젝트 이후 참여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마을 주민 모두가 청년들의 마을 활동에 만족했고, 다시 진행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향을 밝혔다. 청년들 역시 농촌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보다 많은 마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제로 '프로듀사'팀은 2년 연속으로 리빙랩에 참여해 여러 마을의 기록에 참여하고 있다.

완성도를 높여 더 큰 미래를 계획하다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청년 리빙랩 프로젝트는 좀 더 체계화되었다. 김제시는 청년리빙랩을 사전준비, 탐색, 실험, 평가의 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로 목표와 성과를 관리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청년들이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공모단계를 진행했다. 탐색단계에서는 리빙랩 지원 신청서 작성을 통해 지역을 탐색하고 문제를 발굴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실험 단계에서는 실험을 위한 비용 지원 및 청년 활동가에게 소정의 활동비 지급을 통해 실험의 동력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평가단계에서는 사업의 전 과정을 네트워크 간담회 등으로 공유하고 사업을 평가했다. 사업 과정에서도 마을 동행과 프로그램 공동참여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체계화했다.

2023년에는 리빙랩 참여 청년들과 다섯 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해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모았다. 지난 4년의 경험이 자산이 되어 청년들도 성장했다. 지역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관심도 커졌다. 진지한 토론과 논의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과거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에 집중했던 청년들은 리빙랩 프로젝트가 사업 아이템으로 이어지거나 지역의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개척이나 청년공간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을 고민하는 등 다양한 소득 창출을 위한 시도를 이어갔다.

농촌지역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청년들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주민들과 청년들의 협업이 늘었다. 청년 협동조합이 생겨나 활동을 시작했고, 예비청년마을 지원도 다양해졌다. 지역의 체험농장과 청년의 연계 활동이 생겨났고, 농촌마을을 찾는 청년활동가들이 늘었다. 리빙랩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한 사례도 생겼다. 김제시 금구면의 두월노을마을에서는 청년 리빙랩 실험 프로젝트인 업사이클링 공예 프로그램을 주민 평생교육으로 운영했다. 이렇게 청년들의 작은 도전이 농촌마을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물론 과제는 남았다. 마을실험실이 일회성 실현이 아닌 농촌을 움직이는 새로운 바람이 되도록 '지속 가능한 도전'이 되도록 바꾸어야 할 시점이다. 김제시는 청년들의 실험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해결책은 사업화 또는 정책화를 통해 파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지역을 누비고, 지역과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옛 사진 복원 프로젝트

전라북도
김제시

핵심성과

다양한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진행

26명 참여	27명 참여	450여 명 참여
요거트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피자 만들기 프로그램**	**청년놀이터 및 플리마켓**

마을주민들의 인생을 값진 콘텐츠로 승화

금산면 평지마을 10가구 참여

26점	6가구	100권
복원사진	**기록사진**	**사진첩**

제작/배포/전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에 대한 대외적 인정

2022년 제4회 전라북도 생생마을 공동체 한마당 작품전 수상

종합분야	미디어분야	우수마을 골든캡
최우수상 1등	우수상 2등	

지역 청년의 역량 강화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공식 프로그램으로 주체적 운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역 청년 간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성공 포인트

"농촌마을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적막을 마주해야 했던 김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1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마음껏 제안할 수 있도록 **열린 환경 마련**

02

김제시 거주 **청년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

03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 구축

04

여러 지역의 유사 사례 탐색 및 전문가 강의 수강으로 사업 이해도 상승

05

사업의 빠른 정착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시자문단 운영 및 사업 지원**

김제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 TOP 4

김제금산사

수난을 이겨낸 역사가 담긴 공간

금산사는 고려 시대 초반인 후삼국 시대 후백제의 왕이었던 견훤이 장남 신검에 의해 감금되었던 장소이다. 드라마 태조 왕건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백제 시대에 지어져 1,4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사찰이다. 병자호란 발발 1년 전 인조13년에 중건하고, 여러 차례 수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즈넉한 분위기로 사랑받는 곳이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1
063-548-4441

벽골제

향토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곳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쌓아 만든 최고의 고대 저수지이다.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으나 명시하는 흘해왕 21년, 서기 330년은 김제 지역을 백제 영토로 추정하고 있다. 높은 하늘 아래로 거대한 둑이 세워진 제방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이 따로 있어 들러 관람해도 좋다. 최대의 수리시설인 벽골제의 역사사적 의의와 더불어 전래 농경도구와 농경문화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다.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일대
063-540-4094

아리랑문학마을

민족의 슬픔을 노래하다

소설가 조정래의 작품 '아리랑'의 배경을 재현한 공간이다. 아리랑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노래하던 우리 민족의 얼이 담겨 있다. 주인공의 생활터전 공간을 살펴보며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아픔을 체험하기도 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역사적 현장 하얼빈관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역사 교육의 공간을 만난다.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화초로 180
0507-1360-2926

수류성당

믿음으로 쌓아 올린 성전

수류성당은 호남의 3대 성당 중 하나로 1907년까지 목조건물이었으나 6·25전쟁 당시 인민군에 의해 소실되었다. 1959년 전쟁이 끝난 후 신자들은 직접 냇가에서 모래와 자갈을 채취해 벽돌을 만들어 성당을 재건하였다. 현재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양권에서 가장 많은 신부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유의 감정을 느끼기 위한 이들로 붐비는 곳이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화율리
063-544-5652

복을 부르며 복을 짓는 행복 공동체

우수사례명

개굴개굴 복 부르는 행복 공동체 보여리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보여리 마을은 개구리를 떠올리며 들여다보는 것이 좋다. 마을의 옛 이름이 '부와'(浮蛙)로 '개구리가 물에 떠 있는 형상'이었던 것부터가 특별하기 때문이다. '부와'는 풍요와 평화의 상징이었다. 마을 뒤로 달봉산을 두르고 마을 앞 너른 들판 끝에 동정호를 두었다. 배산임수의 복된 지형인 것이다. 하지만 보여리 또한 산골 오지마을로 쇠락의 길을 걸으며 머잖아 소멸의 위기에 내몰릴 것이 뻔했다. '보여리' 마을 사람들은 이를 수수방관하지 않았다. 개구리와 관련된 마을의 지형적 유래에서 착안한 고유한 테마를 적극 활용해 특색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이끌어 낸 것이다. 그래서 '개굴개굴 복을 부르는 왕눈이 마을'이다. 옛 지명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변용하고 변주하며,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가고 있는 보여리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자.

INFO

- **지자체** 전라남도 함평군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포괄보조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 **내역사업명** 신광 보전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담장 개선 모습

오지마을에서 으뜸마을로 변신하다

오랜 지명의 유래가 시사하듯 복된 터전이었던 '보여리'는 어쩔 수 없는 산골지역으로 도시와의 접근성이 취약했다. 농촌 공동화의 여파로 37개의 농가와 건물 중 70%에 이르는 26개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피폐와 소멸의 길을 걷고 있었다. 대부분 유해 석면이 검출되는 슬레이트 지붕 가옥과 허물어질 듯 낡은 담장에다 비좁고 경사진 마을 안길로 인해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 또한 최하위에 머물렀다.

'보여리'는 이 같은 침체와 쇠락의 현주소를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이하 취약지역사업) 추진으로 타개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주택 정비와 함께 마을 환경부터 개선해 나갔다. 생활위생 인프라도 구축했다. 2021년 전남도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에 선정되면서 이듬해 우수상을 수상하고 추가 사업비도 확보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마을 주변 경관개선의 동력이다. 2022년에는 함평군 미래설계 현장포럼을 4회에 걸쳐 진행하며 행복함평 마을만들기 경진대회에도 참가해 동상을 받았다. 2023년에도 농촌마을 축제지원사업과 함평군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며, 마을 경관개선과 함께 역사문화 공간인 선돌쉼터 행사를 지역축제로 격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마을이 변하면서 사람도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변하면서 마을은 또다시 새로워졌다.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던 애초의 회의감이 이제는 오롯이 자신감으로 바뀐 것이다. 마을의 낡은 공간과 오래된 지붕을 정비하고 좁은 도로를 넓혀나가자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공동체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도 성숙되었다. 함평군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전남도 으뜸마을 가꾸기사업 등이 발전적인 성과를 이루어내는 데 인적 동력이 된 것이다. 취약지역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은 변화를 시도하며 변화를 실감하며 이제는 변화의 가치를 다른 지역과 공유하고자 한다.

참여와 공유로 난관을 타개하다

다양한 사업과 여러 가지 협업을 수립하고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많았다. 특히 독거노인 가구의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주민 자부담이 병행되는 사업이 벽에 부딪혔다. 담장 개선이나 슬레이트 지붕 정비 등의 진척도가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마을의 리더들이 다시 한번 일어섰다.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과 설득에 주력했다. 주기적인 마을 전체회의를 열어 사업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공유하고 공동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가는 다른 지역 마을의 사례 답사를 통해 주민들의 시야도 넓혀나갔다.

담장 개선 모습



전라남도
함평군

산골 오지마을 '보여리'의 취약지역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 인식의 개선과,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동력의 충전 과정이었다. 키워드는 참여와 공유였다. 인식의 전환에 따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다양한 농촌개발사업 추진의 밑거름이 되었다. 나아가 주민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 구축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여리'에서 난관은 타개하라고 있는 것이었다. 사람이 마을을 바꾸고, 마을이 또 사람을 바꾼 것이다.

'보여리'에서 희망과 변화를 본다

오지마을 '보여리'의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도 마을 공동체 주도로 중장기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마을과 주민의 자생력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오지의 농촌마을일수록 행정기관의 지원만을 바라보는 게 능사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보여리'는 산골마을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을 자체적으로 개발 사업에 도전하고 참여하며 성과를 이끌어 낸 것이다.



슬레이트지붕 개량 모습



마을경관 개선 모습

이것은 과거 우리 농촌지역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던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변용일 수도 있다. '보여리'뿐만 아니라 여느 농촌마을도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만으로도 그 공로는 지대하다. 시골 마을 주민들의 자립심 제고와 역량 강화의 가능성을 재확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여리'는 그렇게 주민공동체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 산골마을의 변화에 대한 공감과 공유를 통해 다른 농촌마을 공동체의 선진지 벤치마킹 사례도 제공하고 있다.

주민이 바뀌면 마을이 바뀔 수 있다는 공감의 확산이다. 주민의 인식 전환에 따른 지속 가능한 농촌마을의 변화를 목격하고 체험하며 희망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보여리'에서는 마을공동체의 활동 동영상과 발표자료를 만들고 견학 코스를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보여리'에 선진지 견학을 하며 희망과 변화를 읽기 위한 다른 지자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주민을 우선으로 하면서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 나아가 주민 소통에 기반을 두면서 일회성이나 단기성이 아닌 중장기적인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보고 갈 것이다.



마을경관 개선 모습

조직과 리더십으로 변화를 견인하다

'보여리'의 변화는 체계적인 조직 운영과 다양한 리더십의 역할도 주효했다. 취약지역사업 추진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는데 사업이 안정되면서 운영위원회로 확대되었다. 사업이 마무리된 현재는 개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보다 나은 '보여리'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과 마을사업에 진력하고 있다.

8명으로 구성된 개발위원회는 매월 30일 주기적인 마을회의를 개최한다.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다각도로 모색하며 분기별 선진지 벤치마킹도 추진한다. 그 결과들을 '보여리' 마을과 주민들의 현실에 맞게 접목하고 있다. 목적을 생각하고 결과를 이끌어 내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개발사업의 중장기 발전을 기획하고 추진해온 개발위원회는 물론 부녀회와 영농법인에서 공동소득사업을 이끌며 고령자를 돌보고 특화음식을 개발했다. 공병 모으기, 폐비닐 수거, 공동경작 등의 울력을 통해 마을기금도 조성했다. 마을회에서는 주민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며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들이 순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준공식 모습1



준공식 모습2







마을만들기 경진대회 참가 모습

아직도 보여줄 게 남아있다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적잖다. 농촌 고령화와 공동화에 따른 지방 소멸 예방이 지자체마다 긴급한 현안으로 등장한 오늘, 어떻게 해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젊은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와 농촌이 되살아날까. 그 해답은 저마다 농촌마을이 지니고 있는 지리적, 인문적인 환경과 자원의 재활용과 특성화에 있는지도 모른다. '보여리'가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취약지역사업은 하드웨어인 기초생활기반 확충에만 치우쳐 있어, 농촌공동체의 공동소득 향상에 대한 부분이 미약한 측면이 있다는 게 '보여리' 사람들의 경험적 충고이다. 보다 활력있는 농촌마을 회생을 위해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다.

취약지역사업으로 '보여리' 마을의 기본적인 정주 인프라는 구축되었다. 다만 외형상 옥에 티가 있다면 마을 안길 중앙에 있는 공터에 오래된 담장이 하나 남아있는 것이다. 시행법규나 규정과의 마찰이 걸림돌로 작용한 탓이었다. 이 또한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으뜸마을가꾸기사업과 연계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담장에 벽화를 그리고 가로등이 없는 사각지대에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하면 마을 분위기가 한결 더 해맑아질 것이다. 시행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고 주민들의 현장 의견도 좀 더 반영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다. 농촌의 가옥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난관에 부딪히는 사례가 주민의 자부담 문제다. 이 또한 독거노인 등이 많은 마을의 현실을 미리 고려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자부담 비율도 융통성 있게 책정한다면, 갈등의 여지를 좀 더 사전에 차단하면서 사업 추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지역 역량강화 전담기관이나 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효율적인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게 '보여리'의 사업추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보여리'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미래지향형이다. 함평군 마을만들기사업 및 숲가꾸기사업과 연계해서 노호등산 파크골프장과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폐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주민 소통공간도 확충할 계획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의 목초지 조성사업에 따라 펼쳐질 마을 앞 야산 목초지 경관 포인트를 활용해 보여리 휴양림 캠핑장도 만들었으면 한다. 이 모든 것에 마을은 또 단계적인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주민들은 참여와 공유의 정신으로 함께할 것이다.

옛 '부와(浮蛙)'터에 달봉산은 더욱 푸르고 동정호는 더욱 넉넉하니 왕눈이의 눈망울에도 풍요와 평화의 기운이 깊게 서릴 것이다. 수면 가득한 호수 위에 여유롭게 떠 있는 개구리들이야말로 '보여리' 마을 주민들이 소망하는 모습의 비유이기도 하다. 연못 안에 모여 사는 순박한 왕눈이들처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보여리' 마을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한 내일을 위한 여정은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마을 주민들의 추진력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사업추진 실행률 120.2% 달성	보여리 마을회 자체 네이버 블로그 운영 및 홍보 동영상 제작	분기별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마을발전계획 아이디어 개발

주민 공동체 의식 변화 도모		
마을 경관 개선을 위해 마을 주민 50%(40명) 이상의 주민들 참석	마을 공동소득 창출을 위한 보여리 영농협동조합 설립 추친	주민별 마을직책 부여를 통한 책임감 있는 공동체 함양

전라남도
함평군

핵심성과

생활기반시설 정비

위험 경사지 L= 264 m
배수로 L= 86 m
슬레이트 지붕 개량 19 호
집 수리 13 호

마을환경 개선

마을안길
1,140 ㎡

담장
L= 600 m

역사문화공간 조성

마을 선돌 쉼터

보여리의 역사 보존 및 마을 안녕 기원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휴먼케어
클린 서비스
응급처치 교육
동네목수 교육(6회)
건강체조 교실(24회)

역량강화
마을 가꾸기(4회)
선진지 견학(3회)

성공 포인트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높아 정주 생활 환경이 부족했던 함평,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1
다양한 농촌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취득 및 끊임없는 도전정신 발휘
(상시 주민회의 개최 및 전문가 자문 3회)

02
마을의 역사를 간직한 시설물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

03
주민 공동소득 창출을 위한
유휴부지 경작 및 공동소득작물 재배
(보여리 영농조합법인 설립)

04
매월 2회 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주기적인 노력
(화단, 공병 모으기, 폐비닐 수거 등)

05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마을발전계획 추진

함평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 TOP 4

돌머리해수욕장

갯벌의 경관을 만날 수 있는 곳

석성리 석두마을 서쪽 끝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바닷물이 맑고 수심이 얕다. 해변 뒤편으로는 울창한 곰솔숲을 함께 볼 수 있다. 육지의 끝이 바위로 되어 '돌머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답게, 바위와 해안이 맞닿은 곳은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풍부한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갯벌은 해수욕장의 갯벌탐방로를 걸으며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523
061-322-0011

함평엑스포공원

생태계의 풍부한 사계절을 느껴보세요

2008년 나비곤충엑스포를 개최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봄에는 함평나비대축제, 가을에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열며 계절의 색깔을 공유하는 공원이다. 약 30만 평의 규모로 7개의 전시관과 물놀이장, VR 체험장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생생한 자연의 모습, 보기 좋게 어우러진 꽃과 조형물은 보는 재미를 더하며 소중한 시간을 전한다.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27
061-320-2230

용천사

고즈넉한 절을 눈에 담을 수 있는 곳

용천사의 '용천'은 샘의 이름으로, 용이 살다가 승천했다는 전설을 전한다. 대웅전, 범종각 등을 볼 수 있으며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84호로 지정된 용천사 석등도 볼거리다. 투박한 짜임새지만 석등에 조각된 거북과 특이한 지붕돌이 매력을 더한다. 또한 석등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해시계도 함께 보며, 절의 역사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길 209
061-322-1822

함평군립미술관

지역 정서와 문화예술을 잇는 소통의 장

함평엑스포공원에 자리한 미술관으로, 나비가 양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형상의 건물이 특징적이다. 야외에는 오당 안동숙 화백이 수집한 수석, 괴석으로 이루어진 수석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화백에게 예술적 영감이 된 수석을 통해 작품세계를 느낄 수 있다. 연중 지역축제와 연계한 특별전으로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미술관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27(엑스포공원내)
061-320-2276

따스한 온정으로 짓다
사람과 사람을 잇다

우수사례명

금병산 아래 철길따라 화합의 길이 열리는 하모니 진영읍 조성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에 위치한 '하모니타운'과 '하모니숲길'은 신도심과 원도심이 함께하는 조화의 상징으로 지역 활성화에 깊이 기여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편리함과 다채로움을 더해주는 문화시설 '하모니타운'은 연일 취미 활동과 학습을 위해 이곳을 찾는 이들로 붐빈다. 오래된 철길이었던 유휴공간을 재탄생시킨 '하모니숲길'은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주민들의 얼굴에도 미소를 더하고 있다. 생활의 불편을 혁신으로 덧칠하고 있는 김해시의 진심 어린 노력을 들여다보자.

INFO

- **지자체** 경상남도 김해시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포괄보조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 **내역사업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하모니타운 빨래방의 수거 및 배달 서비스

지역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을 꿈꾸다

지역의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교통의 이점, 학군, 상권 등 다양한 항목이 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주민 편의시설'이다. 주민 편의시설이 활성화된 곳은 끈끈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공동체의 발전을 향해 달려간다. 함께 배우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휴식하며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 나가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가 점차 개인화되고 공동체 정신이 희박해져 가지만, 우리나라의 '이웃' 정신은 여전히 남아 지역의 기반을 탄탄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해시는 평범한 주민 거주지역인 진영읍을 '하모니'라는 타이틀 아래 하나로 묶고 있다. 지역주민의 화합을 강화하고 지역 자체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기초생활기반 조성,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에 앞장서는 중이다. '하모니타운'과 '하모니숲길'이 대표적인 성과다. 기존에 문제로 인식됐던 문화복지시설의 부족, 방치된 철도부지로 인한 주민의 불편 등 애로점을 영리하게 극복해 삶의 여건을 혁신적으로 향상했다고 평가받는다. 김해시는 누구든 안전하게, 편하게,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하기 위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였다.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추진인력, 주민의 따스한 관심과 응원, 이해 관계자들의 열린 협조가 있었기에 거짓말 같은 변화가 펼쳐졌다.

문화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공감대 형성

김해시 서쪽에 자리한 진영읍은 창원시와 마주하고 있으며 남해고속도로의 진영 IC와 경전선의 진영역이 위치해 교통의 요지로 꼽히는 곳이다. 이와 함께 활발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됐고 최근 5년간 인구의 급성장을 보였다. 인구의 지속 증가로 인해 지역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며 경제 성장 가능성 역시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이면의 문제점도 금세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생활 인프라의 확충 속도는 더뎠던 것이다. 특히 주민이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 중심지 근처에 한빛도서관 등 인프라가 형성돼 있긴 했지만 수요 대비 공간 부족 현상이 두드러졌고,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만한 대표 공간이 부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해시는 발 빠르게 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청사진을 그려나갔다. 택지개발사업을 거치며 새로이 형성된 신도심과 기존 원도심 간에 인프라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지역주민이 서로 잡음 없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문화생활과 일상 속 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거점 공간을 지음으로써 한곳에 머무르며 쌓는 공동체의 정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였다. 또한 폐쇄된 철도부지의 쓰임을 개척해 마음 편히 왕래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하모니타운 3층 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 모습



경상남도
김해시

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 하모니타운

김해시는 2017년 3월 진영읍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최종 선정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변화의 물꼬를 텄다. 2018년 5월에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와 더불어 주민위원회를 구성해 기반을 다졌고, 지속적인 주민위원회 회의 및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더 나은 방향을 끈질기게 탐색했다. 그 결과 2022년 2월 마침내 구)진영어린이집 자리에 완공된 '하모니타운'은 명실공히 진영읍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았다. 기초생활 기반 강화를 위해 계획된 이곳은 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곳곳에 담겨 있다. 문화복지 거점 공간을 표방하는 만큼 한 공간에서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도록 꾸려졌다.

4층 규모의 '하모니타운'에서는 문화 향유부터 생활 복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북카페, 대강당, 다목적실, 댄스동아리실 등에서 다채로운 활동으로 삶의 활력을 높이고 코인빨래방, 가족센터, 시니어클럽 등을 통해 일상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의 도움까지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그중에서도 1층에 위치한 '하모니 빨래방'은 지역주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고 있다. 일반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특히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서는 무료빨래 및 심부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다. 75세 이상 25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하모니타운 2층 탁구장



하모니타운 1층 북카페 내부

진행하며 수거부터 세탁, 배달까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진영읍의 중심지 주민뿐 아니라 배후마을의 주민들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의 결과물이며, 신도심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하모니타운은 이제 일상 속 취미 생활을 위한 필수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1층의 북카페는 휴식과 공부의 공간, 만남의 광장으로 사랑받는 중이며 2층의 취미동아리실에서는 바둑, 탁구, 당구 등 다양한 종류의 취미를 회원제로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월 이용자 수가 약 2,000명에 이르는 것을 보면 주민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단번에 와닿는다. 4층의 문화복지공간도 다양한 쓰임새를 자랑하고 있다. 회의실, 동아리실로 쓰이는 것은 물론 각종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민들이 스스로 아끼고 성장시켜 나가고 싶은 곳으로 가꿔지는 중이다.



하모니타운 전경

경상남도
김해시

사라진 폐선로 위에 남은 주민들의 활기

지역 경관 개선을 위해 조성된 '하모니숲길'은 김해시의 야심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2년 6월에 조성 완료된 이곳은 폐선로를 활용해 주민 화합 공간으로 만든 점에서 주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자리에 있던 진영읍 경전선 폐선철로는 구·신도시 사이를 관통해 지역을 단절시킬 뿐 아니라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주정차, 무단경작 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는 곳이었다. 도시의 경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며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과 우범지대로 변모할 가능성도 있어 최우선 해결과제로 손꼽혀 왔다. 김해시는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고 공모사업 진행 과정에서 상충되는 규제 사이에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사업 선정에 있어 주관 부처별 전제조건이 부딪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 협의로 이를 타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22년 국가철도공단의 철도 유휴부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까지 수상하며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증받았다.

하모니숲길은 진영읍만의 특색있는 휴식공간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다하고 있다. 총 2km 구간에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가 조성됐고 공원체육시설과 아름다운 조경이 더해져 걷고 싶은 길,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 됐다. 주변 5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기능도 충실히 하고 있다. 길이 잘 가꿔져 있어 학생들이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길이 됐다. 산책하고 운동하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일상의 여유와 행복이 느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도 계획 중이다.



하모니숲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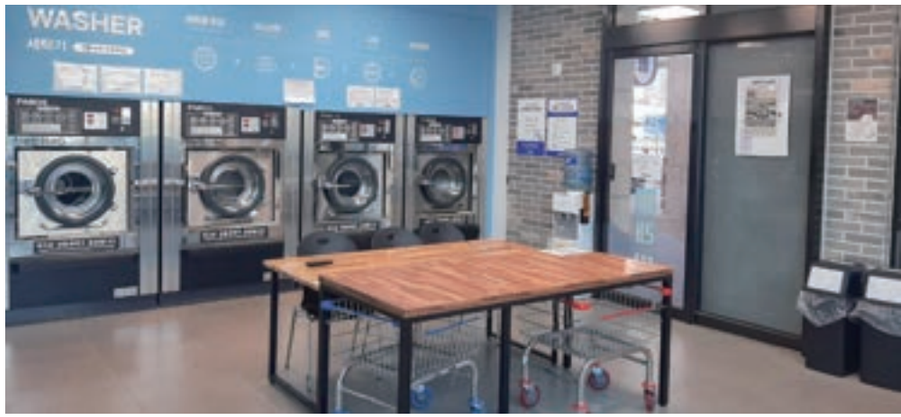


하모니숲길2

경상남도
김해시



하모니타운 2층 당구장



하모니타운 코인빨래방

소통하는 주민,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다

지역거점시설로 거듭나고 있는 '하모니타운'은 관련 기관 연계·유치를 통해 교육과 시니어 복지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3층에 위치한 '가족센터 진영사업소'는 지역 내 다문화 가정 2,700여 명 및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공간으로서 사업 초기부터 논의되어 온 공간이다. 김해 시내에 위치한 지원센터의 분원으로서 일상에 꼭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 중이며, 이용객 월 600여 명을 기록하며 성황을 이루고 있다. 가족문화사업, 한국어 교육, 사회적응 교육 등을 시행하며 진짜 화합이란 무엇인지 몸소 실천하고 있다. 한편 '가야시니어클럽'은 지역의 시니어들을 위한 통합 복지도 실현한다. 노인들을 위한 일상 속 복지를 끊임없이 고민 중이며 일자리지원사업을 추진해 매월 400여 명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김해시는 하모니타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이어왔다. 운영 조직체계 확립에 있어 수많은 의견을 수렴했는데 100회가 훌쩍 넘는 회의를 거치며 수익금의 분배부터, 각 분과가 공유하는 영역의 분담에 이르기까지 열린 논의로 운영상의 버거움을 해소하고자 했다. 현재 크게는 하모니 사회적협동조합과 이음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 중이며 안정적 운영 수익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고용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 장애인전환지원사업을 연계해 북카페는 지역장애인 2명을 고용 중이며 시니어 환경미화원(5명), 협동조합 자체 관리원(2명) 등을 고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김해시는 '상생'과 '조화'를 최우선하여 지역사회의 역량을 더욱 응집하고자 한다. 소통과 교류의 공간은 열정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레 불러 모은다. 활력 넘치는 광장을 동력 삼아 진영읍은 문화, 복지, 경제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해 나갈 것이다.

하모니타운		
이용객 상승		
2021년 35만 명	>	2022년 60만 명

하모니타운 코인빨래방		
인근 민간 빨래방 대비 10% 저렴한 사용료	7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빨래서비스 제공	월 이용객 약 300명 이상

경상남도
김해시

핵심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신규 채용

- 북카페 근로자 (지역장애인) 2명
- 하모니타운 환경미화원(시니어) 5명
- 사무장 2명
- 하모니타운 시설 관리원(협동조합) 2명

지역거점공간 기능 확대

하모니타운 3층

가족센터 진영사업소

-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 가족문화사업, 한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

가야 시니어클럽

- 노인 복지 확대
- 노인 일자리지원사업 추진

폐선로를 활용한 신·구도심 화합 공간 조성

하모니숲길

보행로 / 자전거 도로 / 만남의 광장
파머스 마켓 / 하모니 정원 / 야외 무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하모니타운 2층

취미동아리실

바둑, 탁구, 당구

- 회원제 운영
- 월 이용자 약 **2,000명** 이상

하모니타운 4층

문화복지공간

댄스, 합창단, 팝아트

- 문화복지프로그램 진행 및 일반인 대관
- 월 이용자 약 **700명** 이상

성공 포인트

"빠른 개발 속도에 비해 주민 복지의 사각지대를 안고 있었던 김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1

주민의 생활 속 불편에 대한 적극적인 청취
(주민위원회 회의, 주민 설문조사 등)

02

방치된 철도부지, 오래된 어린이집 등
제 기능을 잃은 장소의
가능성을 활용하여 **공간재생 추진**

03

4층 건물(하모니타운) 안에서 최대한
다양한 문화복지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고민과 노력

04

취약계층(차상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무료 빨래 수거 및 배달)로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구축

05

사업 초기부터 주민 복지에 필요한 서비스
(외국인 지원, 시니어 복지 등)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연계·유치

김해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 TOP 4**

김해연지공원

호수의 둘레에서 즐기는 달콤한 휴식

오래전 연꽃이 많이 피어있었다고 전해지며 '연지'라는 이름이 붙었다. 넓은 호수에 떠다니는 연꽃과 '어리연'은 공원을 둘러보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준다. 호수를 빙 둘러 조성된 산책로에선 무성한 숲을 보며 쉬어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호수의 음악분수는 정해진 시간에 음악과 함께 솟아오르는 시원한 물줄기로 보는 재미를 더한다.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06-1
055-330-4415

김해수로왕릉

능소화가 어우러진 왕릉 담장과 함께

금관가야의 시조이자 김해김씨의 시조인 수로왕의 무덤이다. 1963년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18,000여 평의 왕릉공원은 웅장한 규모를 뽐낸다. 왕릉 구역 내에는 신위를 모신 숭선전과 안향각 등 다양한 건물, 신도비 등 석조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최근에는 수로왕릉의 능소화가 입소문을 타면서 이를 담으러 오는 방문객도 많아지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055-332-1094

국립김해박물관

가야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곳

1998년 개관한 국립김해박물관은 가야의 건국 신화가 깃든 구지봉 언덕에 위치해 있다.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고고학 중심의 가야사 특화 박물관이다. 2개의 층으로 구성된 상설 전시실은 가야의 성립과 발전 과정, 가야인과 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를 진행 중이다. 다양한 기획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
055-320-6800

분산성

탁 트인 하늘과 넓은 평야를 한눈에 담다

분산성에 올라서면 낙동강 하류의 넓은 평야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분산성은 둘레 약 900m에 걸친 돌로 쌓은 산성으로, 삼국시대에 처음 쌓은 걸로 추정된다. 조선 전기에는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재건했으며 오늘날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문화재로 자리 잡았다. 산성에서 보는 노을을 왕후의 노을이라 부르며, 수려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 사충단길 190
055-330-3925

원도심 개발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다

우수사례명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한 취약지역 주민 정주환경 개선

정부가 시행하는 새뜰마을사업은 정주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조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아무리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의 동의와 협조가 없으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과 열정이 성공의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4동 시약샘터마을의 노후주택 개선사업의 경우도 그랬다. 사업이 시작되면서 공무원들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중재하면서 주민의 협조를 이끌어 냈고, 주민협의체도 만들었다. 그 결과 도심 빈민화가 진행될 뻔했던 마을은 희망이 샘솟는 행복한 마을이 되었다.

INFO

- **지자체** 부산광역시 서구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포괄보조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 **내역사업명** 서대신4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부산광역시
서구



사업 추진 경위	
일자	추진경위
2022.05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모 선정(한국해비타트)
2022.06.07	집수리사업 주민설명회 실시
2022.06.07 ~ 16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1차 현장실사 실시
2022.09	최종 세대 실사 및 명단 확정
2022.10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2022.10 ~ 12	사업 착공 및 공사 시행
2023.01	준공검사 실시

대표적 취약지역의 변신

부산시 서구 서대신4동 시약샘터마을은 한국 전쟁기 피난처로 형성된 마을이다. 피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했던 우물이 아직도 '사랑이 샘솟는 시약샘터'로 남아 있다. 마을은 시약산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가려져 있는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민의 절반이 65세 이상인 고령마을이다.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선정 당시 마을의 모든 주택이 30년 이상 되었을 뿐 아니라 무허가 주택의 비율도 70% 정도였다. 폐가 상태의 빈집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도시가스 미설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 열악한 정주환경이 집중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취약지역이었다. 지난 2021년부터 새뜰마을사업을 진행한 부산 서구는 이러한 시약샘터마을 108세대 중 54세대의 집수리를 마쳤다. 사업의 핵심은 민·관이 협력하여 구민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특히 주민 자부담 최소화(전체 보조금의 약 10% 자부담), 민간기업의 자재 기부, 그리고 전문성 있는 기관의 시공을 중요한 사업의 성공 요인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 주민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먼저 서구의 총괄 관리 아래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세대별 실사를 진행하여 견적을 산출했고, 협력기관을 통해 창호(KCC), 벽지(신한벽지), 도어락(코맥스), 기부금(HUG) 등 현금 및 현물 지원을 받았다. 이후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민·관의 협력으로 이룬 성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민·관의 협조로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했다. 먼저 대규모로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낯선 추진방식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실시했다.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이은 질의응답 등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함께 세대별로 방문하면서 참여를 독려했다. 집수리 신청 세대는 개별 면담을 통해 개선 욕구 및 시급도 조사를 진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견적을 산출했다.

한편 추위와도 싸워야 했다. 공사가 진행되던 해 겨울의 부산 추위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매서웠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수리는 진행해야 했으므로 시공업체는 물론 집을 비워야 하는 주민들의 고생이 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 일정과 남은 시공물량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혹한기에는 공사를 일시 중지하는 등 시공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또한 준공 후에도 하자 접수를 통해 시공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추적관리를 실시했다. 사업 종료 후 주민

마을 뚝딱스 봉사단 회의 모습



만족도 조사에서도 '매우 만족'이라는 답변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 사업은 특히 민간기업의 자재 기부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 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 등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민협의체는 주민 참여를 이끌어 냈을 뿐 아니라 협력 기관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

5개 분야 12개 사업 추진

부산 서구 서대신4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안전 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휴먼 케어, 주택정비, 주민협의체 운영 등 5개 분야의 12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마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해예방시설 정비 공사를 통해 노후 석축 제거, 옹벽 블럭 설치, 골목길 재포장을 실시하고 우기에 대비하여 산지배수로를 정비했다(안전 확보). 주민 공동화장실 3개소를 정비하여 화장실이 없는 협소 주택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생활·위생 인프라), 지역 소재 복지관과 연계하여 어르신 건강관리 교실 및 실버 스마트폰 교실을 실시함으로써 고령화되어 침체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휴먼케어). 또한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주택정비).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공 모습



집 수리 사업 설명회 모습

사업이 완료되면서 마을의 안전이 확보되고 화재와 범죄 위험이 감소되었으며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생활여건은 이전에 비해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아졌다. 특히 민간기업이 후원하고 전문 기관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낙후지역에서 희망이 샘솟고 사랑이 넘치는 마을로 바뀐 시약샘터마을. 주민들의 자존감도 높아졌을 뿐 아니라 주민 간의 대화도 많이 늘어남으로써 마을에는 활력이 넘치고 있다.

"그전에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집에 들어오기가 겁이 날 정도였지요. 이제 창문과 벽도 고치고, 도배도 하고, 칠도 새로 해서 집에 오면 훈기가 돌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웃을 만나면 서로 활짝 웃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마을경관 개선 모습

마을 뚝딱스 봉사단

부산 서구의 새뜰마을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민·관 협력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는 점이다. 먼저, 한국해비타트라는 집수리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사업 총괄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관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민간기업(KCC, 신한벽지, 코맥스)에서 기부한 자재를 사용, 자재비를 들이지 않고 인건비만으로 창틀 등을 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덜어주고 시공의 만족도는 높일 수 있었다. 이처럼 민·관협력형 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의 시너지를 발휘하여 새뜰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현장실사 모습1



현장실사 모습2

또한 서구는 한국해비타트와 연계한 주민 봉사단체 '마을 뚝딱스'를 결성하여 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봉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 뜻이 있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마을로 초대하여 상습 불결지역 환경미화, 마을공용 의자 만들기 등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주체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서대신동뿐 아니라 부산 서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 전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회복해야 할 원도심의 경쟁력

원도심은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가장 오래 간직한 곳이다. 원도심의 소멸은 이러한 역사와 문화가 소멸되는 것과 같다. 부산시 서구 서대신4동 시약샘터마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



마을 뚝딱스 봉사단 사진전

다. 시약샘터마을은 6·25전쟁 이후 우리의 역사, 특히 부산 피난 시기 이후 서민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이어져 온 곳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도시 외곽의 신도시 개발과 동시에 많은 도시에서 원도심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부산 역시 서면 지역이 본격 개발되고 부산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이전 등이 이어지면서 원도심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젊은 층 인구가 빠져나가고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원도심은 점점 더 활력을 잃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시에서 원도심이 쇠퇴한 것은 아니다. 역설적인 것 같지만 서울의 원도심 상황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유의 특성과 장점을 잘 살림으로써 신도시 못지않은 원도심을 지키고 있는 도시들은 서울 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부산 서구 서대신4동의 새뜰마을사업은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사업의 미신청 세대에 대한 집수리와 마을 골목길 개선 등이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완료되는 시점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마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거 매력을 향상하여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유입 지역으로의 변화도 기대된다.

원도심의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단순히 원도심의 주거 환경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구의 소멸을 막는 일이며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일이다. 특히 시약샘터마을에서 추진된 사업은 정부의 지원 외에도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공무원의 헌신과 지역 주민의 협조 등 민·관의 협력으로 이룬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 서구 서대신4동의 새뜰마을사업은 우리나라 도시 원도심의 희망을 되살리고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 수립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도시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원도심이 개발됨으로써 모든 시민이 골고루 잘 사는 새로운 지방시대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사업 개요

사 업 명	세부내역
산지배수로 정비공사	· 배수로 및 침사지 준설 · 수로 및 관로 시멘트 보수보강
재해예방시설 1차 정비공사	· 노후석축 철거 및 방치폐기물 정비 · 경관옹벽(L=30m) 및 배수로 설치 · 안전난간 설치 및 골목길 확폭
재해예방시설 2차 정비공사	· 위험수목 전정 및 옹벽블럭 설치(L=40m) · 안전난간 및 매쉬휀스 설치 · 보행로 규사포장 및 경관조명 설치
공동화장실 정비공사	· 공동화장실 정비 3개소
슬레이트 지붕 개량공사	· 지붕 개량 5개소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 노후주택 집수리 54개소



마을 뚝딱스 봉사단 회의 모습

핵심성과

새뜰마을사업의 성공적 추진



안전확보 분야

노후 석축 제거, 옹벽블럭 설치, 골목길 재포장, 산지배수로 정비공사 등



생활·위생 인프라 분야

공동화장실 정비공사 3개소 실시



주택정비 분야

슬레이트 지붕 개량공사, 노후주택 개선

주민 관심도 증가



높은 가시적 성과

주민 선호도가 높은 주거환경 개선 및 집수리 사업



도시재생 사업 관심 증대

부산 서구 내 다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



주민 주도의 사업 견인

지속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사업 달성도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 감독 유도

침체된 마을에 활기를 더한 휴먼케어 사업

문화복지 향상 휴먼케어 프로그램
서대신4동의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서사'

어르신 건강교실 '건강해지는 이야기'

건강교실 **30**회 실시

(2023.04 기준) 누적 참가자 **300**명

실버 스마트폰 교실 '똑똑해지는 이야기'

스마트폰교실 **30**회 실시

누적 참가자 **240**명

사업 지속을 위한 기반 구축



전체 108세대 중 50% 개선으로 효과 입증



주민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집수리 교육 추진



인적네트워크 구성

(주민 봉사단체 '마을 뚝딱스')

성공 포인트

"취약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도심 빈민화를 막아야 했던 부산 서구,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1



민·관이 협력하여 구민들을 위한 **실질적 혜택 창출에 집중**

02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을 배려해 **자기 부담금 최소화** (전체 보조금의 10% 수준 자부담)

03



노후주택 개선사업 신청 및 선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자재 기부**

04



주민설명회를 활발히 실시하여 주민 이해도 상승 및 공감대 형성

05



세대별 방문을 통한 참여 독려 및 개별 면담을 통한 **정확한 견적 산출**

부산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 TOP 4

아홉산숲

300년의 정성으로 가꿔진 울창한 산림

9대가 걸쳐 300여 년 동안 관리한 아홉산숲에는 200~300년생 소나무가 곳곳에 남아있다. 오랜 세월을 보낸 숲임에도, 살뜰한 돌봄으로 건강한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소나무를 비롯해 참나무, 편백나무, 대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이 숲을 이룬다. 아이들을 위한 숲속 체험 및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환경 보존에 대한 의식을 전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520-10
051-721-9183

삼락생태공원

드넓은 공원에서 추억을 쌓아보세요

낙동강 하구 둔치 중 가장 넓은 규모로 겨울철 많은 철새가 찾아오는 곳이다. 천연기념물 철새를 위한 습지, 철새먹이터가 있다. 광활한 지역을 활용하여 체육시설, 잔디광장, 야생화단지, 자전거도로, 생태 산책코스 등 여러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시설 중 하나인 사계절꽃단지에서는 사계를 대표하는 꽃들이 절기마다 피어나 황홀한 풍경을 볼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46
051-303-0048

송도용궁구름다리

푸른 바다를 즐기는 가장 짜릿한 공간

대한민국 최초 공설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의 동쪽 송림공원에서 거북섬을 연결했던 추억의 명물 송도구름다리가 2002년 태풍 셀마로 파손되어 철거된 지 18년 만에 '송도용궁구름다리'로 재탄생하였다. 길이 127m, 폭 2m의 송도용궁구름다리는 바다 위를 걷는 짜릿함과 시원스럽게 펼쳐지는 바다 풍광, 기암절벽이 빚어내는 천혜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703
051-240-4087

오륙도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가 펼쳐진 섬

2007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오륙도는 부산의 상징물로 잘 알려져있다. 원래 육지와 이어진 반도였지만, 세월이 흐르며 분리되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6개의 바위섬으로 나뉘며, 섬 이름은 각 섬의 특징을 따서 지어졌다. '하늘 위를 걷는다'라는 의미를 담은 스카이워크에서는 바다의 물결과 오륙도의 경치를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36-941
051-607-6395

情으로 회생한 도시공동체
행복이음 활력마을 남산情

대구광역시 중구

우수사례명

마을주민과 도시재생이 만나
낡은 골목길에 활력을 불어넣다

도시도 사람처럼 늙어간다.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공동화 현상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 안에서도 마을은 쇠락을 길을 걷고 있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또한 오래된 단독주택과 좁고 어두운 골목길, 빈집과 폐가의 방치와 주변에 나뒹구는 쓰레기, 주거의 밀집으로 악화된 주차난과 낙후된 정주여건이라는 문제점을 겪고 있었다. 그런 도심 속의 마을이 어떻게 '행복이음 활력마을 남산情'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하였는지 들여다보자.

INFO

- **지자체** 대구광역시 중구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포괄보조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 **내역사업명** 우리동네살리기



마을 전경1

목욕탕처럼 따뜻한 사랑방을 꿈꾸다

대구광역시 남산3동에도 여느 도시 골목에서나 있을 법한 마을 목욕탕이 하나 있었다. 마을 목욕탕은 사람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마주하는 소통의 공간이었다. 목욕탕은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고 가장 시원한 곳이었다. 서로 속내를 털어놓는 마음이 따뜻했고, 서로 등을 밀어주는 손길이 시원했다. 그래서 목욕탕은 인정이 무르익는 곳이었다. 따뜻하게 들어가 몸을 담그는 행복이 있는, 시원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는 정(情)의 충전소였다.

30년간 만남과 소통의 공간이었지만 어느덧 마을 사람들과 함께 늙어버린 목욕탕이 되었다. 긴 세월 마을의 커뮤니티 기능을 담당해온 목욕탕의 소멸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었다. 목욕탕의 새로운 역할을 유도했다. 그것은 잃어버린 정을 되찾는 커뮤니티의 현대적 재현이었다. 다름 아닌 '남산情'의 재창출이었다. 남산3동 사람들은 '목욕탕의 부활'을 도시재생 사업의 키워드로 삼은 것이다. 모든 세대와 계층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간의 재창조는 곧 情의 회복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남산情'의 등장은 남산3동만의 지리적·문화적 자산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남산3동은 무엇보다도 대구 원도심 지역에 위치하여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이용한 편리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주거환경 개선의 유리한 여건을 제공했다. 인근의 대학 캠퍼스에서 파생된 청년문화와 공연예술거리가 있고, 대구 최고의 도심인 반월당과 동성로와 인접하여 유동인구가 활발하다.

대구시 중구 남산로6안길은 가톨릭교구청과 성모당, 수녀원 등 유서 깊은 종교문화 유산과 연계한 지역발전 가능성도 높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주민들의 자존감이자 자긍심의 발로였다. 대구 근대골목투어의 중요 코스인 '남산 100년 향수길 조성사업'의 파급효과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

情이 깃든 남산

'남산情'에 정이 깃든 것은 주민들의 마음을 잇기 위한 소통 강화에서 비롯되었다. 고령층과 젊은 세대 간, 구도심 주택 거주민과 신축 아파트 주민 간, 그리고 종교를 초월한 화합을 위하여 도시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여기서 현안을 발굴하고 문제도 해결해 나갔다. 마을 축제와, 반찬을 나누는 공유부엌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활성화했다. 고령층과 경력단절 주민 등 구도심 낙후지역 사람들을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면서 바리스타와 제과제빵, 한식조리기능사 등 재취업과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과 함께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연계했다.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집수리 봉사단 운영'으로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집수리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마을 전경2



공공디자인과 녹지조성 주민공모사업 진행도 주목받을 만했다. 100년 역사의 남산동 골목 거주환경 개선에 지역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오래된 골목을 주민들이 직접 꾸미고 관리하는 것이었다. 디자인 관련 교육을 받은 예술인과 주민들로 구성된 공모사업팀들이 아이디어와 시안을 제공하고 지역 예술가들이 제작하고 시공하는 방식이었다. 사업 후에도 주민들이 직접 특화공간과 결과물들을 관리하고 갤러리 전시, 아카이브 사업 등 후속 활동을 진행하며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주민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 거버넌스와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면서 더 큰 정이 깃들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협의회 회의를 43회나 개최했다.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주민협의회는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했다.

주민협의회에는 공유부엌 분과, 노인돌봄 분과, 아동돌봄 분과, 공동작업 분과 등 4개의 분과를 뒀다. 분과별 공간활용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실무능력을 높이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유도했다. '마을활동가 양성'과 '도시대학' 과정도 진행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수익모델과 연계한 자생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갤러리 역할을
겸하는 담장 모습



이음마당

情을 품은 남산

남산情의 성공은 지역의 지리적·인문학적 자산과 연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였다. 사업의 구상 단계부터 도시대학(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교육과정)과 주민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가톨릭 교구청, 밀알복지재단, 마을기업인 사랑나눔협동조합과의 협약과 협력 등 다양한 거버넌스의 구축도 성공의 큰 요인이 되었다. 녹지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주민공모사업과 연계해 주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제안한 '남산情 이음마당'을 조성·연출한 것도 그렇게 해서 가능한 일이었다. 주민 대상 컨설팅과 생태조경에 대한 교육의 결과이기도 했다. 공원과 녹지공간이 부족한 마을에 주민들이 편하게 다가설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생활 속의 예쁜 골목과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자부심도 함께 품었다.

남산3동에는 가톨릭 교구청과 성모당을 비롯한 오랜 천주교 건축 자산이 많다. 하지만 낡고 파손된 옹벽과 담장이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게 문제였다. 그래서 130m에 이르는 교구청의 낡은 담장을 시멘트 재질로 미장 처리해 보완하는 교구청 벽체 노후화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또한 간단한 사안이 아니었다. 담장의 역사적 정체성을 해칠 우려



골목길 모습

가 있었던 것이었다. 주민협의회와 벽체 인근 주민 그리고 교구청과의 갈등으로 시멘트 미장 공사가 일부 중단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남산3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구청과 교구청 그리고 주민협의체 등이 임시협의회를 구성해 이견을 좁히고 의견을 수렴했다. 건축 및 디자인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벽체의 미관적 요소를 해칠 수 있는 시멘트 미장을 포기했다. 대신 줄눈작업으로 벽돌 접착력을 강화해 벽체를 보강하는 한편 크랙 보강 시공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택했다. 결국 교구청과 주민들이 이를 수용하였고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한 공공디자인 주민 공모사업을 통해 타일로 담장을 디자인하는 작업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낡은 담장에 갤러리를, 천주교 담벼락엔 벽화가 탄생하면서 골목길이 알록달록한 정으로 물들었으며, 인근에 이미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인 '남산 100년 향수길사업',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었다.

情이 넘치는 남산

정이 넘치는 남산은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실현되었다. 그것은 곧 지방시대의 구현이요 균형발전의 모범이었다. 아동 보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도 그 중 하나였다. 정주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동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자 주민들이 직접 방과 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앞장섰다. 이뿐만 아니다. 아동요리지도사



남산정 행복한마당(마을축제)

자격 과정과 독서 프로그램, 아동미술 프로그램, 아동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민들이 직접 전문 강사로 활동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의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낙후지역 문화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주민협의회 예술문화 종사 위원들과 연계해서 지역의 문화자산을 발굴하고 자료를 수집해 작품전과 성과 공유회 등을 열었다. 그 결과물들은 담장 갤러리와 녹지조성 등 마을 꾸미기에 활용했다. 마을의 아카이빙 활동과 마을 브랜드화 가치를 창출해낸 것도 주목할 만하다. 주민들이 마을 브랜드를 발굴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마을 캐릭터, 마을 로고, 마을 지도 제작 등에 참여한 것이다. 마을 소식지와 홍보물 및 홍보영상을 제작하면서 애향심을 높이고 도시재생 저변을 확대해 나갔다. 지역 축제인 '남산情 행복한마당'과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도 주민 소통과 화합의 장 역할을 했다. '남산情 마을단위 주차장'을 확충해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좁고 어두운 골목길 곳곳에 CCTV 등의 생활안전시설들을 설치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은 정이 넘치는 '남산情'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주민들 간 情을 잇기 위해서는 지역민 중심으로 폭넓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변 주민들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불편도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그리고 '남산情'의 특별한 가치는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공감이 되어야 한다. 지역의 종교자산, 예술문화 자산, 편리한 교통여건을 활용한 '남산情'의 고유한 정서를 더욱 널리 알리면서 주민주도형 마을관리의 모범사례로 정립해 나갈 것이다.

활력이 필요하면 '남산情'으로

'남산情'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도시재생이 행정기관과 주민협의체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협력 덕분이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주인정신과 적극적인 참여였다. 단순한 봉사나 소극적인 참여로는 분명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남산情' 사람들은 예술문화, 집수리, 요식업 분야 실무자로 성장하면서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했고 지역 업체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냈다.

'도시재생'은 똑같은 형태의 도시 복제가 아니다. 고유한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지역만의 정체성을 살린 새로운 얼굴로 거듭나는 것이다.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활력이 넘치는 남산情 공동체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情이 깃들고 情을 품으며 情이 넘치는 마을의 르네상스를 꿈꾼다면 대구의 남산情은 꼭 찾아가 볼 만한 특별한 장소가 될 것이다.

'2022 남산3동 도시재생뉴딜사업(프로그램사업)' 만족도 및 참여인원

프로그램 구분	만족도(5점)	참여인원(명)
도시대학	4.1	30
목공예술	4.6	5
회화	4.3	7
제과제빵	4.6	9
바리스타	4.5	11
한식조리 자격증반	4.7	5
공유부엌(가정식요리)	4.4	5
과일청제작프로그램	4.4	20
건강프로그램	4.1	50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자격과정) 프로그램	4.5	10
마을축제 운영	3.9	300
집수리 교육	4.3	10
공공디자인, 녹지조성	4.4	19
집계	4.3(평균)	481(합계)

남산情 마을단위 주차장 조성

사업대상	남산동 2210-7, 96(491m²), 15면 규모
사업내용	주민들의 주차공간 부족 및 외부차량 장기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공용주차장으로 활용 불법 주·정차 문제 및 주차로 인한 지역갈등과 사회적비용 감소 효과

대구광역시
중구

핵심성과

도시대학 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 2021년~

사업 대상 남산3동 주민 대상

사업 내용
- 마을활동가 양성, 협동조합 설립, 커뮤니티공간 운영 컨설팅
- 도시재생, 건축, 생태조경, 디자인 등 각 분야 이론 및 실습
- 향후 마을관리협동조합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토대 마련

자립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공적 추진

아동 보육 및 방과후 프로그램
아동요리지도사 자격과정, 독서, 예술문화 프로그램

어르신자립지원 프로그램
동기부여 교육, 한식조리, 제과류 제작, 음료개발 등

상권활성화 프로그램
바리스타, 한식조리기능사, 등 취·창업을 위한 자격과정

주민공모사업으로 공동체 활성화

청소년 사진전 운영

마을축제(남산情 행복한마당) 개최

노인돌봄 자격과정 운영

건강 프로그램 운영

마을 콘텐츠 구축

마을 아카이빙 사업
- 주민 대상으로 아카이브 활동가 양성
- 사진/영상, 주민인터뷰, 옛 사진 등 기록화 사업 추진
- 도시재생 행사, 성과공유회 등 홍보사업에 활용

마을브랜드 프로그램
- 마을캐릭터(버찌) 및 마을로고 개발
- 전문 커리큘럼의 마을브랜드 교육
- 알기 쉬운 마을지도 제작

성공 포인트

> 오래된 단독주택이 늘어선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했던 대구 중구,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1

세대 간, 신·구도심 주민 간, 종교인 간 화합을 위한 **도시대학 프로그램 운영**

02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반찬을 나누는 공유부엌 프로그램 운영**

03

지역예술인과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골목 개선

04

주민협의회를 활발히 개최하여 갈등 요소 사전 예방 및 자긍심 고취

05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주민협의회의 실무능력 상승에 기여

대구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여행지 TOP 4

대구근대역사관

대구의 근현대사를 조명하는 공간

1954년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으로 이용되다 2011년 대구근대역사관으로 새롭게 단장한 곳이다. 르네상스 양식으로 우수한 조형미를 자랑하는 역사관 건물은 2003년 대구시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는 근대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상설전시장, 기획전시실이 갖춰져 있다. 대구의 근대역사에 대한 교육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67
053-606-6430

앞산공원전망대

도심 속 탁 트인 전망을 즐기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앞산공원에 있는 전망대다. 앞산은 '대구의 앞쪽에 있는 산'이라는 뜻으로, 불리던 이름이 고유명사가 된 경우다. 공원에는 울창한 산림, 접근성 좋은 산책로, 전망대까지 오를 수 있는 케이블카가 있다. 등산으로 전망대에 다다를 수 있지만, 케이블카로 손쉽게 정상에 올라가 도시를 한눈에 담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산227-4
053-625-0967

대구섬유박물관

섬유 산업의 중심, 대구의 역사를 안은 곳

대한민국 유일의 섬유박물관으로, 섬유와 패션의 역사를 조명하고 그 미래를 물색한다. 패션관, 산업관, 미래관으로 전시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전시공간은 기업의 참여로 전문성을 더한다. 실과 바늘을 소재로 한 외부 상징조형물, 누에고치를 형상화한 내부의 상징조형물 등 전시 외 볼거리도 풍부하다.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053-980-1004

시인이상화고택

이상화 시인의 숨결을 느끼다

항일문학가로 잘 알려진 이상화 시인의 고택이다. 1999년 고택 보존을 위한 시민운동을 시작으로, 군인공제회가 매입하여 대구시에 기부하였다. 이후 고택 내 전시물을 설치해 시인의 정신과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인이 생전 쓰던 물건, 책, 사진이 그대로 담겨 있어 그의 세계와 역사를 체험하기에 제격인 공간이다.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2가
053-256-3762

지방시대, 지역희망 이야기

2023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집

기획 및 편집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손웅기 국장, 이종훈 과장, 박종서 사무관, 조혜영 전문관

균형발전사업 평가자문단
육동일 단장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종석 본부장, 이강우 단장
임수경 센터장, 손중길 위원, 박종성 수석

홈페이지 https://www.nabis.go.kr
대표전화 044-251-3118
집필작가 박은경 대표, 변점식, 조향래, 문정연, 전형준, 최선빈
디자인·인쇄 한국애드